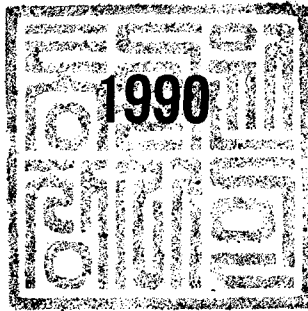


分斷 45年  
南北韓 經濟의 綜合的 比較研究



917

執筆：高 鉉 旭(慶南大)

姜 文 久(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

國 土 統 一 院

- I. 本 研究報告書는 當院 調査研究室 南北韓 比較研究 事業의 일환으로 外部專門家에 위촉한 特殊課題研究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見解를 반드시 反映하는 것이 아니며 南北韓 經濟交流·協力 및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資料로서 提供되는 것임.

# 目 次

第1章 序 論 .....	3
第2章 南北韓 經濟體制의 比較 .....	7
第3章 南北韓 經濟開發計劃의 基本 方向과 成果의 比較 .....	12
1. 分斷 前後時期의 經濟開發計劃, 基本 方向과 成果 .....	15
2. 60年代의 經濟開發計劃 .....	24
3. 70年代의 經濟開發計劃 .....	30
4. 80年代의 經濟開發計劃 .....	39
第4章 南北韓 經濟發展 成果의 總體的 比較 .....	49
1. 成 長 性 .....	50
2. 效 率 性 .....	69
3. 安 定 性 .....	82
4. 衡 平 性 .....	95
第5章 要約 및 展望 .....	101

## 第 I 章 序 論

1945년 韓半島에서는 解放의 환희가 독립된 民主國家로의 樹立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극심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거쳐 임시적인 措置로서만 생각되던 休戰協定の 산물인 分斷을 낳았다. 그 이후 45년이란 긴 分斷의 歷史가 흐르면서 南北 韓 政府는 대부분의 시기를 相互對立과 相互嫉視의 틀 속에서 각각 다른 경로의 經濟發展을 추구해 왔다. 소위 社會主義(共產主義)體制와 資本主義 體制라는 상이한 모델이 반만년 동안 공유해 왔던 韓半島라는 동일 토양 위에서, 그리고 日本의 식민지 수탈로 인하여 獨立的인 國民經濟體制로서의 유기적 구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분기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sup>1)</sup>

이 分斷現實이 民族史的인 비극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 온 相互對峙局面은 다방면에 걸쳐서 갖가지 부대비용을 수반하여 總體的인 政治·經濟開發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서 기능해왔다. 相對 體制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함으로써 각기 자신의 體制와 모델이 韓半島의 全體的인 發展을 이룩하는데 더욱 더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려는 努力이 선의의 경쟁을 誘發하기 보다는 오히려 극한적인 對決意識을 더욱 조장하는 弊害를 낳아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최근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이와 연관된 東歐 여러 나라들의 改革의 波長은 이데올로기적 對立을 增幅시켜 온 韓半島의 상황에 그 의미가 중대한 함축이 있어 보인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는 도그마가 아니라 인간의 社會的 欲求를 얼마나 效率的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도구로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정립되게 된 것이다. 인간의 社會的 欲求의 變貌에 따라서 政治的·經濟的·社會的 메카니즘 역시 效果的으로 변화하고 조

정되어가야 하며, 따라서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더 이상 어떤 발전을 담보해주는 기준일 수는 없게 되었다.<sup>2)</sup> 즉 이전에는 相對體制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서 작동했던 이데올로기가 그간의 體制建設過程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자기모순과 桎梏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現實속의 實踐力에 의해 평가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고로 南·北韓 經濟發展의 比較를 目標로 하는 이 論文 역시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相互 排他的인 기준에서 相對體制에 대한 優越성의 確保를 위한 分析이 빠지기 쉬운 偏向的이고 平面的인 比較研究를 지양하면서, 각 體制가 이룩해 낸 結果를 相互 認定하는 각 측면에서 兩體制가 이룩해온 經濟發展成果를 평가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자 한다. 더군다나 國內에서도 統一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南北韓經濟의 發展程度를 總體的으로 比較할 수 있다면 이는 各 體制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임으로써 相互 補完的인 측면에서의 統一論議에도 一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능케 한다.

이런 가정위에서 신데탕트 시대에 있어서 상이한 經濟體制의 經濟發展成果의 比較研究가 가지는 含蓄을 염두에 두면서 本稿에서는 먼저 南北韓 經濟體制의 運轉을 比較하므로써 글을 시작하겠다. 여기에서는 各 體制가 重點을 두는 우선 순위 및 이와 연관된 各 體制의 특징을 比較·考察하겠다. 다음으로는 南北韓 經濟發展成果를 歷史的인 시대순으로 比較 分析하려 할 것이며, 이 부분에는 南北韓政府의 經濟開發計劃의 基本 方向과 그 성취도를 중심으로 한 論議가 포함될 것이다.

第3章에서 歷史的인 관점에서 南北韓 經濟發展成果를 개괄한 후, 第4章에서는 比較規準別로 南北韓 經濟發展成果를 재차 검토해 나가겠다. 적용되어질 주요한 比較基準은 성장성, 효율성, 안정성 및 형평성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참조하겠다. 第3章과 第4章을 총괄하는

第5章에서는 南北韓 經濟發展의 成果를 總制的으로 比較하면서 요약 정리하겠으며 끝으로 南北韓 經濟交流 및 北韓의 開放可能性과 관련하여 南北韓經濟에 대한 전망을 덧붙이겠다.

이 서론부분을 끝내기 전에 本 研究가 가지는 한계성에 대해 간략히 言及하는 것이 유익할 듯하다. 유사한 體制나 모델의 發展成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比較研究의 適實性이나 그 比較基準을 설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비록 유사하다고는 하나, 그 테두리내에서 분기되는 차별성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이한 體制의 經濟發展 比較에서는 各 體制가 추구하는 目標,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相對的 長點에 대한 증거로서 西方 및 蘇聯 유형의 經濟를 典型的인 統計的 方法으로 比較하는 것은 그러한 體系들이 運用되고 있는 經濟的 環境과 經濟行爲의 수행에 대해 經濟體制가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데 本質的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sup>3)</sup> 뿐만 아니라 北韓에 관한 한 다양한 經濟的 制度와 經濟政策 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情報는 물론 그 公式的인 經濟的 統計의 양과 질에 관련된 어려운 困難에도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北韓의 國民所得은 GNP라기보다는 純物的 生産額(Net National Material Product : NMP)으로 불리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인 바, 여기에서의 純物的 生産額에는 '生産的 用役'의 生産에 의해서 發生하는 收入額만을 포함되며 生産과 分配에 直接的으로 관련되지 않은 用役은 제외된다. 이 외에도 對外貿易 統計에 있어서 본선인도가격(F.O.B)와 보험료인포함가격(C.I.F)의 혼동에서 오는 수치상의 차이도 단순한 統計 比較上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자면 經濟體制가 달라짐에 따라 基本的인 經濟變數와 지표의 계측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며 또한 社會主義體制에서는 환율이 인위적으로 決定되고 수년간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社會主義 體制의 經濟 指標는 많은 경우 추정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4)</sup> 그런고로 이 論文에서 개진하고자 하는 南·北韓 經濟發展의 成果에 대한 比較 역시 이러한 制約을 고려하면서, 全體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第 II 章 南·北韓 經濟體制의 比較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國家들 중에서 純粹한 形態의 資本主義나 社會主義 혹은 共產主義 體制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概略的인 관점에서 經濟體制를 분류하려 할 때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體制라는 二分法을 사용하는 바, 이는 어디까지나 分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實質的인 比較分析作業에는 綜合的인 補完·修正이 반드시 필요하다.

經濟體制의 定義에도 갖가지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經濟體制는 넓은 의미에서 定義된 特徵群으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재산의 소유권, 정보과정 및 사용, 정책결정과정, 경제행위의 법칙, 그리고 조직원리 등이 포함된다. 이런 맥락에서 스웨덴의 經濟學者 린드벡(Assar Lindbeck)의 見解를 토대로 정의해보면, “經濟體制란 어떤 특정의 地域 內에서 生産, 所得 그리고 消費와 關聯된 意思 및 政策決定과 이의 수행을 위한 메카니즘과 제도(institution)”로 규정된다.

經濟體制를 크게 두 갈래로 보는 관점에서, 하나는 意思決定의 分權化, 私有財產權, 經濟的 誘因體制, 自由競爭, 開放經濟를 주요 골자로 하는 資本主義的 市場經濟體制이며, 다른 하나는 意思決定의 中央集權化, 官僚體制, 集團所有權, 命令體制, 非競爭, 自給自足 經濟를 주요 골자로 하는 社會主義的 命令經濟體制이다.<sup>5)</sup> 그리고 이 두 가지 形態의 中間地點 어디에 우리는 市場 社會主義(Market socialism)를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以上の 定義와 論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經濟體制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은 도표가 가능해진다.



[표 II-1] 경제체제의 분류

	資 本 主 義	市 場 社 會 主 義	計 劃 社 會 主 義
意思決定構造	분 산 화	분 산 화	중앙집권화
情報와 調整 메카니즘	시 장	시 장	계 획
財 産 權	사 적 소 유	국가 그리고/혹은 집단적 소유	국 가 소 유
誘 因	물 질 적	물질적·도덕적	물질적·도덕적

\*출 처 : Paul R. Gregory and Robert C. Stuart,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80), p.21.

위의 도표에서 유의할 사항은 分散化나 中央 集權化, 市場이나 計劃, 그리고 사적소유와 국가소유라는 특징 앞에는 반드시 '대체적으로 수식어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갑영교수의 다음의 설명은 위에서 정리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즉 資本主義는 일반적으로 生産手段의 사유화가 인정되고 分散化된 意思決定의 구조에서 시장기구에 의해 情報와 意思決定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經濟體制이다. 또한 동기부여는 物質的 인센티브를 中心으로 各 經濟主體가 이익의 極大化를 추구한다. 市場社會主義는 生産手段의 공유를 바탕으로 意思決定이 分散化되어 있고 市場機構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體制에서는 物質的 補償과 道德的 인센티브가 동시에 活用된다. 한편 計劃 社會主義는 生産手段의 國有化를 바탕으로 中央計劃當局의 計劃에 의해 情報와 意思決定이 조정되는 中央集中的 構造를 갖고 있으며 命令과 物質的 또는 道德的 인센티브가 目標達成을 유도하는 方法으로 活用된다.

直接的으로 적용하기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으나, 經濟體制의 基本的인 특성을 理解하기 위해서, 우리는 南韓의 經濟體制를 위에서 규정한 資本主義體制에, 그리고 北韓의 經濟體制를 計劃 社會主義에 各各 對應시킬 수 있을 것이다. 經濟

活動 및 資源 配分의 組織原理로서 南韓經濟는 시장메카니즘을 채택함과 동시에 절충적인 形態로서 여러 부문에서의 政府介入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北韓의 경우, 基本的으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고수하면서도 기업이나 공장의 독립채산제 강화, 지방예산제도의 채택, 가격의 기능과 역할의 강조 등 경제관리 면에서 부분적인 變化를 시도하고 있다.<sup>6)</sup>

南韓과 같이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의 積極的인 政府介入政策을 반영하면서 일부 學者는 資本主義 規制市場經濟(Capitalist regulated market economies) 體制를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는 데, 이 體制에서는 대부분의 生産手段은 私有化되어 있고 市場에서의 조정기능에 의하여 經濟活動의 水準과 成長率, 投資, 生産量의 構成 등의 결정된다. 그러나 政府는 社會厚生, 失業, 所得分配 등의 問題에 다양한 政策手段을 동원하여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資本主義 規制 市場經濟는 國內의 傳統的인 市場經濟體制에 政府의 개입과 규제를 강조한 제도로서 사실상 많은 資本主義國家에서 채택되어 왔으며, 南韓의 經濟體制도 이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北韓도 그들의 과도한 中央集權的 體制가 야기시킨 결함을 補完하기 위해 여러가지 手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手段중 代表的인 것으로 1960년대 초반의 '청산리 방법' 및 대안체계의 채택과 協同管理體制의 재편성, 1960년대의 중반과 후반의 기획기구의 설립 및 中央과 地方行政機關間의 업무의 재분배, 그리고 독립채산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北韓은 1984년부터 전반적인 經濟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합영법 제정 및 무역관리체제의 合理化政策, 그리고 科學發展政策 등을 들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새로운 措置 및 手段들이 北韓의 中央統制經濟發展의 持續으로 인해 커다란 成果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주요한 變化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상과 같은 상이한 體制의 基本的인 특징을 인식한 바탕위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政策決定過程 및 經濟管理組織上的 차별성이다. 왜냐하면 비록 長期的이고 일관된 政策方向이 설정된다하더라도 그 결정과정과 實質的인 수행과정을 통해서 다소간의 수정 내지 변경되는 것은 現實的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政策決定過程과 經濟管理組織 혹은 遂行機構의 특성이 根本的인 體制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北韓은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體系를 유지하고 있고, 모든 生産手段이 국유 또는 공유로 되어 있으므로 生産으로부터 分配·消費에 이르는 과정이 中央當局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총체적인 계획의 方向設定과 이행의 主導的인 역할은 政府에 있지만 그 틀내에서의 民間經濟主體의 역할이 지대한 南韓과는 크게 다르다. 그 결과 北韓의 經濟管理組織과 機構는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經濟部署의 기능과 임무도 폭 넓게 짜여져 있다.

1988년 9월 현재의 시점에서 北韓은 14개 委員會, 19개부, 1원 등 34개 部署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25개 部署 이상이 經濟部門을 擔當하고 있어 北韓의 行政機構가 얼마나 經濟部門에 편중되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北韓에 있어서 經濟運用에 관한 政策決定이 더욱 복잡해지고 그 성격도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테크노크라트와 經濟專門家들의 대폭적인 浮上으로서 1977년 第6次 內閣에서 14명의 부총리급 중에서 11명이 테크노크라트인 사실은 이를 예증해준다.

北韓의 經濟政策을 총괄하는 機關으로서는 勞動黨 秘書局 산하의 第1, 第2, 第3經濟部로 나뉘어져 있는데, 第1經濟部는 중화학공업분야, 第2經濟部는 輕工業 및 人民奉仕部門, 第3經濟部는 農水産業 및 社會間接資本 등을 管掌하고 있고 經濟計劃을 총괄하는 部署는 政務院內 國家計劃委員會가 있으며 經濟各部門別 細部計劃 樹立과 執行監督機關으로서는 정무원 산하의 各 委員會 및 部가

있다.

이에 비해 南韓의 경우 1960년 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온 經濟開發計劃의 樹立·施行過程에서 政府의 주도하의 민관협동체계가 發展되어져 왔는데, 특히 최근의 經濟企劃院 장관의 부총리로의 지위 격상, 그리고 大統領 經濟擔當 秘書室의 역할 강화 등이 經濟問題에 대한 政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 第Ⅲ章 南·北韓 經濟開發計劃의 基本方向 및 成果의 比較

經濟政策의 目的은 國民所得의 증대, 所得分配의 衡平性, 經濟安定의 確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目標들은 獨立的인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相互補完的으로, 또다른 경우에는 相互矛盾的인 關係를 맺기도 하는 것들이다. 經濟體制<sup>8)</sup>의 相異함에도 불구하고 經濟의 窮極的 目的은 위에서 말한 세가지 目標의 方向으로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가정하면서 各國이 그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文化的 環境을 고려하여 樹立하는 經濟開發計劃의 基本方向과 그 成果의 比較는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지는 바, 이를 南北韓 經濟發展成果의 比較를 위한 전 단계로서 검토해 보려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내외의 여러가지 여건변화에도 자력갱생의 原則에 입각하여 外延的成長(extensive growth)<sup>9)</sup> 政策을 고수한 北韓과 國民厚生<sup>10)</sup> 수준의 증대에 입각하여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주도한 南韓과의 經濟開發計劃의 基本方向과 그 成果를 比較 分析하는데 있어서는 統計資料利用의 제약 그리고 가용자료의 신빙성 등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南北韓 經濟開發計劃의 基本方向 및 成果 比較는 分斷 이후 南北韓 經濟의 全般的인 比較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相互補完的인 측면에서 南·北韓 經濟體制와 그 經濟開發計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 經濟開發計劃의 基本方向과 成果에 대한 比較는 各 經濟體制가 앞으로 選擇하여야 할 經濟政策의 合理的 方案을 研究하는 데 參考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南北韓 經濟開發計劃의 基本方向과 經濟成長의 比較를 위해서 여러가지 유형

의 시기적 구분이 가능하겠지만<sup>11)</sup> 여기에서는 分斷前後 時期와 그 이후 10년 기간별로 나누어 比較分析하고자 하는 한편 南北韓 經濟의 經濟開發計劃 段階의 基本方向과 成果에 대한 고려가 補完될 것이다.

北韓의 經濟計劃은 1947년 1개년계획 이래 최근 第3次 7개년계획에 이르기까지 9次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南韓은 1962년 第1次 5개년계획이래 최근 第6次 5개년계획에 이르기까지 6次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北韓의 經濟計劃은 計劃期間에 따라 展望計劃에 現行計劃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2년 이상이며 일정한 期間에 대해 포괄적인 經濟發展方向과 長期的인 經濟均衡을 달성하기 위한 綜合指標的 성격을 띄고 있다. 이에 반해 現行計劃은 1년 이내의 단기적 계획으로써 연간, 分期, 월간계획으로 작성되어 經濟活動 단위의 具體的인 行動指針을 규정시킨다. 그리고 北韓의 經濟開發計劃이 執行過程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여러가지 방법<sup>12)</sup>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計劃期間을 연장하거나 축소·조정하는 특징<sup>13)</sup>을 지니고 있다.

표[ III-1]은 南北韓 經濟開發 計劃을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다. 分斷前後時期에 있어서 南韓은 두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計劃이 입안되었지만, 1953년 4월 네이산(Robert Nathan)사절단에 의해 작성 발표된 韓國經濟開發計劃의 효시라 할 수 있는 韓國經濟再建 計劃(1953~7)은 6·25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리고 1958년 봄 당시 政府의 復興部산하 '産業開發委員會'에서는 원조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는, '經濟開發 3개년 計劃'<sup>14)</sup>이란 중기 經濟計劃을 마련 시행하려 하였지만, 南北韓 대치 상황하에서 自由經濟主義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승만政府가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시행되지 못하였다.<sup>15)</sup> 그러나 1961년 軍事革命政府가 樹立되고, 당시의 經濟構造와 政策手段을 탈피해야만 經濟發展의 窮極的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요구가 대두하였다. 이에 政府는 社會的 혼란과 국가적 위기가 國民經濟를 악화시킨다는 입장에서 國民福祉 향상과 自立

經濟達成 즉 安定基調의 適正成長, 重工業기반의 重化學工業 촉진, 經濟的 형평과 효율성, 대외지향적 工業화를 基本政策 노선으로 하여 1990년 현재까지 6차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입안·시행하여 왔다. 이에 반해 北韓은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여 自力更生의 원칙, 자기완결형 綜合的 發展, 技術的 自立, 원료 및 연료기지형성 등 經濟開發政策路線<sup>16)</sup>으로 현재까지 9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시행해 왔다.

[표 III-1] 남북한 經濟開發計劃 時期別 區分

시 기 / 구 분	남 한	북 한
분단전후시기		1947년 1개년 계획
		1948년 1개년 계획
		1949-50 2개년 계획
		1954-56 3개년 계획
		1957-61(60) 5개년 계획
1960년대	1962-66 제1차 계획	1961-67(70) 7개년 계획
	1967-71 제2차 계획	
1970년대	1972-76 제3차 계획	1971-67 6개년 계획
	1977-81 제4차 계획	1978-84 7개년 계획
1980년대	1982-86 제5차 계획	1987-1993 7개년 계획
	1987-1991 제6차 계획	

이러한 南北韓의 45여년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韓國 經濟는 1945~1948년 美軍政의 원조를 시작으로 한국동란과 戰後復舊期인 1960 年에 이르는 16餘年 동안을 外國의 援助에 의존했던 分斷前·後時期의 外國援助 經濟期, 第1-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추진한 60년대의 自立經濟基盤造成 期, 對內外的 시련을 겪기도 하였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工業화로 經濟의 양적규모의 확대는 물론 산업의 질적 고도화단계를 맞이하였던 自立經濟基盤確立期, 1986년을 기점으로 자립경제로의 새 단계를 80년대의 自立經濟確立 및 先進化

期<sup>17)</sup>로 段階區分할 수 있다. 이에 자급자족 경제(Autarky)를 주장하는 北韓經濟는 分斷前後 時期에 生産手段의 國有化 農業의 協同化·商業의 집단화 그리고 戰後 復舊 등 社會主義 體制및 移行完成期를 맞이했으며, 經濟建設에 注力하여 社會主義 工業國으로 성장한다는 60년대의 社會主義體制 確立期, ‘主體思想’을 앞세우고 ‘10대 展望目標’라는 대규모 사업을 전개하였던 70년대로 나뉘어진 다.

[표Ⅲ-2] 南北韓 期間別 段階區分

국 별 \ 기 간	분단전후시기 (1945-1959)	1960-1969	1970-1979	1980-
남 한	외국원조경제기	자립경제기반 조성기	자립경제기반 확립기	자립경제확립 및 선진화기
북 한	사회주의체제형성 및 이행완성기	사회주의체제 확립기	사회주의체제 정체기	신정책방향 모색기

\*출처 : 김이태, 「현대한국경제론」(법문사, 1988), pp.123-158.

신승철, “개혁, 개방 그리고 합영법”, 「북한의 경제」

(을유, 1990), pp. 214-219에서 발췌.

## 1. 分斷前後時期的 經濟開發計劃, 基本 方向과 成果

이 시기는 蘇聯軍 駐屯下에서 社會主義 體制 形成期(1945-1950), 戰爭期間, 戰後復舊期(1954-1956)의 第1次 3개년 計劃 그리고 北韓의 工業化가 40여년간 經濟開發計劃中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된 第1次 5개년계획(1957-1960)을 포함 하는 期間이다. 그리고 남한은 左右翼間의 鬭爭 등 國內의 소요사태 등으로 政治的·經濟的·社會的 혼란으로 經濟開發計劃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外國援助에 만 지나치게 의존하던 시기이다.

이와 같은 關係로 이 시기의 南北韓 經濟開發計劃의 基本方向과 그 成果比較



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北韓의 計劃과 成果를 重點的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 (1) 第1次 1個年 計劃(1947)

蘇聯軍 駐屯下에서 社會主義體制로의 구조개편기(1945-46)<sup>18)</sup>를 끝낸 北韓은 人民民主主義 改革期<sup>19)</sup>를 발판으로 1947년 1월 12일 최초로 第1次 1개년 展望 計劃을 樹立·執行했다.

이 計劃은 長期間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로부터 파생된 수준향상 그리고 民族 經濟의 自立的 發展을 위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다음과 같은 目標을 설정했다. 첫째, 일제하에 파괴된 시설<sup>20)</sup>과 노후화된 工場·企業所를 補修·運營하여 전년대비 生産量을 두배정도로 성장시킨다. 둘째, 生産組織을 개선하여 自立 經濟를 도모하고, 經濟面의 절약준수와 도급제실시로, 勞動力의 生産능률을 48% 향상시킨다. 셋째, 석탄생산의 증대와 공급보장, 넷째, 철도산업의 根本的 개선, 다섯째, 농촌경제의 發展에 필요한 生必需品과 工業品을 生産하는 동시에 주민의 主要食糧의 요구에 대처하도록 한다. 여섯째, 국영산업망과 소비조합산업망을 확장하여 상품의 유통을 강화한다. 그리고 개인자본을 産業과 商業會社에 인수하여 개인의 創意性을 고취한다.

이와 같은 計劃의 基本方向은 經濟秩序의 회복과 최소한도의 인민생활안정을 시도한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업소 복구, 석탄생산의 증대, 철로의 정상화, 생필품의 생산, 식량생산의 증대 그리고 商品의 流通構造 改善 등 일련의 方向은 體系的인 發展計劃보다는 당면문제 해결의 특성<sup>21)</sup>을 지닌다.

經濟計劃의 具體的인 目標과 成果를 살펴보면 國營産業의 生産量의 目標을 전년대비 92%증가된 84억원으로 책정하여 226%가 증가되었다.<sup>22)</sup> 이 目標達成을 위해 8.8억원의 중앙예산을 支出計劃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곡물의

총수확고를 전년비 118.6%가 되는 215만톤을 증산하기 위해 경지면적 역시 전년비 116.9%가 되는 223억 4천 3백만 町歩로 計劃하였으나 20% 미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첫째, 파괴시설 및 노후된 施設復舊와 運營에 주력함으로써 황해제철소의 骸炭爐와 용광로를 完全復舊하여 선철과 코우크스의 生産이 시작되고 16개의 탄광·광산이 復舊되었다.

둘째, 自立經濟實現을 위한 生産組織改善의 實績은 공식현황 및 成果分析에 대해서는 發表하지 않았으며, 獨立採算制를 도입하지 못한 결과 計劃性 있는 經濟的 원가 절감 및 기업의 수익성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리고 도급제가 實現되지 못하므로써 設備能力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國家財産의 冷痺현상을 완전히 排除하지 못했다.

셋째, 이 期間中 철도산업의 根本的 改善의 발표 역시 미온적이었으나 수송력 제고를 위한 도로공사는 183%, 교량공사는 114%, 하천공사 121%, 항만공사는 114%를 達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食糧生産의 증대에 있어서는 計劃의 10%가 미달한 217만톤을 生産하였다.

다섯째, 國營과 消費組合網이 504개소 증가되고, 生必品の 供給과 都農間 물자교류가 擴大되어 商品의 流通構造改善計劃 전에 비해 약 9배 증가함으로써 상당한 成果로 보인 것으로 分析된다.

이와 같은 北韓의 第1次 1개년 計劃은 전반적으로 초과달성되고 있지만 주요한 計劃目標에 있어서는 低調한 實情이었다. 즉 전년대비 工業 總生産 200%의 增加目標와 양곡 30만 生産目標는 각각 70% 증가 生産에 머물게 되었다. 이는 經濟基盤의 마약, 技術的 지도의 미숙, 허약한 기술축적기반 때문에 계획방향과 比較分析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 (2) 第2次 1個年 計劃(1948)

北韓은 1947년도 計劃의 遂行實績에 기초를 두면서 다음과 같은 目標을 樹立했다. 첫째, 일제지배하에 造成된 산업의 편파성 타파, 둘째, 각종 生産品의 증대와 生産品質提高 그리고 物價節減, 셋째, 食糧과 工業飲料의 증산을 위한 農村經濟의 發展, 넷째, 運送의 發展과 教育·文化施設 擴充. 이러한 基本方向으로 1948년 第2次 1개년 展望計劃이 樹立되었으나 47年案과 큰 差異는 없는 것이었다.

이 基本方向에 따라 北韓은 機械·器具·農業機械 附屬品·生産必需品の 生産과 그 生産原料의 節減에 주력하는 동시에 食糧·工業原料 確保를 위한 農業部門의 發展과 運送産業의 擴充強化 등에 집중하였다.

특히 生活必需品, 機械 및 機械附屬品 生産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勞動組織의 개선, 都給制실시, 賞金制, 食糧配給制, 노동규율의 強化 등 勞動生産性의 증대<sup>23)</sup>를 위한 勞動者의 生産意慾 鼓吹方案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計劃的 經濟管理의 強化를 위해 獨立採算制 實施와 技術者 양성사업을 積極的으로 추진시킨다는 계획을 樹立하였다.

北韓의 發表한 資料(最高人民會議)에 의거하여 48년도 經濟計劃의 目標과 成果를 部門別로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勞動組織과 生産組織의 개선에 의해 전년도에 비해 勞動生産性은 136.1%로 제고되었으며, 物價의 9.5% 인하는 10억원 이상의 節約을 실현했다.

이와 같이 工業部門의 經濟計劃은 102.9%가 초과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39.1%로 성장되었다. 이를 生産部門別로 보면 電氣部門은 102.4%, 石炭部門은 102.2%, 金屬部門은 115%, 機械工業部門은 101.7%, 化學部門은 110.2%, 調製工業部門은 112.5% 각각 초과달성하였다. 그러나 輕工業은 計劃의 90.2%, 鑛

業部門은 96.1%의 달성에 그침으로써 目標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전년대비로 보면 123.2%, 鑛業部門은 127.8%로 生産實績이 성장되었다.

둘째, 農業水産部門, 農地는 15,209정보가 새로 확장되었으며 穀物收穫高는 280만 5,231톤으로 46년에 비하면 40.6%가 증가되었고, 牧畜業은 18.6%, 林業은 100.8%, 水産業은 103.1%를 각각 달성했다.

셋째, 運輸 및 채신, 人民經濟의 원가절감, 순환확보와 都農間 商品流通의 촉진방안으로 제시된 貨物輸送計劃은 100.9% 초과달성하였다.

그리고 채신과 電話線路延長計劃은 각각 104%, 112.9%로 증대됨으로써 通信産業 發展의 基礎를 다졌다.

이와같은 發表를 第2次 2개년 計劃의 基本方向에 준하여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生産品의 증대는 計劃目標을 달성하였지만 不良品의 生産으로 國家財政에 손실을 주었으며, 둘째, 原價節減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산업의 원가계산의 미숙 및 독립채산제의 초보적 知識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셋째, 農村經濟의 發展을 위한 도금임금제는 正確하고 광범위하게 實施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製品處分에 대한 대책 및 비계획으로 인해 企業의 活動이 저해됨으로써 實績達成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運送 및 交易은 輸送計劃에 따른 蹉跌과 生産量 計劃에 따른 交易條件의 불균형이 있었지만 현저한 發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3) 第1次 2개년 計劃(1949-50)

祖國의 自主獨立과 民主發展의 保障 그리고 人民의 福祉增進, 文化水準의 향상을 위해 실시된 北韓의 第1次 2개년 計劃은 첫째, 일제지배하에 造成된 産業의 편파성 타파 즉, 産業部門의 完全自立性 確立, 둘째, 土地改革 成果의 擴大와 農林生産施設(水田面積, 灌溉施設)增設擴張, 셋째, 生活必需品 충족 供給과

都農間 商品流通의 원활, 그리고 物價安定, 넷째, 生産組織 合理化에 근거한 품  
질개선의 企業의 수익성 제고, 도급임금제 擴大 實施로 勞動者 실질임금의 증대  
등이라는 基本方向<sup>24)</sup>을 설정하였다. 이와같은 方向은 47년, 48년의 基本方向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 성격을 띠었으나 6·25전쟁으로 實行되지 못하였다.  
1949년 1월 28일 最高人民會議에서 2개년 計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정  
준택은 다음과 같이 人民經濟의 새로운 發展<sup>25)</sup>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2개년 計劃은 북반부의 人民經濟를 復興發展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現  
在 파괴되고 있는 남반부의 人民經濟를 復興시키는 토대이며,

둘째, 計劃이 勝利的으로 달성되면 남반부에 있어서도 북반부와 같이 産業의 국유화, 토  
지개혁을 실시하고 人民經濟를 계획적으로 發展시킬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며,

셋째, 2개년 計劃을 북반부 人民들에게만 기대한 임무를 부여할 뿐 아니라 남반부 人民  
들에게도 동일한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第1次 2개년 計劃에 관한 國家計劃委員長 정준택의 基本方向發表  
는 당시 委員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으며 아마도 2개년 計劃이 성공적으  
로 遂行되면 이를 기반으로 南韓革命을 시도하려고 計劃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기간의 計劃의 基本目標은 비록 전쟁으로 무산되었지만 經濟部分에서  
1944년 生産水準에 도달하는 것을 基礎로 하고 있다.

2개년 計劃의 主要內容을 産業部分別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産業의 復興發  
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금속공업에 역점을 두고 原價節減과 생산증대에 注力  
하여 國營産業生産은 1948년에 비하여 1949년에는 143.2%, 1950년에는 194.1%  
성장으로 1944년보다 33.2% 초과생산목표를 설정하였다.

機械工業部分에 있어서 차량공업, 기계공업, 변압기공장, 농기구공장등을 신  
설하고 1949년 총생산액을 48년에 비해 199.3%, 1950년에는 309.9%로 증산할

계획을 수립했다.

農業水産業部門을 보면 計劃期間 중에는 새로운 營農法을 적용시켜 총수확고는 1949년에 있어서 1948년에 비하여 101.8%, 1950년에는 1948년에 비해 107.9%의 증산을 계획하였다.

운수 및 체신부문을 보면 철도에 있어서는 輸送確保를 위해 기관차수를 1949년에 있어서 35輛, 1950년에 30輛 生産을 目標로 했으며, 해운에 있어서는 基本建設을 위해 2년간 3천 7백 8십만원을 投資 計劃했다. 그리고 체신산업의 發展을 위해 西平壤 및 東平壤에 전화분국 설치 및 청진 全신전화국을 복구 계획하였으며, 3천 6백명의 전화가입자 증가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計劃들이 美軍의 조기철수와 軍事的 戰略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일부 發表된 49년까지의 實績은 國營産業의 總生産이 計劃比에 비해 102.9%, 總收穫高가 279만 5,231톤으로 全실했던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北韓은 同 計劃을 추진하기 위해 1948년 11월 유고, 루마니아, 헝가리國家들과 經濟的 關係를 設定하였을 뿐 아니라 1949년 3월 蘇聯과도 經濟·文化協定 및 全선 協定을 체결함으로써 繼續的 추진을 촉진<sup>26)</sup>하였다.

#### (4) 戰後復舊 3個年 計劃(1954-56)

北韓이 “祖國解放戰爭”이라 칭하는 韓半島戰爭은 北韓에게 막대한 피해<sup>27)</sup>를 주었다. 이에 北韓은 休戰이 全成립되자 1953년 8월 “모든 것을 戰後 人民經濟 復舊發展을 위하여”라는 제하에 戰後問題를 “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에서 토론하고, 1954년부터 戰後 國民經濟 復興發展 3個年 計劃을 實施하였다.

經濟復舊 및 發展 3個年計劃의 基本方向<sup>28)</sup>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工業部門은 生産施設 및 諸附帶施設의 復舊, 工業化의 基礎確立에 重點을 주어 生産組織을 개선하고 지도사업을 강화한다. 둘째, 協同組合化運動을 추진

하여 農業의 生産性 증대를 꾀하며, 셋째, 輸送手段의 復舊運營으로 人民經濟發展에 도모할 것이며, 넷째, 生必需品에 대한 주민의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國營 및 協同組合의 商業을 發展시키며, 전체 食料品과 工業商品의 供給제를 철폐하고 자유상업이행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다섯째, 주민의 후생증대를 위해 部落의 復舊·增大하고 建設에 따른 물질적 供給·확대를 꾀한다. 여섯째, 국방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한다.

이 기간 중 計劃의 目標은 迅速한 被害復舊의 必要性을 반영하여 전쟁이전 보다 매우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계획 자체를 公營, 人民의 생활, 道別 經濟 및 文化로 세분화하여 經濟計劃을 作成·施行<sup>29)</sup>함으로써 전쟁전의 계획보다 진일보한 특징을 지닌다. 동 기간 중의 計劃과 實績을 基本方向에 입각하여 부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工業生産의 目標은 2년 8개월만에 달성되었다. 1956년의 公營생산고는 49년의 1.5배 目標에 2.7배 증가하였으며, 生産手段 역시 1.3배의 目標에 1.7배 증가, 消費品은 2배에 2.1배 증가하였다. 또한 북한의 중공업은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년에 농업보다 3.17배 높았을 뿐만 아니라 47년대비 61.7% 증가하였다. 이처럼 北韓은 重工業 우선 성장의 擴大再生産만이 식민지적 跋行性과 技術的 낙후성을 克服하고 經濟的 自立의 할 수 있다는 政策的 입장을 견지해 나갔다.

둘째, 이 시기의 計劃은 급속한 社會主義의 工業化를 實現시켰다. [표 III-4]

[표 III-4] 分斷前後時期的 工業總生産의 成長率(單位: %)

년 도	1947	1948	1949	1956	1960	평 균
성장율	54.0	41.6	54.6	26.8	10.5	37.5

\*자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북한 발표치 기준: 1988), p.37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斷前後時期의 成長率은 37.5%였으며 특히, 北韓은 이 期間中 社會主義國家들 중에서 가장 높은 成長率<sup>30)</sup>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北韓은 또한 이 時期에 開發資源의 動員體制構築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은 敵産企業과 친일자본가 소유기업의 몰수를 통하여 工業의 國有化比率을 1949년의 90.7%에서 1958년 98.6%로 증가시켰으며, 農業과 商業에서의 國有化比率은 각각 3.2%, 56.5%에서 戰後復舊期間의 급속한 과정을 통하여 1958년에는 100%의 全面的 國有化를 달성하였다. 거의 전산업부문에 이룩된 國有化는 資源과 生産手段의 國有化 뿐 아니라 商品分配過程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北韓은 이 期間동안 人的·物的資源의 總動員體制를 構築했다고 分析될 수 있다.<sup>31)</sup>

[표 III-5] 北韓의 産業別 國有化 比率 (單位: %)

산업 \ 년도	1949	1953	1956	1957	1958
농업	3.2	32.0	80.9	95.6	98.6
공업	90.7	96.1	98.3	98.7	100.0
상업	56.5	67.5	84.6	87.9	100.0

\*자료: 김동원, “北韓의 經濟開發政策의 性格과 經濟改革展望”, 『아시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1989), p.114에서 인용.

마지막으로 北韓은 이 時期의 開發戰略을 理念的·政治的 자극을 통한 生産性 제고라는 特性을 부각시켰다. 北韓은 본래 技術的 축적과 外國의 大規模援助로 1次 5個年 計劃을 달성하려고 하였으나 同 期間에 필요한 蘇聯과 동유럽國家로부터의 援助가 부진하고 “8월 위기”등이 발발하여 “자력갱생의 원칙”을 채택하고, “천리마운동”과 “청산리방법”을 추진<sup>32)</sup> 함으로써 生産性 증대를 도모하였다.



## 2. 60年代의 經濟開發計劃

이 시기에 있어서 北韓의 開發計劃은 50년대 後半에 實現되었던 工業成長을 정점으로 하여 第1次 7個年 計劃(1961-67)을 實施하였으며, 본 計劃의 부진한 성과, 즉 대내지향적 工業과 政策의 限界로 인해 3년간 計劃期間을 延長하여, 1970년에야 計劃이 終了되었다. 이에 반해 南韓은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1962-66)을 시작으로 하여 1967-71년에 이르는 第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遂行해왔다. 두차례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은 分斷 이래 처음으로 實現된 綜合的인 經濟開發인 만큼 커다란 의미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룩된 成功的인 實績은 이후의 經濟發展過程에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1) 北韓의 基本方向

“社會主義 工·農業國에서 社會主義 工業國으로의 이행”을 目標로 한<sup>33)</sup> 北韓의 計劃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은 目標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重工業의 우선적 發展과 輕工業·農業의 동시적 發展, 둘째, 科學과 文化를 전면적으로 發展시키기 위한 당의 基本路線 견지, 셋째, 住民生活의 획기적 향상, 넷째, 軍事力의 強化 등으로 要約될 수 있다. 이 計劃은 또한 “重工業 우선 發展, 輕工業·農業 동시 發展”이라는 路線을 견지하는 점에서 기존의 計劃方向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년 國際情勢의 變化<sup>34)</sup> 속에서 國民經濟의 發展에 제약이 되더라도 軍事力을 強化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樹立된 4大軍事路線은 이전의 計劃과 다소 상이하다. 그리고 새로운 經濟管理體系로서, 農村에서는 ‘청산리방식’이, 工業에서는 ‘대안체계’등이 대중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 (2) 南韓의 基本方向

이 期間동안 韓國經濟企劃의 基本目標은 經濟的인 妥善환을 시정하고 自立經濟의 造成과 産業構造의 近代化 및 輸出立國 確立의 基礎를 위해 다음과 같은 目標을 樹立했다. 첫째, 電力·精油·石炭 등 에너지源의 開發, 둘째,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셋째, 시멘트·肥料 등 基幹産業의 建設, 넷째, 電子·纖維·化學·鐵鋼·機械工業 등의 産業主調의 近代化, 다섯째, 産業技術 및 人力開發을 통한 生産性 향상, 여섯째, 農林·水産業 開發로 食糧의 自給自족, 일곱째, 人口抑制나 고용증대 및 농어민 소득증대, 마지막으로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선등을 基本方向<sup>35)</sup>으로 하였다.

## (3) 基本方向의 比較

이와 같은 南北韓 60년대의 基本方向을 概括的으로 比較해 보면 다음의 特徵을 가진다. 상이한 經濟體制下에서도 60년대는 南北韓 모두 政府主導의 自立經濟 基盤造成이라는 基本方向이라는 유사한 傾向을 띠고 있지만, 첫째, 北韓은 自立經濟 달성을 위해 重工業을 우선한 반면 南韓은 輕工業을 比較的 強調한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이는 앞절에서도 言及한 것처럼 北韓은 마르크스·레닌주의 擴大再生産에 입각한 政策路線과 이러한 政策路線의 問題點으로 인해 輕工業·農業發展을 並行시켰으며, 技術人力과 資本축적이 빈약한 南韓은 量的·質的 勞動力(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도 生産성이 높은 勞動力)을 이용한 경공업성장만이 분단이후 겪어 온 국민경제의 消費財의 不足을 解決하고 資本規模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北韓은 自給自족에 基礎를 둔 外延的 生産方式의 內資동원방법이 主軸이 되었으나 南韓은 投資財源調達을 위한 內資動員을 外國資本에 依存하였다. 셋째, 産業의 近代化를 위한 人力動員에 있어서도 北韓은 強力한 政治的·理念的 性格을 띠었다.

#### (4)北韓의 經濟發展

전면적인 技術革新과 文化革命 그리고 住民生活의 劃期的 향상이라는 基本課題를 設定하여, 본격적 經濟開發 計劃을 遂行한 北韓은 대내외적인 問題로 1966년 노동당대회에서 방위력제고의 必要性을 問題로 目標年度를 1970년대까지 재조정하였으나 低調한 實績을 成就하는데 그쳤다.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民所得 2.7배의 增大計劃에 實績은 發表되지 않았고, 工業總生産은 3.2배의 目標에 3.3배의 實적을 가져왔으며, 알곡부문을 미발표되었다. 그리고 公業투자는 58% 增大計劃에서 57%의 實績을 보여주었다.

이를 産業部分別로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첫째, 公業부문과 社會主義 工業化를 實現하는데 重點을 두면서 社會主義의 技術的 基礎를 強化하여 製品의 質的 改善, 製品의 多樣化, 原料基地 確保에 注力하는 동시에 技術改革을 積極 推進하였다. 둘째, 농림·수산업부문, 技術革命과 文化革命, 思想革命을 強調하고 重工業의 支援下에 農村技術的 개선에 注力하여 食糧의 自給을 實現하였다고 發表했다. 셋째, 計劃期間중 증대하는 輸送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히

[표 III-6] 北韓의 7個年 計劃의 實績

구 분	7개년계획(1961-70)		구 분	7개년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민소득 (년평균성장율)	2.7배 (15.2%)	미발표 (8.9%)	기본건설 투자액	78억원	87.6억원
공업총생산(·)	3.2배(18.0%)	3.3배(12.8%)	공업투자	58%	57%
생산수단	3.2배	3.7배			
소비재생산	3.1배	2.8배	농업투자	12%	16%
양곡 총수확고	2.4배	미발표	기타투자	30%	27%

\*자료 : 1) 『조선중앙연감 1960-70』

2) 『로동신문』, 1970년 11월 10일자

철도운수부문의 發展에 주력하여 1,500km 계획에 50%가 미달되는 850km의 전철차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화물자동차 보유대수가 60년 對比 69년에는 2.8배 증가되었다.

이처럼 北韓의 이 期間의 計劃은 본래의 計劃目標에 미달했을 뿐 아니라, 3년이라는 期間延長을 통해서 드러난 低調한 實績達成은 상당한 問題點으로 제기되었다. 이와같이 北韓의 60년대 開發政策이 현저하게 부진한 實績을 가져오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理由가 存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戰後復舊過程에서 크게 기여하였던 社會主義 가맹국들의 援助가 減少되었으며, 특히 1962-64년간 蘇聯援助가 단절되었다. 둘째, 1962년 4대군사노선의 채택과 남북관계의 악화 그리고 國際情勢의 불안등에 기인한 軍事費의 支出增加로 軍備産業과 重工業부분을 除外하고는 全般的으로 産業의 投資가 침체되었다. 셋째,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성장국면이 도달됨으로써(즉, 經濟開發의 초기단계의 社會主義에 있어서는 國家開發資源의 동원과 配分이 용이하여)다음 段階에 이르면 勞動力의 재배치와 기존 유휴설비의 가동이 완료되면서 강제적 資源動員體制의 效率성과 資本 및 技術의 중요성이 급격히 저하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감퇴하는 현상<sup>36)</sup>이 발생하게 된다.

#### (5) 南韓의 經濟發展

전체적인 經濟運營은 民間部分의 自律과 創意를 尊重하는 市場經濟原理를 基礎로 하면서도 基幹産業部分 및 社會間接資本 등 主要 産業部分에 政府가 直·間接적으로 關與했던 南韓은 都·農間 所得隔差,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이중구조 그리고 독과점의 심화, 國際收支의 만성적 赤字問題 등의 否定的인 結果도 초래하였다. 하지만 국제경제여건의 유리한 전개<sup>37)</sup>와 더불어 연평균 8.8%라는 實質成長率을 達成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産業의 急速한 成長

및 서비스부문의 發展으로 産業構造를 근대화시켰다. 그리고 연평균 36.2%의 輸出實績成長으로 輸出立國의 모멘트를 造成하였을 뿐 아니라, 産業의 發展에 따른 雇傭機會의 擴大로 農業部門의 잠재실업郡을 해소하는 등 주요한 發展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표 III-7]에서 보는 바와같이, 産業別로 보면 1次産業인 農林漁業은 5.35% 增加라는 目標에서 3.6%增加로 低調하였으나, 2次産業인 鑛工業은 計劃目標보다 33.07%가 더 초과달성하였다. 3次産業인 社會間接資本과 서비스업도 연평균 10.5%라는 높은 成長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60년대는 農業 部分보다는 非農業 부분이 經濟開發計劃의 주요실적을 主導하였다. 이와같은 공업의 伸張은 기간산업시설 및 社會間接資本施設,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대한 固定投資比率이 연평균 21.3%로 증대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0년대의 대외거래에 있어서는 輸出은 본래 計劃目標인 22.55%를 훨씬 상회하는 연평균 成長率 36.2%를 기록하였다.

[표 III-7] 60년대 經濟開發計劃 主要實績(單位: %)

구분 \ 계획·실적	1차계획(1962-66)		2차계획(1967-71)		60년대 평균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GNP	7.1	7.8	7.0	9.6	7.1	8.80
1인당 GNP	4.2	5.0	4.7	7.3	4.45	6.15
〈산업별 성장〉						
농 립 어 업	5.7	5.6	5.0	1.5	5.35	3.6
광 공 업	15.0	14.3	10.7	19.9	12.85	17.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5.4	8.4	6.6	12.6	6.0	10.5
고 정 투 자	14.6	24.7	10.2	17.9	12.4	21.3
상 품 수 출	28.0	28.6	17.1	33.8	22.55	36.2
상 품 수 입	8.7	18.7	6.5	25.8	7.6	22.55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1971).

이와 같은 결과로 賦存資源이 貧弱한 韓國은 對外指向的 輸出政策에 힘입어 동기간 GNP는 연평균 8.8%가 증가하여 그 總額이 3조 1,516억원이 되었으며, 經濟規模는 10년 동안 크게 擴大되었다.

(6) 經濟發展 成果 比較

北韓의 國民總生産額은 1960년에 經常價格으로 12억 6천만불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29억 2천만불로 2.3배 증가되었으며, 南韓은 1960년에 20억불 수준에서 87억불로 증가하여 4.35배 신장되었다. 그리고 1인당 國民總生産액은 北韓은 1960년 120불 수준에서 1970년에는 209불로 1.7배 증가하였으며 南韓은 81불 수준에서 3.4배나 증가한 275불<sup>38)</sup>로 나타났다.

[표 III-8] 남북한 60년대 總量 比較

구분	국 별 년도	남 한		북 한	
		1960	1970	1960	1970
국 민 총 생 산		20.0	87.0	12.6	29.2
1 인 당 국 민 총 생 산		81	275	120	209

\*자료: 『남북한 경제력 비교』, 제1권, pp.639-641에서 발췌.

이처럼 70년을 基準으로 南韓은 北韓보다 國民總生産과 1인당 國民總生産이 각각 2.98, 1.35배 높게 나타남으로써 60년대 經濟開發計劃의 經濟總量의 實績은 우위를 보였다.

그리고 동기간의 經濟成長率은 南韓이 8.8%, 北韓이 7.1%성장을 보였다. 60년대 실시된 南北韓 經濟開發計劃의 期間別 成長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南韓의 成長率은 1차 計劃에서는 7.8%, 2次計劃에서 9.6%로 증가된 반면, 北韓은 전반기(1961-65)에는 연평균 9.4%라는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후반기(1965-70)에는 4%의 평균성장을 이룩하여 目標成長率에 훨씬 미달하였다. 이

는 주로 앞에서 言及한 것 처럼 工業部門이 停滯 또는 마이너스 成長을 하게 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70年代의 經濟開發計劃

이 時期에 있어서 北韓의 經濟開發計劃은 60년대 經濟開發政策 成果로 인해 야기되었던 問題를 是正하고 社會主義의 物質的·技術的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第1次 6個年 計劃(1971-1976)과 第2次 7個年計劃(1978-84)을 遂行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 時期는 技術·文化·思想分野에 있어서 對內政策의 실패 그리고 軍事費의 과다한 支出로 인한 產業構造的 矛盾 등으로 社會主義 체제의 정체기를 맞이하는 時期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南韓은 第1·2次 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 성과로 70년대 들어서는 貧困의 惡循環과 後進性的 굴레에서 서서히 탈피하려는 意慾속에서 第3·4次 5개년 計劃의 樹立·推進되었으나 急速한 對外 依存的 經濟開發 計劃의 否定的인 부산물이 아직은 深刻하게 考慮되지 않는 時期이기도 하다.

#### (1) 北韓의 基本方向

##### 1) 第1次 6個年 計劃(1971-76)

經濟의 規模와 生産發展 速度와의 난해한 相互關係에 昩착하였던 北韓의 70년 11월 朝鮮勞動黨 大會에서 “人民經濟 6개년 計劃”을 採擇하였다. 同 計劃은 “思想도 技術도 文化도 主體의 要求대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첫째, 工業의 強化·發展, 둘째, 技術革命次元의 提高, 셋째, 國民生活의 均衡的·體系적인 發展促進, 넷째, 國際革命力量의 團結強化 그리고 勞動者들의 힘든 勞動에서의 解放<sup>39)</sup> 등을 基本方向으로 推進되었다. 동 기간중 力點을 둔 것은 무엇보다도 工業

內部構造의 完備와 自主性的의 強化를 통해 工業 構造의 충실화<sup>40)</sup> 를 기한다는 것이었으며, 특히 “勞動者들의 힘든 勞動에서의 解放”이라는 基本方向은 지금까지 추구되어 오던 開發政策이 外延的 成長方式에서 內包的 成長方式으로 轉換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要求에 依據하여 6개년 計劃에서는 技術蓄積의 必要性和 技術開發에 力點을 두었으며 重勞動과 輕勞動, 農業勞動과 公業노동의 차이를 줄이고 여성을 가사부담에서 解放시킨다고 하여 3大技術革命路線이 채택되었다.

## 2) 第2次 7個年 計劃(1978-1984)

北韓은 朝鮮勞動黨 창당 30주년(75년 10월)을 맞이하여 많은 對內的 問題에도 불구하고 6개년 計劃의 조기달성을 선전했다. 그 때문에 76년을 6개년 計劃의 “完全한 遂行”을 위한 調整期 그리고 77년을 차기 長期的 展望計劃을 위한 緩衝期로 設定하였다. 이러한 6개년 計劃의 變更과 宣傳으로 77년 12월 最終的 總括 實績報告와 동시에 “革命建設”을 展望하는 제2차 7개년 計劃<sup>41)</sup>을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장기계획은 70년대와 80년대의 이정표적인 의미를 띄면서 다음과 같은 主要方向을 設定했다. 첫째,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근간으로 하여 經營管理를 科學化하며, 둘째, 技術革命을 推進하고, 셋째, 節約運動을 實施하고 生産原價를 引下한다. 넷째, 運送의 近代化를 이룩하고 마지막으로 獨立採算制를 강화<sup>42)</sup>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와같이 동계획의 基本方向을 檢討해 보면 自主的 技術開發, 創造的 技術의 開發을 中心으로 한 自立的 民族經濟의 確立을 指向해야 한다는 명제가 주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p>43)</sup> 여기에는 對內指向的 工業化의 政策을 통한 經濟開發 政策이 가지는 限界性이 숨궽되고 있다. <sup>44)</sup>



## (2) 南韓의 基本方向

### 1) 第3次 5個年 計劃(1972-76)

60년대의 經濟開發計劃의 成果에 힘입어 南韓은 安定과 成長의 均衡, 國土綜合開發과 地域開發의 均衡, 自立的 經濟構造의 實現을 目的으로 第3次 計劃의 基本方案을 다음과 같이 設定했다. 첫째, 농어촌 生活環境 改善, 둘째, 國際收支 改善, 셋째, 重化學工業育成을 통한 工業構造의 高度化, 넷째, 科學技術의 向上과 人力開發, 다섯째,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여섯째, 國土資源의 效率的 開發과 産業 및 人口의 適正分散, 마지막으로는 生活環境의 改善과 國民福祉 向上등이다.

南韓의 開發政策중 가장 經濟成長率이 높았던 同計劃의 基本方向을 60년대와 比較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變化를 읽어낼 수 있다. 즉 輕工業에서 重工業으로, 양적 내자동원에서 질적 내자동원으로, 성장위주에서 成長·分配의 同時 成長으로 變更되었다. 國民厚生增大를 위한 意識改善등은 社會的·經濟的 여건의 變化에 따른 政策方向의 轉換을 意味하며, 國際收支의 改善과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그리고 工業構造의 高度化 등은 60년대와 같이 對外指向的 수출정책을 위한 토대의 構築·強化를 계속 指向한 것이었다.

### 2) 第4次 5個年 計劃(1977-1981)

第3次 經濟開發計劃의 성과에 힘입어 自立的 經濟構造의 實現을 目標로 南韓은 동계회기간에 자력성장구조의 實現과 社會開發을 통한 형평의 증진 그리고 技術革新과 능력향상이라는 目標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目標를 設定했다. 첫째, 經濟規模의 擴大를 위한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둘째, 國際收支의 均衡달성, 셋째, 産業構造改善과 國際競爭力 提高, 넷째, 雇傭機會의

擴大와 人力開發, 다섯째, 새마을사업의 擴大와 生活環境改善, 여섯째, 科學技術 投資의 擴大, 마지막으로 불균형 成長政策에 따른 經濟運用의 촉진과 제도 개선 등이 基本方向으로 되었다.

이와같은 基本方向은 高度成長의 추구 대신에 일정적 成長의 추구를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이 計劃案은 高度成長過程에서 야기된 만성적 인플레이션, 외채의 누적, 지역간 不均衡的 開發 및 階層間 所得不平等으로 인한 위화감 등을 해소하고 輸出促進政策으로 發生된 外貨消費型 産業構造(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工業原料 및 商標 그리고 技術依存등으로 輸出金額의 增加는 外貨輸入의 增加를 意味하는 産業構造)와 저임금을 基盤으로 하는 附加價値가 낮은 單純組立加工貿易을 修正하고자 하는 方案이었다.

### (3) 經濟發展의 成果

#### 1) 北韓의 經濟發展 成果

北韓의 中央統計局은 1975년 9월 6개년 計劃이 1년 4개월 단축되어 조기달성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統計局의 發表內容을 基礎로 하여 計劃과 成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導出될 수 있다([표 III-9]참조.)

6개년 계획 기간중 최대의 成果는 工業生産이 두드러지게 發展했다는 점이다. 같은 계획기간중 工業生産의 成長率은 計劃目標였던 14%를 상회하는 16.3%라는 경이적인 수준에 달했다. 그리하여 1976년의 工業生産은 1970년에 비해 2.5배, 계획치보다는 14%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생산재는 2.6배, 즉 계획치보다는 13% 증가했으며, 소비재는 계획치보다 무려 20%가 증가 하였다.

그리고 運輸部門에서는 특히 鐵道運輸強化에 重點을 두어, 計劃期間 中 總 471km에 이르는 鐵道路線이 新設되고 370km의 鐵道區間이 새롭게 電鐵化됨으

로써 流通構造에 상당한 發展을 가져왔다고 發表하고 있다.

특히, 70년에는 勞動者, 技術者, 事務員 關係의 賃金을 31.5% 引上措置<sup>45)</sup>하고, 1974년 4월 稅金制度의 廢止<sup>46)</sup>로 이 기간중 임금의 10~24%까지 인상되었으며 6개년기간중 소득은 70년에 비해 1.75배나 증가하여 계획목표의 13% 超過達成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물론 모든 부문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工業部門은 1년 4개월이나 앞당겨 달성되었지만 철강, 시멘트 부문 등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生産의 急速한 發展에 輸送力 增大 즉 社會間接資本이 不充分하여 生産과 수송 사이에 마찰이 생겼으며 對外收支面에서도 약간의 不安定한 狀態<sup>47)</sup>가 發生되었을 뿐 아니라 각 産業間의 不均衡, 科學技術의 遲滯, 生産의 높은 費用 등의 문제점<sup>48)</sup>이 나타났다.

[표 III-9]에서 보는 것과 같이 第2次 經濟開發 計劃의 工業의 成長率은 이전의 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연평균 12.1%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1) 生産施設과 技術代替의 不振과 施設의 老朽化로 인한 生産性 增大의 問題點, (2) 過重한 軍事費로 인한 施設投資의 相對的 減少, (3) 75년 이후 先進資本主義 國家들로부터의 借款導入 隘路 등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북한은 60년대와 같은 對內指向의인 方向으로 經濟戰略을 轉換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北韓이 第2次 7個年 計劃에 대한 成果를 公式的으로 發表를 하지 않았지만 可用資料에 의해 살펴보면, 공업 총생산고는 1.95배 증가, 消費財는 1.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國民所得은 또한 計劃目標에 未達되는 1.8배의 증가에 머물렀다.

이처럼 北韓이 80年代를 轉機로 상당한 經濟開發 戰略上的의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를 표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관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北韓當局은 2차 7個年 計劃中 즉 1980년 10월 國民所得은 70년에 비해 1.75배가 증대하였다. 또한 이상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제5차 勞動黨大會는 ‘社會主義 工·農業國으로부터의 自立的·物質的·技術的 土臺下에서의 社會主義 工業國으로 移行’이라는 새로운 歷史的 段階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見解를 認定한다면 從前의 植民地의 跛行的 經濟構造는 第1次 6個年 計劃을 계기로 어느 정도 일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9] 70年代 北韓의 經濟開發計劃 遂行實績(單位:%, 倍)

구분 \ 計劃·成果	第1次 6個年計劃(1971~76)			第2次 7個年計劃(1978~84)		
	계획(A)	성과(B)	B/A	계획(C)	성과(D)	D/C
工業總生産高	220	250	1.14	220	430	1.95
生産手段	230	260	1.13	220	486	2.20
消費財	200	240	1.20	210	279	1.32
工業年平均成長率(%)	14.0	16.3	1.16	12.1	12.2	1.0
國民所得	155	175	1.13	190	180	0.95
穀物總收穫高	700	800	1.15	1,000	1,000	1.0

\* 자료 : (1)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북한 발표치 : 1988).

(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85).

6個年 計劃期間 中에 農業部門 또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 期間中 農業生産의 特徵은 農業의 集團化를 基本으로 하는 水利化, 化學化, 機械化, 즉 “多收穫 農法의 推進”이었다. 이와 같은 全體的인 方式의 導入으로 計劃期間 中 達成된 最大의 成果는 農業部分이며, 計劃目標時期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다.

전당대회에서 1980년대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10大 展望目標를 發表하였는데, 이는 2次 7個年 計劃의 修正計劃의 성격을 띠게 되며, 2차 7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公式的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첫번째 특징은 북한이 과거에 開發計劃의 推進成果가 不振을 경우 항상 공백기를 두고 이를 調整期間 내지 補完期間

을 통해서 補完해왔다는 점이다. 둘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第3次 計劃의 性格이 2次 7個年 性格과 비슷하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經濟開發 計劃의 延長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自力更生”에 의한 路綫의 變更, 즉 1984년 9월에 外國人 直接投資를 許容하는 “合營法”(합자회사 운영법)의 채택이 커다란 함축을 지닌다.

## 2) 남한의 경제발전

70년대가 北韓의 社會主義 體制의 停滯期인데 반해 市場經濟原理의 南韓은 60年代에 造成한 經濟基盤으로 70년대에 최소한도 외형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기간(1972년~81년) 동안의 실질성장율은 [표 III-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年平均 7.8%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60년대의 성장율은 8.8%이었던 데 비해 70년대의 成長率은 전반에는 9.7%로 計劃值보다 높았으나 후반에는 5.3%라는 낮은 성장율로 歸着되어 결국 7.8% 성장에 그쳤다. 이는 1974년의

[표 III-10] 70年代 經濟開發計劃 主要實績 (단위:%)

구분 계획·실적	3次計劃(1972~76)		4次計劃(1977~81)		70年代 平均	
	계 획	실 직	계 획	실 직	계 획	실 직
G N P	8.6	9.7	9.2	5.8	8.9	7.8
1인당 GNP	7.0	7.8	7.5	4.2	7.3	6.0
〈産業別 成長〉						
農 林 漁 業	4.5	6.1	4.0	-0.6	4.3	2.8
鑛 工 業	13.0	17.9	14.2	10.0	13.6	14.0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타 서비스	8.5	8.2	7.6	6.1	8.1	7.2
固 定 投 資	7.6	13.2	7.7	10.1	7.7	11.7
商 品 輸 出	22.7	32.7	16.0	12.7	19.4	22.7
商 品 輸 入	13.7	12.6	12.0	9.9	12.9	11.3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各年度.

제1차, 1979년의 第2次 石油波動과 政治的 不安定, 冷害로 인한 農産物의 凶作 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70年代의 産業別 成長率을 보면 農業은 2.8%, 鑛工業은 14.0%라는 높은 成長率을 成就했으며,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업 역시 목표치보다는 낮지만 7.2%의 성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70年代의 經濟發展도 60年代와 같이 非農業部門을 中心으로 形成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製造業을 主軸으로 한 성장(14.8%)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結果는 따라서 韓國經濟가 重工業에서 輕工業으로 轉換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公營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한 政府의 意志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對外去來에 있어서는 60년대 연평균 36.2% 성장율에는 훨씬 못미치는 22.7%의 輸出增大를 이룩했던 한편 輸入은 原資材의 大幅的인 輸入으로 매년 11.7%가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經濟開發 計劃의 實績으로 GNP는 1971年の 309億 달러에서 1981년에는 662억 달러로 증가하여 2.1배로 늘어났으며 1인당 GNP 역시 같은 기간에 1,719달러로 向上되었다. 그리고 産業의 취업구조 역시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農林漁業部分은 크게 減少(63.1%→48.4%→34.2%)하고 있는 반면 鑛工業部分은 크게 增加하다가 76년 이후 완만히 증가(8.7%→14.2%→21.3%)하였다. 또한 社會간접자본과 서비스부분이

[표 III-11] 南韓의 産業別 就業構造 推移(단위: %)

산업 년도	1962	1966	1971	1976	1981
農 林 漁 業	63.1	57.9	48.4	44.6	34.2
鑛 工 業	8.7	10.8	14.2	21.9	21.3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서 비 스	28.2	31.3	37.4	33.5	44.5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各年度.

81년 기준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함으로써 경제구조의 변화가 農業에서 商·工業으로 轉換되었음을 認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70년대 經濟成長의 肯定的인 側面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제대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對內的으로는 輸出促進을 위한 높은 투융자로 인해 수요측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가 발생하고 74년과 77년에는 공급측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로 인한 만성적 물가상승이 발생했다. 둘째, 重化學工業에 대한 非效率的 投資의 問題가 擡頭되었는데 重化學工業에의 投資는 그 회임기간이 긴 반면, 막대한 投資資本이 必要하는 데서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 이처럼 重化學工業은 資金調達能力과 關聯産業의 發達 그리고 人力確保가 동시에 進行되어야 하나 資本과 技術의 蓄積이 미약한 남한에서의 외자로 통한 집중적인 투자는 타산업의 체질약화 및 기업의 財務構造上의 外債累增으로 인해 國際收支 弱화 등 많은 問題를 야기시켰다. 셋째, 技術投資의 未洽, 輸出原資材의 과중한 依存度, 勞動集約的 産業 등에 依存해 온 남한은 70년대 후반 國際貿易 構造의 變化와 商品構造의 多樣化 등으로 國際競爭力이 弱화되었다. 그리고 高度成長 위주의 政策은 地域間·階層間·産業間 不均衡 및 不平等을 深化시킴으로써 社會的 問題들을 擡頭시켰다.

### 3) 經濟發展 成果의 比較

南韓은 2次의 經濟開發로 國民總生産은 1970年代 81億 달러에서 1980년대는 7.4배가 증가한 605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북한은 동기간 40억달러에서 135억달러로 3.4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1인당 GNP는 70년대초 북한이 남한보다 1.13배 높았지만 1974년을 기점으로 하여 80년에는 오히려 남한이 북한보다 2.1배나 앞서고 있다.

“自力更生”에 의한 “自立的 民族經濟”實現을 追求해 온 북한의 重工業 優先

政策은 資本蓄積 및 技術蓄積이 劣惡한 北韓의 상황하에서 많은 限界點을 노정했다. 특히 北韓이 政策目標을 早期達成 할 수 있었던 데는 주로 소련의 技術支援 및 東歐圈의 借款 그리고 外國資本의 誘致 등이 기초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物質的 誘引制度를 통한 “인센티브”제도의 혁신에 기인하였다.

[표 III-12] 南北韓 70年代 總量 比較

	G N P		1인당 GNP		경제성장율
	1970	1980	1970	1980	
남 한	81	605	252	1,572	7.75
북 한	40	135	286	758	6.25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1987), pp.36~37에서 발췌.

주 : 경상가격, GNP는 억달러, 1인당 GNP는 1달러.

그리고 同期間 經濟成長率은 南韓이 8.7%의 계획목표에 7.8%라는 실적을 올렸던 반면 1.95배의 증가목표를 가졌던 북한은 6.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북한은 2차 7개년 기간에는 국민소득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실적 역시 6차 경제개발 계획의 달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70년대의 북한 경제개발 계획은 경제성장의 점진적鈍化를 스스로 인정하고 과거의 동원적인 계획목표의 현실성과 실현성을 감안하여 成長目標을 하향조정하는 推移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生産原價節減, 節約運動強化, 技術改革 및 現代化 등 體質改善을 추구하여 과거 硬直된 성장방법에서 내포적 성장으로 이행하려는 社會主義體制의 停滯期의 性格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 4. 80年代의 經濟開發計劃

北韓은 이 期間동안 外延的 成長에서 內包的 成長으로의 方向轉換을 摸索했다 할 수 있다. 즉, 自給自足 經濟開發 戰略의 限界로 인해 成長目標가 60年代



와 70年代에 비해 下向 設定되었다. 1978년부터 시작되었던 제2차 7개년 계획이 종료된 후 2년의 공백기(2차 7개년 계획의 目標補完期)를 거친 북한은 金正日의 주도하에 1987년에 제3차 7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이전계획의 실패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對内外의 經濟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1980년에 발표한 '1980年代 社會主義 10大 展望目標'를 1993年으로 延長한 것에 不過하다.

한편 이 時期의 南韓의 經濟開發計劃은 70년대까지 累積되어 온 各種 經濟的 · 社會的 問題의 副產物과 더불어 自立經濟를 確立하고 國民福祉를 增進하려고 하는 第5次 · 6次 經濟開發 計劃을 樹立했다.

#### 1) 北韓의 基本方向

北韓은 1987年 4月 21日 最高人民會議에서 第2次 7個年 經濟開發의 主目標인 北韓經濟의 主體化 · 現代化 · 科學化라는 기치를 강력히 내세우고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위한 物質的 土臺를 構築하기 위해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확정 발표했다. 이러한 기본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방향으로 다음의 세부목표를 樹立했다. 첫째, 人民의 衣 · 食 · 住의 基本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農業 · 水產業 · 輕工業을 발전시키고 住宅建設을 강화하여 國民의 全般의 生活水準의 向上 方案, 둘째, 經濟의 主體化를 위해 國內資源의 개발과 과학기술의 발전방안, 셋째, 社會주의문화건설을 위해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시키고 기존 기술자 및 전문가에 대한 재교육과 직업기술 교육체계의 강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들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기본방향은 종전의 계획이 추구했던 기본방향과는 달리 의 · 식 · 주 해결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겠다는 독립항목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하겠다.

## 2) 남한의 기본방향

80년대 남한의 제5·6차 經濟開發計劃은 安定·能率·衡平을 土臺로 하여 첫째, 經濟의 先進化, 둘째, 産業構造의 改編 및 技術立國의 실현, 셋째, 國民福祉의 增進을 이룩할 것을 基本目標로 하였다. 이 목표를 위해서 또한 다음과 같은 細部方案을 樹立하였다. 첫째, 經濟安定基調의 定着, 둘째, 適正成長과 雇傭增大, 셋째, 國際收支改善과 外債節減 및 自力成長能力의 提高, 넷째, 실업구조의 조정과 개선, 다섯째, 科學·技術의 개발촉진, 여섯째, 지역간 균형개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일곱째,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의 제고, 마지막으로 市場經濟의 暢達과 政府機能의 再定立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기간 남한의 기본방향은 북한의 노선과는 달리 제4차 경제개발 방향과 비슷하게, 경제성장으로 야기된 難點들을 해결하고 안정적 성장을 추구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3) 북한의 경제발전

同計劃期間中 개발성과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 통계치는 발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경제개발계획 기간중에 속하므로 여기서는 3차 7개년 계획의 목표에 대한 제반여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III-13] 80年代 北韓의 經濟開發 計劃目標

計劃目標	區分	工業生産	生産手段	消費財生産	農業生産	社會總生産	國民所得
第3次 7個年 (1987~1993)	계획 목표	1.9배	1.9배	1.8배	1.4배	1.7배	1.7배
第2次 7個年 (1978~1984)	계획 목표	2.2배 (2.2)	- (2.2)	- (2.1)	- (-)	- (-)	1.9배 (1.8)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각년호.

주: ( )안은 실적치.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는 종전 계획목표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 국민소득은 1.7배, 공업생산은 1.9배, 생산재와 소비재 생산은 각각 1.8배, 1.4배로 북한경제의 실정과 문제점-즉 GNP의 20~25%를 차지하는 과도한 軍事費支出과, 이로 인한 資源配分 構造의 歪曲, 先進資本主義國과의 資本 및 技術協力 애로, 資源과 資本의 不足으로 인한 生産性 下落, 對外債務-을 어느 정도 반영한 목표치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80년대 10대 전망목표”와 비교하여 보면 10항목을 모두다 2차 7개년계획의 목표와 실적치보다 높은 목표들이다. 이는 “자력갱생”에 의한 정책노선을 固守함과 동시에 北韓 經濟가 當面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되었다. 즉 重化學工業의 발전에 가장 필요한 전력과 철강은 종전계획의 실적보다 생산 목표량이 높은 반면 곡물·직물·수산물·화학비료 등 의·식·주와 관련된 생산 목표량은 낮게 설정했다. 그리고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圓滑히 해결해야

[표 III-14] 北韓의 80年代 10大 展望目標

구분	단위	80年代 10大 전망목표(A)	2次 7個年 計劃		A-B
			목 표	실 적(B)	
1. 전력(年間)	kwh	1,000억	500~600	498억	502억
2. 석탄	만톤	1억 2,000	7,000~8,000	7,500	1억2,500
3. 철강	"	1,500	740~800	740	760
4. 비철금속	"	150	100	-	-
5. 시멘트	"	2,000	1,200~1,300	1,424	576
6. 화학비료	"	700	500	468	232
7. 織物	m	15억	8억	8.7억	6.3억
8. 수산물	만톤	500	350	350	150
9. 곡물	"	1,500	1,000	1,000	500
10. 간척지개간 (10년간)	ha	30만	10만	-	-

\*자료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각년호.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업총생산 성장목표 중 소비재의 성장목표(1.8배)가 생산재 생산목표(1.9배)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은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편 社會總生産의 增大目標인 1.8배를 훨씬 上廻하는 3.2배의 무역액 증가 목표액의 설정은 북한이 지향해온 外延的 生産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示唆해준다. 특히 최근 “10대 전망목표”로 설정된 목표에 있어서 壓延鋼材에 대한 세계 시장의 需要減少라는 理由로 철강생산고를 1,500만톤에서 1,000만톤으로 하향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수요증가를 이유로 비철금속 생산목표를 150만톤에서 170만톤으로 상향조정시킨 점은 國際 經濟情勢에 敏感하게 對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對外經濟의 與件을 最小限으로 억제해 온 북한이 이처럼 대외경제교류의 과정에서 약간의 정책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이 감지된다. 또한 輸出品生産을 專門으로 하는 공장과 직장의 설치, 무역에 있어서 “信用第一主義 實現”, 그리고 國民經濟의 모든 부문중 수출품의 최우선시 등의 시책들은 크게 주목된다. 그러나 1984년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은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社會主義圈과의 經濟交流의 重要性을 재삼 지적한 점은, 북한이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무역 및 合營을 希望하고 있으면서도, 實質的으로는 社會主義國家들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sup>49)</sup>을 複合的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1986년 12월 동회의에서 金日成이 표명한 “農地의 協同的 所有에서 全人民的 所有”로의 轉換은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이 指向하는 方向과 다소 背馳되는 것으로 북한의 閉鎖性的의 일면을 나타내 주고 있는 특징이다.

#### 4) 南韓의 經濟發展

80년대초의 經濟政策은 소위 3低現象(原油價 下落, 國際金利의 下落, 美달러

의 下落)을 비롯한 對外興件의 호진과 物價安定을 위한 緊縮政策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적정성장을 이룩하였다. 즉 기간중 과거의 고질적 인플레이션(60년대 평균 12.7%, 70년대 평균 21.9%)을 소위 한자리 숫자로 낮추고 8.6%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87년 후반부터 대두된 대내외적 어려움 즉, 대내적으로는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勞使紛糾는 한편으로 기업의 採算性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듯이 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한국경제가 줄기차게 지향해온 대외의 존적 수출경제의 矛盾의 단초들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제품가격의 상승,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原價切上과 市場開放壓力 그리고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輸出主導型 남한경제에 막대한 惡影響을 끼쳤다. 이러한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중 가장 劣惡한 성과가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8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를 概括적으로 전망·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III-15]참조).

産業別 成長을 보면 農業部門은 2.5%의 成長으로 低調할 것이나 鑛工業은 製造業을 中心으로 하여 年平均 9.3%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역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여 계획목표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규모는 1981년 662억 달러에서 동계획기간의 말에는 2.6배가 되며, 1인당 GNP도 1,719달러에서 5,000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구조의 성장율을 살펴보면 종전의 계획실적에 비해 1차산업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 GNP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1차산업은 10.6%, 2차산업은 32.7%, 3차산업은 56.7%로 종전의 실적과 유사하게, 經濟成長에서 非農業部門의 役割이 계속 두드러졌다. 이와같은 非農業部門

[表 III-15] 80年代 經濟開發計劃의 主要實績

(단위:%)

구분 계획·실적	5次計劃(1982~86)		6次計劃(1987~91)		80年代 平均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G N P	7.5	7.9	7.2		7.4	7.4
1人當 GNP	5.9	5.9	7.2		6.6	7.2
〈産業別 成長〉						
農 林 漁 業	3.5	3.6	2.5		2.5	2.5
鑛 工 業	9.7	9.2	9.3		9.3	9.3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서 비 스	7.4	10.8	9.5		7.3	7.3
固 定 投 資	11.8	11.2	8.9		10.4	10.0
商 品 輸 出	10.2	11.2	8.8		8.8	10.0
商 品 輸 入	8.0	8.3	8.6		8.3	8.6
就 業 構 造	1.6	1.0	1.2		1.2	1.2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각연도.

의 成長은 就業構造 面에서도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즉 農林漁業部門의 就業率은 81년 34.2%에서 1991년에는 18.7%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비농업부문의 취업율은 65.8%에서 81.3%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동기간에 상품수출은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을 거듭하여 총수출액은 1981년의 207억 달러에 2.76배, 62년 6천6백달러에 무려 845.5배인 55억이 될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81년 37.8%에서 31.8%로 감소할 전망이다.([표 III-16]참조).

80년대 經濟開發 計劃을 概括해 보면 惡化된 國際收支의 改善, 過消費增大, 社會福祉의 問題, 都農間 所得隔差 및 階層間·地域間 不均衡問題, 대체에너지 문제, 노사문제, 公害 및 社會的 秩序 등의 문제 등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과정

[ 卍 III - 16 ] 南韓의 經濟開發計劃 成長 推移(1962~92)

	단위	1次 計劃初(1962)		1次 計劃末(1966)	
		계획	실적	계획	실적
GNP(80년 가격)	억불	103.2	126.7	137.6	180.6
1인당 GNP	\$	395	477	471	613
〈産業 構造〉					
農 林 漁 業	%	37.1 <sup>1)</sup>	36.6	34.8 <sup>1)</sup>	34.4
鑛 工 業	%	17.4	16.3	26.1	20.2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타 서비스	%	43.5	47.1	39.1	45.4
商 品 輸 出(經 常)	억불	0.66	0.54	1.38	2.50
投 資 率	%	20.1 <sup>1)</sup>	12.8	22.7 <sup>1)</sup>	21.6
國 內 貯 蓄 率	%	3.7 <sup>1)</sup>	3.4	13.0 <sup>1)</sup>	11.8
〈就 業 構造〉					
農 林 漁 業	%	66.1	63.1 <sup>5)</sup>	64.6	57.9
鑛 工 業	%	9.4	8.7 <sup>5)</sup>	10.7	10.8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타 서비스	%	24.6	28.2 <sup>5)</sup>	24.7	31.3
失 業 率	%	22.3	8.2 <sup>5)</sup>	14.8	7.1
	단위	2次 計劃末(1971)		3次 計劃末(1976)	
		계획	실적	계획	실적
GNP(80년 가격)	억불	233.1	309	416.1	490
1인당 GNP	\$	719	941	1,211	1,367
〈産業 構造〉					
農 林 漁 業	%	34.0 <sup>1)</sup>	26.8	22.4 <sup>1)</sup>	23.5
鑛 工 業	%	26.8	22.2	27.9	28.4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타 서비스	%	39.2	51.0	49.7	48.1
商 品 輸 出(經 常)	억불	5.5	11.3	35.1	78
投 資 率	%	19.9 <sup>2)</sup>	25.1	24.9 <sup>3)</sup>	25.6
國 內 貯 蓄 率	%	14.4 <sup>2)</sup>	14.6	21.5	25.9
〈就 業 構造〉					
農 林 漁 業	%	58.4	48.4	37.7	44.6
鑛 工 業	%	12.4	14.2	20.5	21.9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타 서비스	%	29.2	37.4	41.8	33.5
失 業 率	%	5.0	4.5	4.0	3.9

	단위	4次 計劃末(1981)		5次 計劃末(1986)		6次 計劃末(91)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GNP(80년 가격)	억불	668.8	662	993	940	1,750	-
1인당 GNP	\$	1,723	1,719	2,229	2,268	1,000	-
〈産業構造〉							
農 林 漁 業	%	18.5 <sup>4)</sup>	15.8	12.2	30.1	10.6	-
鑛 工 業	%	40.9	30.7	31.0	30.1	32.7	-
社 會 間 接 資 本 및 기타 서비스	%	40.6	53.5	56.9	57.1	56.7	-
商 品 輸 出(經 常)	억불	202.4	207	357	347	558	-
投 資 率	%	26.0 <sup>4)</sup>	31.1	29.5	29.5	31.3	-
國 內 貯 蓄 率	%	26.1 <sup>4)</sup>	25.5	29.3	32.5	33.2	-
〈就 業 構 造〉							
農 林 漁 業	%	39.7	34.2	26.9	23.3	18.7	-
鑛 工 業	%	26.1	21.3	24.1	25.3	26.6	-
社 會 間 接 資 本 및 기타 서비스	%	34.2	44.5	49.0	51.4	54.7	-
失 業 率	%	3.8	4.1	3.8	4.0	3.7	-

\*자료: 경제기획원, 『제5·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주: 1) 1961년 가격 2) 1965년 가격 3) 1970년 가격

4) 1975년 가격 5) 1963년 가격.

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부산물의 양산과 더불어 第5次 開發政  
策으로 인한 經濟의 安定基調의 構築과 科學技術의 振興 그리고 自立經濟의 實  
現을 위한 발판은 구축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 5) 경제발전 성과의 비교

80년대 남한은 2차례의 經濟開發 計劃을 시행한 후 7.95%의 經濟成長率을 보  
이고 있다. 이에 반해 北韓은 公式發表조차 없을 뿐 아니라 1인당 GNP면에서  
도 85년 對比 88년은 1.3배의 증가에 그쳤다. 그리고 동기간에 국민 총생산은  
남한이 1.65배 증가한 반면 1.18배 增加함으로써 80년대 經濟開發 성과는 남한



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7] 南北韓 80年代 總量 比較

	G N P		1인당 GNP		경제성장률
	1985	1988	1985	1988	
남한	1,027	1,692	2,047	4,040	7.95
북한	174	206	765	980	-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1989).

그러나 앞장에서도言及했듯이, 南韓과 北韓이 측정해 내는 國民總生産의 概念과 基準이 다를 뿐 아니라 相異한 體制를 比較하기 위한 統計資料의 신빙성(reliability)과 유효성(validity) 등이 함축하는 바를 고려할 때 總量의 단순하고 평면적인 比較에서 추측되는 일반론적 결론은 주의깊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第Ⅳ章 南北韓 經濟發展 成果의 總體的 比較

南韓의 經濟體制의 原理는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에 의한 자유경쟁원리에 基礎하여 개인의 私有財産 및 職業選擇의 자유를 보장시키는 반면 北韓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命令體系의 틀속에서 사회주의건설 노선의 일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南北韓은 分斷 45年 以後 相異한 경제체제 속에서 때로는 相互 排他的인 경제발전경로를 통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여 왔던바, 그 총체적 성과 역시 일정한 差別性을 露示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相異한 경제체제와 경제의 궁극적 目標下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의 성과비교는 첫째, 相異한 經濟體制下에서 通用되는 경제지표와 개념의 差異, 둘째,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성장정책의 差異, 셋째, 성장전략 差異로 인한 구조적 差異 等에서 많은 분석상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러한 制約과 問題點을 인식하면서 이 章에서는 平面的인 비교분석의 틀을 벗어나 경제발전의 성과들을 가능한 한 성장성,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衡平性 側面에서 입체적으로 분석·비교하고자 한다.

相異한 經濟 體制下에서의 경제발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sup>50)</sup> 먼저 총체적인 경제발전성과를 파악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國民總生産(GNP)과 經濟成長率을 成長性의 比較基準으로 분석할 것이다.<sup>51)</sup> 두번째 기준은 效率性인데 이 效率性의 개념은 어떤 체제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용가능한 資源을 활용하는 정도(effectiveness)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측정되는 靜態的 效率性(static efficiency)와 전기간을 통해 적용되는 動態的 效率性(dynamic efficiency)이 있다. 특히 이 動態的 效率性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없이 財貨와 用役의 生産 能力을 높일 수 있는 경제체제의 力量을 의

미한다. 이章에서 우리는 주로 산업부분별 생산성을 이 효율성의 측정지표로 삼을 것이다. 세번째로 설정한 기준은 安定性인데 이는 어떤 經濟體制가 커나란 變動이나 波動없이 어떻게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지속시켜 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즉 경제성장을이나 雇傭 및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파동의 발생없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安定基調를 유지하는가를 평가하는데 安定性의 기준은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우리는 財政均衡과 貿易收支의 安定性을 주로 검토할 것이며, 南北韓의 雇傭 및 인플레이션 側面의 비교는 체제의 相異性 때문에 이론적 논의로서 분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의 均衡과 平等性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衡平性의 비교를 위해서는 南北韓의 可處分所得 및 社會福祉費用, 특히 교육 및 의료부분의 支出比率을 比較分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 1. 成長性

### (1) 國民總生產

南北韓 經濟發展 成果의 總體的 비교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국민총생산규모를 動態的으로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南韓의 국민총생산은 1953년 13.5억불에서 1988년에는 무려 125.3배가 증가한 1,692억불로 추계되었다. 北韓은 동기간에 46.8배가 증가한 206억불로 나타났다. 이처럼 分斷前後 經濟開發 興件이 훨씬 北韓보다 불리하였던 南韓이 총생산액 증가 규모면에서 2.68배가 앞서게 되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총생산 역시 같은 기간에 南韓은 北韓의 16.89배 증가보다 무려 3.14배가 많은 53.14배가 증가되었다.

국민총생산의 成長面에서 지금까지의 研究들이 1973년을 변화의 기점을 잡았는데 本 研究의 결과 南韓이 1976년을 時點으로 앞서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흐

미한다. 이章에서 우리는 주로 산업부분별 생산성을 이 효율성의 측정지표로 삼을 것이다. 세번째로 설정한 기준은 安定性인데 이는 어떤 經濟體制가 커나란 變動이나 波動없이 어떻게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지속시켜 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다. 즉 경제성장을이나 雇傭 및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파동의 발생없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安定基調를 유지하는가를 평가하는데 安定性의 기준은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우리는 財政均衡과 貿易收支의 安定性을 주로 검토할 것이며, 南北韓의 雇傭 및 인플레이션 側面의 비교는 체제의 相異性 때문에 이론적 논의로서 분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의 均衡과 平等性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衡平性의 비교를 위해서는 南北韓의 可處分所得 및 社會福祉費用, 특히 교육 및 의료부분의 支出比率을 比較分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 1. 成長性

### (1) 國民總生產

南北韓 經濟發展 成果의 總體的 비교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국민총생산규모를 動態的으로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南韓의 국민총생산은 1953년 13.5억불에서 1988년에는 무려 125.3배가 증가한 1,692억불로 추계되었다. 北韓은 동기간에 46.8배가 증가한 206억불로 나타났다. 이처럼 分斷前後 經濟開發 興件이 훨씬 北韓보다 불리하였던 南韓이 총생산액 증가 규모면에서 2.68배가 앞서게 되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총생산 역시 같은 기간에 南韓은 北韓의 16.89배 증가보다 무려 3.14배가 많은 53.14배가 증가되었다.

국민총생산의 成長面에서 지금까지의 研究들이 1973년을 변화의 기점을 잡았는데 本 研究의 결과 南韓이 1976년을 時點으로 앞서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흐

[表 IV - 1] 南北韓 國民總生産 및 1人當 國民總生産額 推移 比較

(단위 : 억불, %)

구분 년도	국민총생산액(억불)			1인당국민총생산액(억불)		
	남한(A)	북한(B)	남북한대비 (A/B)	남한(A)	북한(B)	남북한대비 (A/B)
1953	13.5	4.4	3.07	76.1	58.0	1.31
1957	16.7	9.4	1.78	89.7	85.0	1.06
1960	19.5	15.2	1.28	94.4	137.0	0.69
1962	23.2	20.2	1.49	96.1	179.0	0.54
1964	28.8	23.0	1.25	107.2	194.0	0.55
1966	36.7	24.1	1.52	125	192	0.65
1968	52.3	27.8	1.88	169	225	0.75
1970	79.9	39.8	2.0	248	286	0.87
1971	93.7	40.9	2.29	285	308	0.93
1972	105.7	46.2	2.29	316	316	1.0
1973	135.0	62.7	2.15	396	418	0.95
1974	185.5	72.9	2.54	535	461	1.16
1975	208.5	93.5	2.23	591	579	1.02
1976	286.8	96.8	2.96	800	585	1.37
1977	374.2	106.4	3.52	1,028	642	1.60
1978	519.6	133.2	3.90	1,406	784	1.79
1979	623.7	124.0	5.03	1,662	873	1.90
1980	603.0	135.0	4.47	1,589	758	2.09
1981	662.0	135.6	4.88	1,719	746	2.30
1982	693.0	136.0	5.09	1,773	735	2.41
1983	760.0	144.7	5.25	1,914	765	2.50
1984	824.0	147.2	5.59	2,044	762	2.68
1985	834.0	151.4	5.51	2,047	765	2.68
1986	1,027.0	174.0	5.90	2,296	860	2.67
1987	1,284.0	194.0	6.62	2,826	936	3.02
1988	1,692.0	206.0	8.21	4,040	980	4.12

\*資料 : 國土統一院.

를수록 隔差는 크게 증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全期間을 통해 국민총생산의 마이너스 성장율은 南北韓이 각각 1979년과 1980년에 1번씩 경험하였으나 1인당 국민총생산의 마이너스 성장은 國內의 政治的 混亂과 國際的 不況으로 인해 1960년과 1980년의 두차례에 걸쳐 南韓이 겪었던 반면 北韓은 1980년대 들어 4번이나 겪었다.

이처럼 南北韓이 經濟規模의 비교·분석을 탈피하여 경제성장율의 비교를 통하여 南北韓을 비교한 결과는 [표 IV-2]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IV-2] 南北韓 國民總生産 및 1인당 國民總生産 段階別 增加率

(단위 : %, 배)

구분 기간	국민총생산			1인당 국민총생산		
	남한(A)	북한(B)	A/B	남한(C)	북한(D)	C/D
1953~59	7.2	21.9	0.3	3.7	13.0	0.3
1960~69	13.3	9.4	1.4	8.7	9.6	0.9
1970~79	25.5	16.3	1.6	23.3	14.7	1.6
1980~88	12.8	5.9	2.2	10.3	2.7	3.8
전기간 평균	15.2	12.3	1.2	12.4	9.8	1.3

\* 資料 : 國土統一院

첫째, 分斷前後時期的 南韓經濟는 경제의 성장보다는 民生苦의 解決과 通貨價値 그리고 物價 등 안정화정책을 基本路線으로 한 援助中心의 戰後 復興事業 (총투자중 외국원조는 70%, 국내저축은 30%)으로 연평균 7.2% 증가에 힘입어 國民總生産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3.7%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9년부터 外國援助의 급격한 減少는 國策수지의 不均衡擴大와 物價上昇 등을 유발시켰을 뿐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을 1960년에 감소시키는 主要原因이 되었다. 한편 北韓은 蘇聯 및 共產國家들로부터의 援助가 주요 자원이 되어 戰後復舊 3개년 계획과 제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早期達成하였으며, 특히 중공

업부문의 투자(전체투자의 81%)에 힘입어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21.9%나 증가함으로써 50년대 연평균 증가율은 南韓보다 무려 3.04배나 앞섰다.

둘째, 南北韓 體制의 기틀이 조성된 1960년대에 들어와서 南韓은 자립경제조성을 위한 經濟發展 戰略, 즉 對外指向的 開放政策을 선택하여 1950년대의 食料品工業 및 纖維工業을 주축으로 한 輸入代替戰略을 輸出主導型으로 전환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지닌 勞動集約的인 消費財工業의 育成, 投資財源의 확보를 위한 외국자본과 先進技術 導入 등으로 국민 총생산은 연평균 13.3%가 증가하여 1969년에는 1960년에 비해 무려 3.4배가 되는 66.3억불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94.4불에서 1969년에는 210불로 2.2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北韓은 蘇聯 및 中國으로부터 經濟技術 援助의 일시적 중단에 따른 投資財源 不足과 技術導入 不振 그리고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軍事力 強化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부족<sup>52)</sup> 등으로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총생산은 50년대 보다 훨씬 못미치는 연평균 9.4, 9.6%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처럼 北韓이 資本 및 技術 그리고 勞動力의 부족하에서 그리고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친 南韓보다 인구증가율(1960년대 南韓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51%이며 北韓은 2.85%)이 1.14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1.1배의 국민소득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北韓의 發表 중, 특히 農業 部門의 성장율이 과대 평가<sup>53)</sup> 발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에서 分析해 보면 北韓은 1962년 中蘇紛爭을 계기로 발생한 일시적 經濟援助의 中斷에 대처하여 “自力更生과 自立 經濟의 建設을 標榜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제품 및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自體生産한다”의 결정으로 모든 豫備를 정치적 合目性을 위해 동원하고 노동력의 생산성과 地方工業을 포함한 공업부문의 성장에 拍車를 가했다는데 그 원인<sup>54)</sup>이 있겠다.

셋째, 제3·4차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실시한 70년대의 韓國經濟는 政府의

지속적인 工業化 특히 重化學工業의 추진과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國民總生産의 연평균 증가율은 25.5%, 1인당 國民總生産은 23.3%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自立經濟의 기반을 확립시켰다. 한편으로 資本蓄積과 技術蓄積이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진 급속한 重化學工業의 추진(石油化學, 造船, 綜合製鐵所 등)과 정부의 의욕적 성장위주정책으로 말미암아 南韓經濟는 資源配分上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즉, 고도성장정책을 위해 안정기반의 구축을 소홀히 함으로써 油價引上을 비롯한 國際源資材價格의 上昇 등과 같은 요인이 1972~78년 기간에 都賣物價를 연평균 17.1%씩 상승시키는 구조적인 유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北韓은 軍需産業을 중심으로 한 重工業 우선주의와 閉鎖的인 自力更生路線의 고수로 생산시설이 老朽化되었으며, 外延的 성장방법의 한계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非效率性이 모든 산업부문에 파급되어 가는 70년대의 경제의 國民總生産 增加率은 16.3%나 되었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의 年平均 增加率은 다른 기간에 비해 가장 높은 14.7%나 증가하였다. 비록 같은 期間 北韓은 社會主義 體制가 가지는 성장의 限界와 北韓經濟 政策路線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80년대의 政策變化路線의 基礎가 되었지만 社會主義 體制가 확립된 이후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비록 北韓이 南韓과의 비교에서는 1.6배 차이로 劣勢이지만 이와같은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sup>55)</sup>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歲出(70년 대비 79년의 歲出規模는 11.8배) 즉 有效需要(effect demend)의 증대와 貿易構造改善(70년 對比 79년의 輸出은 3.98배), 둘째, 과거의 동원적이었던 계획 목표를 실현성을 위해 下向調節하면서 技術改革과 現代化 등으로 外연적 성장에서 내연적 성장으로 移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70년대의 증가율(70~75년 연평균 증가율: 20.55%, 76~79년: 9.4%)이 주로 前半期에 기인하는 것처럼 後半期の 外債 支拂



의 연체사태 이전에 西方圈으로부터의 적극적 外資導入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主要原因이다. 넷째, 對外的 要因으로 70년대 경제의 危機를 몇차례 겪기도 하였던 南韓은 80년대(80~88년)에는 國民總生産과 1인당 國民總生産의 平均이 각각 12.8%와 10.3%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北韓보다 같은 期間에 각각 2.2배, 3.8배를 달성한 것으로서 自立經濟의 先進化를 어느 정도 달성하여 相對的 優位를 확보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어 준다. 이처럼 南韓의 國民總生産이 증대할 수 있었던 주된 要因은 80년대초 소위 3低現象이라는 對外與件의 好調, 앞장에서 지적한 일련의 시책으로서 産業구조의 改善과 能率의 提高, 經濟力을 바탕으로 무역증대 등에 기인한다.

반면 北韓은 前半期에 앞서서도 言及한 것처럼, 1975년 이후 先進資本主義 國家들로부터 借款導入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1960년대와 같은 對內指向的 政策路線을 펼 수 밖에 없었다. 同期間 마이너스 성장율과 마이너스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北韓 經濟政策의 方向轉換을 자극하도록 유도했음은 물론이다. 즉 北韓은 1984년 1월 ‘對外經濟事業과 貿易擴大 方針’을 제시했고, 同年 9월에는 合營법을 채택하는 등 점진적인 경제개방을 추구하는 새로운 方向轉換을 암시하였을 뿐 아니라 貿易政策도 國內經濟의 확대 再編成을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從前의 立場에서 탈피하여 輸出增大에 力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자본 및 기술축적의 微弱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間歇的인 경제 정책 기조의 변화로 北韓의 80년대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총생산은 分斷以後 가장 증가율이 낮은 5.9, 2.7%를 나타낸다.

## (2) 産業部門別 成長性

### 1) 産業構造의 變化

南北韓의 産業구조의 變化를 비교하는 데는 北韓經濟에 관한 統計資料의 이

용가능성 및 일관성 뿐 아니라 概念上의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限界를 염두에 두면서 南北韓 經濟의 산업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南韓은 自由資本主義體制와 開放經濟下의 國際分業主義를 基礎로 농업보다는 공업을 강조하고, 輸入代替産業에서 輸出産業으로 移行한 결과 輸入 → 輸入對替 生産 → 輸出의 工業化 政策으로 消費財 → 中間財 → 資本財 → 知識 및 情報産業의 형태로 변화해가는 段階에 있다. 北韓은 국민소득의 급속한 증대와 산업구조의 均衡性을 성취하기 위해 農業보다는 工業을, 輕工業보다 重工業을, 그리고 消費財보다 生産財 生産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발전전략으로 경제구조의 改編을 시도하였다.

산업구조의 高度化는 國民總生産이나 國內總生産 혹은 總就業人口에서의 제조업 比重의 증대가 제일차적인 目標이며, 工業構造의 高度化란 제조업의 附加價値 또는 生産額에서의 重化學工業 比重의 증대를 指向하고 고용구조의 近代化는 총취업인구에서의 피고용자(常雇傭, 臨時雇, 日雇) 비중의 증대, 피고용자에서의 常雇傭 비중증대를 추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6)</sup>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南北韓 産業構造의 高度化 推移를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國民總生産에서 南韓의 製造業 비중은 1953년 10.0%이던 것이 1986년 30.1%로 무려 3배나 증가하였으며, 總就業人口에서의 제조업비중은 8.0%이던 것이 25.3%로 크게 높아졌다([표 III-15] 참조). 또 製造業 附加價値의 측면에서 볼 때 重化學工業의 비중은 1962년의 28.6%에서 1986년에는 56.8%로 증대되었다([표 IV-4] 참조). 그리고 總就業人口에서의 被雇傭者 비중은 1964년 30.6%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5년에는 54.2%, 被雇傭者에서의 常雇傭比重은 38.6%이던 것이 62.8%로 크게 높아짐<sup>57)</sup>으로써 높은 수준의 産業的 高度化를 이룩하였다.

[表 IV-3] 南·北韓 産業構造 比較

(단위 : %)

구분 년도	남						북					
	인구	농림수산업	인구	광공업	인구	SOC및기타	인구	농업	인구	공업	인구	기타
1946	.	.	.	.	.	.	.	59.1	.	23.2	.	17.7
1953	.	47.3	.	10.0	.	42.7	.	41.6	.	30.7	.	27.7
1960	.	36.8	.	15.7	.	45.5	57.6	28.9	21.8	41.3	10.5	29.8
1962	63.1*	36.6	8.7*	16.5	28.2*	46.9	57.5	25.4	22.0	46.4	10.3	28.2
1964	61.9	45.9	8.8	17.6	29.3	36.5	54.9	25.2	20.5	49.1	10.5	25.7
1966	57.6	35.4	10.8	20.1	31.3	44.5	55.5	24.6	21.7	52.5	10.5	22.9
1968	52.4	28.5	14.0	21.8	33.6	49.7	53.3	22.0	22.9	57.4	10.5	22.6
1970	50.4	28.0	14.4	22.8	35.2	49.2	51.3	21.5	24.3	57.3	10.5	21.2
1986	23.6	12.8	25.9	30.1	50.5	57.1	49.5	.	25.6	.	10.5	.

\*資料 : 國土統一院, 『최고인민회의자료집』(1988)

연하청,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한국개발연구원, 1986, pp.152-153. 經濟企劃院, 『주요경제지표』(1986).

주 : 北韓의 産業構造(46-53)는 사회총생산에 대한 구성비임.

\*) 63년 구성치임.

[表 IV-4] 南韓의 工業構造

(단위 : %)

구분	년도	1962	1966	1971	1976	1981	1986
경 공 업		71.4	65.9	62.7	53.5	49.3	43.2
중 공 업		28.6	34.1	37.3	46.5	50.7	56.8

\*資料 : 韓國銀行, 『국민계정』(1987).

주 : 부가가치 기준임.

한편 北韓經濟에 관한 최근의 자료가 稀少하지만, 國民總生産에서 農業의 비중은 1946년 59.1%에서 1970년 21.5%로 減少하였다. 北韓의 工業은 1964년 사회총생산의 23.2%의 비중에서 1970년에는 57.3%로 2.5배나 증가되었으며 就業人口 역시 1960년에 비해 1986년에는 1.2배나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1940년대 1·2차 전망계획, 특히 戰後復舊 3個年 計劃 때부터 추구해온 重工業 우선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産業의 變化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南韓보다 工業의 비중면

에서는, 70년 기준으로 2.5배의 優位를 보여주었다.

비록 北韓의 工業比重이 南韓보다 높았지만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高度化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의 경제는 軍需工業 및 重化學工業 中心이기 때문에 經濟福祉를 위한 산업구조의 高度化와는 다소 그 연관성이 낮으며 그 결과 生必品을 비롯한 消費財의 生産은 극히 劣惡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sup>58)</sup> 둘째, 重工業과 輕工業 사이의 상대적 비율<sup>59)</sup>은 1954~56년에는 81.1%, 18.9%, 1957~60년에는 82.6%, 17.0% 1971~76년에는 83%, 17%로 輕工業 部門의 상대적인 침체를 면치 못했으며 이는 주민 소비생활의 落後性을 결과했다.

## 2) 農業部門 成長性

分斷以後 北韓은 封建的 土地所有關係를 청산하고 불리한 자연조건과 주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經營組織과 經營方法의 개선을 시행한 반면, 南韓은 6·25戰爭前 政府의 비효율적 경제시책과 극히 皮相的이고 부분적인 토지문제의 해결 등의 문제 때문에 北韓보다 우수한 토양과 耕作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糧穀을 수입하여 수요를 충족시켜야 했다.<sup>60)</sup>

南韓의 농업생산은 戰爭前 時期에 심각한 停滯危機에 맞이하였는데, 休戰이 성립하자 政府는 농업증산5개년계획(1953~57)을 수립하여 기술지도에 의한 耕種法의 개선, 農地改良에 의한 耕作面積의 확장, 種子改良 그리고 비료증산 등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식량자급과 米穀增大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제2차 농업증산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계획의 결과 1953년의 377만톤 수준이 1960년에는 527.1만톤으로 1.4배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農業人口 및 農家戶數의 減少에도 불구하고 영농기술의 발전과 機械化로 인하여 1989년 현재 穀物總生産은 46년에 비해 2.38배가 증대한 716만톤을 生産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期間 北韓 穀物生産量에 비해 1.3배가 높다.

한편 北韓은 氣候 및 地形 등의 영농조건이 南韓에 비해 떨어지지만 해방이 후 추진한 농업집단화의 결과로 1960년의 곡물총생산은 1946년에 비해 2.1배나 증대된 26.7만톤이 되었다. 또한 北韓은 1966년부터 營農體系의 集團化에서 오는 생산성 감퇴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분조관리제”를 실시<sup>61)</sup> 하였으나 1970년에는 60년에 비해 분단전후시기의 실적으로 볼 때 低調한 1.49배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그리하여 北韓은 1976년 밭관개의 完成, 土地改良, 다락밭건설, 치산치수, 干拓地開墾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자연개조 5대 방침”을 決定<sup>62)</sup> 하였으며, 제2차 7개년 계획(1978~84)에는 農業의 工業化와 現代化 그리고 科學化 및 集約化 등을 실시하였으나 1989년 현재 548.2만톤의 생산에 머물고 있다([표IV-5] 참조).

農業人口 및 農家戶數는 1988년 기준으로 南韓이 727萬名과 183萬戶로 매년 減少趨勢에 있는 반면 北韓은 799萬名에 159萬 1千戶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南韓은 農業人口의 지속적인 감소로 農家戶當 面積이 增加되는 반면 北韓은 農家人口의 증가로 인해 戶當 面積이 減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63)</sup> 單位面積當 農産物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營農技術의 발전은 南北韓 모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表 IV -5] 南北韓 穀物總生産量 推移

(단위 : 만톤)

	1946(A)	1960	1970	1980	1989(B)	B/A
남 한	300	527.1	693.7	532.4	716.0	2.39
북 한	127	267	398	371.3	548.2	4.32

\*資料 : 國土統一院.

[표IV-5]에서 참조한 바와 같이 1989년 현재 穀物總生産은 南韓이 1946년에 비해 2.39배가 증가한 716만톤이고 北韓은 4.32배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穀物總生産增大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地形的 特性에 따른 밭작물생산 증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sup>64)</sup> 1976년 ‘勞動黨中央委員會’에서 논의 경지면적을 늘이기 위해 ‘자연개조 5대 방침’을 채택하여 干澇地 開墾과 土地整理를 시행하였고, 둘째, 6개년 계획(1972~76)의 多收穫 農法의 추진, 즉 농업의 集團化를 기초로 水利化, 化學化, 機械化를 추진하였다.<sup>65)</sup> 이에 반해 南韓은 外國農産物의 過多輸入으로 70년보다 재배면적이 1989년에는 80% 減少하였으며(1970년 229만 8천정보에서 1989년에는 212만 7천정보) 雜穀 재배면적도 65%가 減少하였다.<sup>66)</sup> 그리고 84년부터 추진된 ‘농어촌 소득원개발’로 재배면적이 農工團地 敷地에 編入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생산량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급속한 公業화로 인해 발생된 都農間 經濟·社會的 격차는 離農現象을 야기함과 동시에 農業勞動力 減少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증대측면의 비교를 補完하기 위하여 농업부문 성장율을 살펴보면 일단 다음의 [표 IV-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表 IV-6] 南北韓 農業部門 成長率 比較

(단위 : 만명, 만톤, 만ha)

	남 북	1965(A)	1970	1975	1980 <sup>b)</sup>	1985	평균성장율
농 가	남 한	1,572.2	1,442.2	1,324.4	1,082.7	852.1	-16.8
인 구	북 한	691.9	733.3	777.4	771.5	776.4	2.8
곡 물	남 한	652.7	693.7	765.4	691.5	699.0	1.45
생산량	북 한	354	398	435	510.0	503.0	8.9
경 지	남 한	255.6	229.8	224	219.6	214.4	-4.5
면 적	북 한	199	203	207	210.4	210.0	1.3
쌀	남 한	350.1	393.9	466.9	506.3	562.6	11.12
생산량	북 한	125	148	173	195.7	201.0	11.05

\*資料 : 經濟企劃院, 『한국통계연감』, 각연호.

國土統一院, 『북한경제통계집』, 1979, 1986.

주 : 1980년 穀物生産量 및 쌀生産량은 당시 凶年으로 인해 1981년 生産量임.

北韓의 穀物總生産의 연평균 증가율은 8.9%로서 南韓의 1.45%보다 무려 6배나 높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南韓에서는 農家人口 및 耕地面積이 연평균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穀物生産量이 연평균 1.45% 증가했을 뿐 아니라 쌀생산의 증가율 역시 北韓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南韓이 北韓보다 營農技術의 集約度가 우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표 IV-6] 참조).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南北韓 食糧總生産의 증가율은 [표 IV-6]과는 相異하다. FAO에서 발표한 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연평균 증가

[表 IV-7] 南北韓 穀物生産成長率 推定推移 比較

(단위 : 천톤, %)

곡물	국	년도	1969~71	1974~76	1980	1984	1985	1986	성장율
곡물 총계	남한		7,863	9,214	8,026	8,943	8,532	8,379	0.7
	북한		5,141	6,826	8,649	10,230	10,615	10,490	13.1
잡곡 합계	남한		127	94	163	145	146	131	-2.3
	북한		2,499	2,721	3,299	4,020	4,215	4,280	9.9
쌀	남한		3,939	4,669	5,062	5,681	5,625	5,607	6.6
	북한		2,392	3,783	4,970	5,570	5,800	6,000	15.7
밀	남한		356	246	57	17	10	5	-156.3
	북한		250	322	380	640	700	710	17.6
보리	남한		819	542	329	353	346	249	-30.9
	북한		353	343	390	500	550	568	8.6
옥수수	남한		67	59	145	133	131	113	-5.7
	북한		1,493	1,687	2,133	2,600	2,680	2,700	10.8
기타	남한		7,736	9,120	7,863	8,798	8,386	8,248	0.7
	북한		2,642	4,105	5,350	6,210	6,400	6,710	16.02

\*資料 : 經濟企劃院, 『한국통계연감』, 각연호.

FAO, Production Yearbook, 1987.

주 : 1) 南韓의 1980년 추정치는 당시 凶年으로 1981년으로 代置한 것임.

2) 성장율은 1969~71 평균치부터 1986년까지 연평균 성장율임.

율을 비교하면, 南韓의 경우 穀物總生産의 성장율은 연평균 0.7%인 반면 北韓은 13.7%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南韓은 쌀과 메밀, 頭類종류를 제외한 여타 부문에서는 마이너스(-)성장율을 기록했으며 北韓은 밀, 쌀, 옥수수, 보리 순으로 전 곡물에 있어서 플러스(+)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北韓에서는 밭작물 중심의 農産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南韓에서는 밭작물 및 논작물의 성장율은 감소 내지 停滯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암시해 준다.

國土統一院과 유엔食糧農業機構에서 추정 발표한 南北韓 生産量의 차이는 [표 IV-8]에서 드러난다. FAO에서 추정한 1986년 北韓의 生産量은 1971년에 비해 무려 3.4배가 증대한 1,099만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期間 南韓의 穀物總生産量인 677.4만톤 보다 160.5만톤 많으나 큰 격차는 없다. 더군다나 北韓의 農業生産은 70년대 동안 1.7배나 늘어서 世界 평균의 1.25배 뿐만 아니라 韓國의 1.4배를 훨씬 上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sup>67)</sup> 이와 같은 北韓의 실적과 FAO와의 誤差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첫째, 北韓이 발표하는 '穀物'은 모든 穀物과 薯類를 포함한 粗穀 概念이고, 둘째, 北韓의 통계작성이 立苗狀態, 즉 中央統計局 및 協同農場責任者가 생산성

[表 IV-8] 機構別 南北韓 穀物生産 推移 및 誤差 比較

(단위 : 만톤)

기구 구분	남 북	1971(C)	1975	1979	1984	1986(D)	D/C
국토통일원 (A)	남 한	678.7	765.4	809.6	731.5	677.4	0.9
	북 한	404	435	470.4	560.0	482.5	1.2
FAO(B)	남 한	786.3	838.5	960.1	894.3	837.9	1.1
	북 한	327.2	690.3	825.5	1,023.0	1,099.0	3.4
B-A	남 한	107.6	73.1	150.5	162.8	160.5	1.4
	북 한	-76.8	255.3	355.1	463.0	616.5	9.0

\*資料 : 國土統一院, 『北韓경제통계집』(1986).

經濟企劃院, 『한국통계연감』, 각연호.

FAO, Production Yearbook, 1987.



과를 높이기 위해 가장 잘된 지역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며, 셋째, 北韓의 穀物生産에는 1974년부터 果實生産을, 1976년부터는 菜蔬生産을 合算하여 발표했을 가능성<sup>68)</sup>이 있기 때문이다.

### 3) 鑛工業部門 成長性

北韓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重工業育成과 軍事力 強化를 위한 國防·經濟 竝進 政策으로 鑛工業을 성장시켜 왔으며 南韓은 經濟成長 政策의 일환으로서 광공업을 육성시켜왔다. 南北韓 鑛工業의 성장정책에 따른 성장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먼저 鑛物資源 및 에너지 生産能力의 성장율을 살펴본 다음 公業의 성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 ① 鑛業

解放當時 鑛工業資源과 産業施設은 南韓에 비하여 北韓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北韓은 경제개발전략 및 公業의 성장정책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條件을 구비하였다. 즉 南北韓 分斷 당시 重工業의 기반인 鐵鑛石은 90% 이상, 무연탄은 87%, 유연탄은 98%가 北韓에 偏在해 있었고 풍부한 水資源과 더불어 電力生産量의 92%가 北韓에 집중되어 있었다.<sup>69)</sup> 1988년 현재 南北韓의 주요 鑛物埋藏量을 비교하여 보면, 石炭은 南韓이 16억톤인 반면 北韓은 7.5배나 많은 120억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鐵鑛石은 南韓이 1.2억톤인데 비해 北韓은 30억톤 이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그네사이트는 南韓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세계최대의 生産地로써 연간 150만톤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sup>70)</sup> 매장량은 65억톤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北韓은 鑛物資源中 망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埋藏量 및 生産量에 있어서 南韓보다 優位<sup>71)</sup>에 있으며 대표 鑛物로는 鐵鑛石, 金銀, 重石, 黑鉛, 石炭 등 5대 鑛物을 들 수 있다.<sup>72)</sup> 이와 같은 地下資源賦存量의 차이<sup>73)</sup>로 인해 南韓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

불어 內需用資源 조차 절대량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여 충당시켜야 하는 반면 北韓은 工業의 原料需要의 충족과 外화 획득원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sup>74)</sup>

[표 IV-9]는 工業化의 原動力이라고 할 수 있는 南北韓 鑛業의 生産量에 대한 성장율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생산량을 보면 南韓은 1989년 현재 2,078만 5천톤을 생산하여, 1965년의 535만톤 생산에 비해 3.39배나 증가하였으며 北韓은 같은 기간 4,330만톤을 生産하여 3.68배의 成長率을 기록했다. 鐵鑛石 및 製鋼 生産은 北韓이 각각 3.31배, 9배의 실적을 나타낸 반면 南韓은 1.7배, 443.23배를 보이고 있다.

[表 IV-9] 南北韓 鑛物의 生産量 및 生産能力

(단위 : 만톤, %)

광 물	남 북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연평균성장율
석 탄	남 한	535	1,024.8	1,278.5	1,759.3	1,820.8	2,254.3	2,078.5	18.2
	북 한	1,176	1,786	2,750	3,200	3,027	3,750	4,330	18.6
철광석	남 한	39.2	73.5	60.0	57.4	54.5	62.5	67.7	5.8
	북 한	310.8	486	516	735	835	980	1,030	17.2
제 강	남 한	5.01	22.7	48.1	200.1	571.2	485.1	2,220.6	55.3
	북 한	66	205	217	240	398.30	430.0	594.0	26.3

\*資料 : 國土統一院.

主要鑛物의 生産量에 대한 연평균성장율을 살펴보면, 첫째, 石炭生産 能力의 연평균성장율은 南韓이 18.2%, 北韓이 18.6%로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적의 배경으로는 南韓은 1961년 에너지源의 개발을 위해 石炭開發 임시조치법, 1969년의 石炭鑛業育成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노력<sup>75)</sup>했으며 北韓도 지속적인 증대계획을 채택해 왔다. 특히 北韓은 1984년 新年辭에서 鑛業의 주요정책(輕金屬生産에 주력, 採掘能力의 向上政策으로 鑛山기계 生産공장의 설립 및 확장, 鎔鑄설계 확장 및 제련소시설의 近代化, 탐사사업의 強化 등) 실

현을 위해 석탄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採鑛技術 및 시설의 老朽化, 炭鑛施設 擴張 및 신규건설에 대한 자금조달 부족, 鑛도의 深部化<sup>76)</sup> 등으로 생산실적이 저조해졌다. 南韓 역시 최근 개발광산의 深部化와 勞使問題로 인해 品質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성을 계속 저하되어 銀塊를 제외하고는 매년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77)</sup>

둘째, 重化學工業의 先導産業인 동시에 각 산업에 기초소재의 공급원이기도 한 철광석은 南北韓의 생산능력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수십억톤의 鐵鑛石을 埋藏하고 있는 北韓은 1960년 310.8만톤에서 1989년에는 1,030만톤을 생산하였으며, 재료별 제조제품 수입금액의 29.3%를 차지한다. 한편 全量을 수입에 의존하는 南韓의 경우, 鐵鑛石生産은 39.2만톤에서 1.7배가 증가한 67.7만톤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北韓은 南韓에 비해 생산능력면에서 상당한 優位를 점할 뿐 아니라 연평균 성장을 역시 17.2%로 南韓의 5.8%에 비해 3배에 달한다. 그러나 北韓은 낮은 수준의 技術, 낡은 設備, 그리고 生産體系의 粗惡性 등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埋藏量에 대한 생산량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sup>78)</sup>에 있으며 輸出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셋째, 南北韓 粗鋼基準에 의한 製鋼能力을 살펴보면 南韓은 1970년 後半을 기점으로 北韓보다 優位를 占하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즉, 南韓은 1960년 5.01만톤 생산능력에서 1973년 이후 포항종합제철소 등 시설의 증대와 대규모화 및 현대화의 결과 연평균 55.3%의 성장을 기록하여 1989년 2,220.6만톤을 생산하였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年平均 26.3%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重工業優先政策으로 야기된 문제점 때문에 최근 성장능력은 미미한 실적을 성취하는데 그침으로써 南北韓 隔差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② 에너지

南北韓 주요에너지인 發電設備能力과 精油能力現況은 [표Ⅳ-10]에서 볼 수

있다. 전력공급구조를 보면 南韓은 原子力發電所<sup>79)</sup> (1989년 총발전시설용량의 33.4%, 총발전량의 46.9%를 차지)의 增設과 함께 유연탄과 가스연료형 발전소의 新·增設을 추진함으로써 공급구조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石油의 地下資源이 전혀 없는 石油燃料型 火力發電所가 48.9%를 차지함으로써 개선할 여지가 아직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北韓은 落差가 크고 水力이 풍부한 압록강과 두만강 水系를 중심으로 값싼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이 전체생산전력의 약 1/2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火力發電도 雄基發電所를 제외하고는 모두 石炭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sup>80)</sup> 南北韓 에너지 공급구조를 살펴보면 南韓은 石炭 및 石油類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으며 北韓은 石炭類가 에너지의 총공급에 83.7% 차지함으로써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제로서 석유 사용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sup>81)</sup> 그리고 北韓은 1986년 蘇聯으로부터 년 176만Kw의 原子力發電所의 건설에 대한 지원을 받아내는 등 심각한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水力發電設備의 老朽와 渴水期, 結水期에 가동율의 저하로 안정적 電力供給이 어려운 실정이다.

[表 IV - 10] 南北韓 發電設備 및 精油能力 現況

구 분	단 위	남 북	1970	1975	1980	1985	1988	연평균성장율
정유능력	萬B/L	남 한	14,418	15,878	23,360	28,835	28,835	15.0
		북 한	723	723	2,169	2,531	2,531	20.2
발전설비	萬Kw	남 한	250.8	472	939.1	1,613.7	1,994.4	39.3
		북 한	339	427	501	596	690.2	16.2

\*資料 : 國土統一院.

비록 에너지의 海外依存度(1986년의 경우 78.1%)가 높아 구조적 脆弱性을 가지고 있는 南韓의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急增하는 에너지수요를 안정적

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石油에 편중된 需給構造를 개선하고, 原油導入先의 多邊化政策과 國內資源의 개발 및 생산증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南韓의 精油處理加工能力은 1964년 大韓石油公社의 蔚山정유공장 가동을 시초로 하여 1988년 현재 연간 28,835만 배럴에 달하여 北韓의 약 11.4배 정도의 能力을 가지고 있다. 北韓은 1973년 蘇聯의 지원을 받은 최초의 웅기정유공장(승리화학)과 中共의 援助로 건설된 百馬里 정유공장(봉화화학)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31만 배럴의 精油處理能力을 가지고 있다.<sup>82)</sup> 年平均성장율면에서는 北韓이 南韓보다 앞서지만 1981년부터 1990년 현재까지 處理能力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外資의 導入 및 技術支援 없이는 개선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③ 工 業

金屬工業의 素材로 사용되는 銑鐵과 鋼鐵 그리고 壓延鋼材 등은 그 자체의 수급량에 의해 工業의 성장율을 평가할 수 있는 단편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銑鐵生産量의 추이를 살펴보자. 統計資料의 이용의 한계로 南北韓 銑鐵의 生産量만 나타내면 [표 IV-11]과 같다. 北韓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南韓에 비해 무려 연평균 100배 이상의 銑鐵을 생산함으로써 優位를 고수해 왔지만 南韓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규모의 확대 등으로 1988년 현재 3배 정도의 차이로 그 隔差가 줄어들었다. 더군다나 1985년 이후에는 생산량의 停滯現象을 드러냄으로써 公업성장의 많은 문제점을 露呈시키고 있다. 南北韓 銑鐵生産의 연평균 증가율을 算出하여 보면 南韓이 47.4%, 北韓이 20.8%로서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질 展望이다.

[表 IV-11] 南北韓 銑鐵生産의 年度別 推移

(單位: 萬屯)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연평균성장율
남한	1.32	1.84	1.9	118.6	557.7	883.3	1,451	47.4
북한	120	149	206	304	346.6	507.6	517	20.8

\*資料: 國土統一院.

한편 自動車工業에 있어서 南韓은 1989년 현재 178.3만대를 생산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연간 3.3만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南韓은 近代化過程에서 기계공업의 綜合産業인 自動車工業을 輸出戰略産業으로 육성하여 國産化率 제고와 內需市場을 증대시킴으로써 小型乘用車로부터 버스·트럭 등에 이르기까지 연평균성장을 31.6%를 기록했다. 한편 北韓은 단지 승리자동차공장에서 貨物自動車와 貨車 등 연간 3만대 안팎의 생산시설만 갖추고 있다. 이밖에 乘用車 및 大型運送用 車輛 그리고 特殊重裝備 車輛 등은 蘇聯, 체코, 日本 등지로부터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자동차공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代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sup>83)</sup>

化學工業 및 建材工業도 경제개발초기에는 金屬, 機械工業과 마찬가지로 北韓이 南韓에 비해 우위에 있었으나 현재 化學肥料의 생산에 있어서는 南韓이 370만톤, 北韓이 70.2만톤, 시멘트생산에 있어서는 南韓이 3,046만톤, 北韓이 977만톤 생산실적을 올림으로써 南韓이 모두 優位에 있다. 이처럼 肥料 生産設備에 있어 南韓은 요소비료생산을 중심으로 한 高成分 肥料生産인데 반해 北韓은 成分含量이 낮은 硫安肥料와 磷肥料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sup>84)</sup>

南韓의 시멘트공업은 제1차 경제계획의 시작으로 10大 戰略産業의 하나로 기반을 굳히면서 育成되었으며 또한 꾸준한 국내건설경기의 好調와 해외투자건설의 붐에 힘입어 시설규모도 大型化하여 100만톤을 上廻하는 국제규모의 공장이 7개 이상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46.7%라는 높은 연평균 성장율을 기록했다.<sup>85)</sup>

生産實績도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를 시점으로 南韓이 北韓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1988년에는 3,046만톤으로 北韓의 977만톤에 비해 3.1배였다. 北韓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工業部分의 하나이기도 한 시멘트는 1960년에 비해 1988년에는 4.3배의 생산규모의 증대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의 일부를 中東地域에 輸出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IV - 10] 南北韓 主要工業 年平均 成長率

(單位 : 萬臺, 萬屯, %)

구분	남	북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연평균성장율
자동차	남	한	.	.	6.31	7	35	48.9	170.0	31.6
	북	한	0.31	0.5	1.15	2.4	3	3	2.8	26.6
화학비료	남	한	1.3	16.3	61.3	91.7	133.4	127.3	370.0	48.5
	북	한	11.2	14.2	30	46.2	70.9	80.0	70.2	23.5
시멘트	남	한	43.1	161.4	578.3	1,012.9	1,561.2	2,042.4	3,046.0	46.7
	북	한	229	239	400	580	807	905	977	20.2

\*資料 : 國土統一院

輕工業은 그 대부분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關係가 있는 消費財를 생산하는 工業部門이다. 따라서 資本主義 市場經濟에서는 생산주체들이 수요가 많은 輕工業製品的 생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 社會主義의 統制經濟에 있어서는 輕工業이 일정단계까지는 정책적으로 경시되는 傾向이 있는 만큼 北韓 역시 商品의 需給을 정책적으로 調整·決定하고 있다. 南韓은 개발초기 1960년대부터 풍부한 勞動力을 기반으로 纖維, 합판, 전기제품, 신발류 등 노동집약적 輕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여 수출주력상품으로 발전시켰다. 한편 北韓은 重工業 育成政策에 치중한 결과 輕工業이 산업중 가장 落後된 부문중의 하나로서 남아 있으며 생활필수품의 供給不足現象을 야기시켜 왔다. 이에 대응하여 北韓은 198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輕工業部門의 投資 및 生産을 강조하고 있지만 新投資의 低調와 도덕적 誘因(moral incentive)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으로서 커다란 成果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sup>86)</sup>

## 2. 效率性

經濟成長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各國家들이 相異한 경제정책 및 정책에 따른 수단 그리고 經濟體制를 가지고 있다. 分斷以後 自力更生에 의

[表 IV-10] 南北韓 主要工業 年平均 成長率

(單位：萬臺, 萬屯, %)

구분	남	북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연평균성장율
자동차	남	한	.	.	6.31	7	35	48.9	170.0	31.6
	북	한	0.31	0.5	1.15	2.4	3	3	2.8	26.6
화학비료	남	한	1.3	16.3	61.3	91.7	133.4	127.3	370.0	48.5
	북	한	11.2	14.2	30	46.2	70.9	80.0	70.2	23.5
시멘트	남	한	43.1	161.4	578.3	1,012.9	1,561.2	2,042.4	3,046.0	46.7
	북	한	229	239	400	580	807	905	977	20.2

\*資料：國土統一院

輕工業은 그 대부분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關係가 있는 消費財를 생산하는 工業部門이다. 따라서 資本主義 市場經濟에서는 생산주체들이 수요가 많은 輕工業製品的 생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 社會主義의 統制經濟에 있어서는 輕工業이 일정단계까지는 정책적으로 경시되는 傾向이 있는 만큼 北韓 역시 商品의 需給을 정책적으로 調整·決定하고 있다. 南韓은 개발초기 1960년대부터 풍부한 勞動力을 기반으로 纖維, 합판, 전기제품, 신발류 등 노동집약적 輕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하여 수출주력상품으로 발전시켰다. 한편 北韓은 重工業 育成政策에 치중한 결과 輕工業이 산업중 가장 落後된 부문중의 하나로서 남아 있으며 생활필수품의 供給不足現象을 야기시켜 왔다. 이에 대응하여 北韓은 198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輕工業部門의 投資 및 生産을 강조하고 있지만 新投資의 低調와 도덕적 誘因(moral incentive)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어서 커다란 成果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sup>86)</sup>

## 2. 效率性

經濟成長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各國家들이 相異한 경제정책 및 정책에 따른 수단 그리고 經濟體制를 가지고 있다. 分斷以後 自力更生에 의



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한 北韓과 劣惡한 賦存資源과 資本蓄積下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南韓과의 경제적 효율성을 比較分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더군다나 경제적 효율성을 제1의 기준으로 두는 資本主義 經濟體制와는 달리 경제적 제수단에 의한 合理的·合目的的 統制 및 利用을 우선시하는 社會主義體制를 대상으로 할 때 그 어려움은 倍加된다. 이러한 비교의 한계들을 인식하면서 本研究는 이용가능한 자료와 통계에 기초하여 生産性과 投資生産性의 관점에서 農業 및 工業의 부문별 效率性을 비교하고자 한다.

### (1) 農 業

南韓은 全國土의 21.6%, 北韓은 17.5%가 1988년 현재의 耕地面積이다. 耕地面積中 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南韓이 135.8만 정보로서 전체의 63.5%를 차지하는 반면 北韓은 全面積의 30.1%인 64.5만정보이다. 이처럼 地形的 특성에 의해 南韓은 논농사, 北韓은 밭농사 위주의 食糧 栽培를 하고 있다. 南北韓 耕地面積을 비교하면 [표Ⅳ-13]과 같다.

南韓의 논 耕地面積은 耕地整理 확대에 따른 밭의 地目轉換과 干拓 등으로 1960년에 비해 25.5%가 늘어난 135.8만 정보이며 밭은 78만정보로 나타났다. 北韓은 논 면적을 늘이기 위해 1976년 勞動黨中央委員會에서 ‘自然改造 5大方針’을 채택, 干拓地 開墾 및 토지정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資本不足<sup>87)</sup>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1988년 논 면적의 耕地面積은 전체 耕地面積의 30.1%인 64.5만정보를 차지하고 있다.

南北의 밭 경지면적은 각각 78만, 149.6만 정보로서 北韓이 南韓에 비해 1.92배 정도로 많다. 특히 南韓의 밭의 耕地面積이 연평균 7%의 감소율을 보이는 반면 北韓은 2.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논밭 전체 耕地面積의 隔差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V-13] 南北韓 耕地面積 比較

(단위 : 만정보, %)

	경지면적		논		밭		비율		
	남(A)	북(B)	남(C)	북(D)	남(E)	북(F)	A/B	C/D	E/F
1960	204.2	189.7	108.2	49.3	96.0	140.4	1.08	2.19	1.46
1970	211.8	107.5	119.5	64.3	92.3	143.2	1.02	1.86	1.55
1980	219.6	210.4	130.7	63.5	88.9	143.9	1.04	2.05	1.62
1988	213.8	214.1	135.8	64.5	78.0	149.6	0.99	2.10	1.92

\*資料 : 經濟企劃院, 『주요경제지표』, 각연호.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86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89.

이처럼 南北韓 耕地面積은 分斷前後時期에 있어서는 南韓이 北韓보다 優位에 있었지만 70年代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 격차가 완화되어 1988년에는 오히려 北韓이 優位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南韓의 耕地面積이 경제 발전에 따른 都市化와 工業化의 진전에 따라 工業敷地, 道路, 都市擴張, 특히 農漁村 農工團地 造成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北韓은 식량문제의 해결, 즉 식량의 自給自足を 위해서 干拓, 開墾, 土地整理 등의 耕地擴大事業을 꾸준히 추진하여 온 결과, 耕地面積이 크게 늘어났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남북한 농가인구는 1986년 FAO를 기준으로 남한이 818만, 북한이 774.9만명으로 각각 전체인구의 19.9%와 37.1%를 차지한다. 이처럼 경지면적에 비해 남한보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다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영농형태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한의 농가인구는 급속한 산업화 및 그 결과로 인한 都農間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60년대 이후 계속 감소현상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인구의 통제 및 조정정책으로 1965년 619.9만명에서 1988년에는 1.2배가 증대된 799.1만명으로 나타났다.

[表 IV - 14] 南北韓 穀物生産量에 대한 生産性 比較

		1965	1970	1975	1980	1984	1986	1988
生産量 (만 톤)	남한	652.7	693.7	765.4	691.5	699.0	677.4	729.9
	북한	354.0	398.2	435.1	510.0	503.0	482.5	521.0
耕地面積 (만 정보)	남한	255.6	229.8	224.0	219.6	215.2	214.1	213.8
	북한	199.0	203	207	210.4	213.6	214.0	214.1
農業人口 (만 명)	남한	1,572.2	1,442.2	1,324.4	1,082.7	901.5	818.0	727.2
	북한	691.9	733.3	777.4	771.5	776.4	765.7	799.1
町步當 生産量(kg)	남한	2,447.9	3,018.7	3,416.9	3,148.9	3,248.1	3,163.9	3,413.9
	북한	1,778.8	1,961.5	2,101.9	2,423.9	2,354.8	2,254.6	2,433.4
農業人口 1인당생산량(kg)	남한	397.9	481.0	477.9	638.7	775.4	828.1	1,003.7
	북한	511.6	543.0	559.6	661.0	647.8	630.1	651.9
單位町步 1인당생산량(kg)	남한	1.56	2.09	2.58	2.91	3.60	3.87	4.69
	북한	2.57	2.67	2.70	3.14	3.02	2.94	3.04

\*資料 :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各年號.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86.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87. 1989.

이상의 특징들을 염두에 두면서 南北韓 穀物生産量의 效率性を 比較해 보면 위의 圖表로 정리되어진다. 여기에서 정보당 생산량이란 생산량을 경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面積에 투여한 生産要素의 效率性を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정보당 생산량은 1965년 2.5톤 생산에서 1988년에는 1.39배가 증대한 3.4톤의 생산을 이룩한 반면 北韓은 1.8톤 생산에서 1.36배가 증대한 2.4톤을 기록했다. 둘째, 農業人口 1인당 생산량이란 당해년도 생산량을 농업인구로 나눈 比率이다. 이는 일정한 노동투여에 대한 효율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1인당 곡물생산량은 같은기간 397.9kg에서 1,003.7kg으로 2.51배가 증대되었으며 북한은 511.6kg에서 1.27배가 증가한 651.9kg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노동투입에 대한 생산량에 있어서 약 1.97배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單位町步 1인당 생산량은 일정한 耕作面積의 생산

량을 農業人口로 나눈 것으로서 生産要素의 技術的 集約度를 나타내는 效率性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기간 南韓의 單位町步 1인당 생산량은 1.56kg에서 무려 3배가 증대한 4.69kg인 반면 北韓은 1.18배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經濟開發 초기부터 1980년까지는 北韓이 優位性을 점했지만 그 이후는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의 農業의 成長性 비교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가 FAO의 자료에 의존한다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北韓은 機械化, 化學化, 水利化, 電氣化 등의 政策의 결과로 1970년대 들어서 곡물생산량이 증대되었지만 과학화에 따른 투입요소의 비용과 [표 IV-14]에서 분석한 결과를 총괄할 때는 다소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主要作物은 벼와 옥수수이며 南韓은 벼와 보리가 주축이다. 여기에서 쌀의 생산성만을 분석해 보면 [표 IV-15]와 같은 특징을 읽어 낼 수 있다.

[表 IV-15] 南北韓 畝町步當 生産量 比較

구분	남북	1946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쌀생산량 (만톤)	남한	173.5	223.4	304.7	350.1	393.9	466.9	355	562.6	589.8
	북한	74.5	97.2	110	125	148	173	124.5	201.0	215.9
논 면 적 (만정보)	남한	110.5	119.7	121.6	128.6	127.3	127.7	130.7	132.5	135.8
	북한	38.8	47.2	51	55	58	61	63.5	64	64.5
쌀정보당 생 산 량 (10kg)	남한	157	269	269	283	327	383	288	455	434.3
	북한	192	206	221	233	259	288	200	314.1	334.7

\*자료 : 국토통일원.

주 : 1980년의 생산량은 남북한 흉작으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쌀생산량은 남한이 1946년 북한에 비해 2.3배 수준에서 1989년에는 2.7배, 논 면적은 같은기간 2.8배에서 2.1배로 줄었다. 1946년 기준으로 쌀정보당 생산량

은 북한이 1.2배나 높았지만 1950년을 기점으로 하여 변화하여 1989년에는 남한이 1.3배가 높다.

이처럼 北韓은 技術革命과 農作의 集約化 그리고 品種改良 등 알곡생산에서는 높은 실적<sup>88)</sup>을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식량의 自給自足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工 業

工業生産의 效率性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農業의 效率性과 달리 算出量에 대한 投入要素費用과 투입에 따른 산출량의 가치 즉 투입·산출계수인 平均資本計數와 限界資本計數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구조의 전연방 과급효과와 전후방 과급효과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南北韓 統計作成比較의 분제점에 따라 주로 生産性에 依存하여 分析을 하고자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따른다. 남한의 경우 경제기획원에서 경영조직별 鑛·工業의 生産費와 生産額을 매년 발표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매년 생산비 대신 투자금액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발표하는 투자금액은 부문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人民經濟費 지출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광·공업의 생산에 대한 효율성 비교는 어렵다. 최근에는 간혹 간헐적으로 最高會議 자료집이나 노동신문 그리고 조선중앙연감 등에서 부문별 투자금액의 발표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時系列的으로 일치하지 않을 뿐아니라 생산량의 가치 역시 환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광·공업부문의 효율성 비교를 위해 우선 朝鮮中央年鑑에서 발표한 60년대의 부문별 공업부문 투자구성비와 총생산액의 구성비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따라서 투자생산성을 중심으로 考察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은 80년대 이후 부문별 생산비와 생산액의 변화를 통한 생산성

의 변화를 중심으로 效率性的의 推移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 한

北韓이 採擇한 經濟開發戰略은 특히 重工業과 生産財 生産部門에 대한 集中投資의 推進政策으로서 相對的으로 農業部門과 輕工業 그리고 消費財部門이 落後되는 決定的 構造要因<sup>89)</sup>이 되었다.

人民經濟 部門別 國家基本建設의 投資額과 構成比를 살펴보면 工業이 차지하는 比重과 推移를 알 수 있다([표 IV-16]참조). 여기에서 公業의 투자금액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65년 이후부터는 60%가 넘는 투자가 치중되고 이에 비해 상대적인 농업부문의 침체가 招來되었다.

[表 IV-16] 部門別 基本建設投資額과 構成比

(단위 : 백만원, %)

	기본건설투자총액		공 업		농 업		수송·통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54	330	100	143	43.2	21	6.4	66	20.2
1956	351	100	188	53.6	37	10.5	28	7.9
1961	593	100	345	58.1	75	12.7	42	7.0
1962	650	100	363	55.8	69	10.6	40	6.1
1965	827	100	518	62.0	191	13.2	69	8.3

\*자료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각년호.

이러한 투자금액에 따른 부문별 생산액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表 IV-17]과 같다.

工業의 生産額은 戰後復舊 3個年段階의 1953년의 4억1,680만원에서 第1次 6個年 計劃期間의 1964년에는 62억 9,850만으로 15.1배가 증대되었다. 이는 社會總生産額의 構成比 側面에서 보면 같은 기간 30.7%에서 62.3%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工業의 投資增大에 비해 農業 및 輸送·通信의 生産額 構成比는 각각

마이너스를 나타냄으로써 構造的 不均衡을 發生시키는 要因으로 作用되었다.

[表 IV-17] 部門別 社會總生産額과 構成比(단위 : 백만원, %)

	사회총생산		공업		농업		수송·통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53	1,357.7	100	416.8	30.7	564.8	41.6	50.2	3.7
1956	2,856.2	100	1,145.3	40.1	459.8	26.6	114.2	4.0
1960	6,682.0	100	3,815.4	57.1	1,557.0	23.6	147.0	2.2
1964	10,110.0	100	6,298.5	62.3	1,951.2	19.3	283.1	2.8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북한 발표치 : 1986), p.128.

[표 IV-16]과 [표 III-17]을 이용하여 投資에 따른 生産의 效率性を 部門別로 비교분석하면 북한이 발표한 성장치에 관한 문제점의 윤곽을 알 수 있다. 投資生産性은 投資에 대한 生産額의 比率로서 投資의 效率性を 나타낸다. 社會總生産에 대한 投資生産性은 1956년 8.14에서 1960년 13.36으로 높아졌지만 1965년에는 오히려 減少되었다. 工業, 農業, 輸送·通信分野 역시 停滯現象을 보여줌으로써 생산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특히 투자에 따른 효과의 懷妊期間이 장기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工業보다는 農業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V-18] 部門別 投資生産性

	사회총생산	공업	농업	수송·통신
1956	8.14	6.09	20.50	4.08
1960	13.36	14.82	29.94	3.77
1965	12.22	12.16	10.21	4.10

\*자료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각년호.

[표 IV-19]는 북한의 工業部門別 投資金額의 構成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投資의 構成은 輕工業보다는 重工業을 우선시하는 투자의 偏重現象을 입증

시켜준다. 그리고 10여년간 工業部門 投資金額의 구성비의 평균을 분석해 보면 鑛業, 發電, 機械, 石炭, 化學, 金屬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바, 다른 社會主義國家와 類似한 北韓의 産業構造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公業의 生産액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IV-20]이다.

[表 IV-19] 北韓의 工業部門 國家基本建設 投資金額의 構成比

(단위 : %)

구분 년도	중 공 업								경 공 업				입업	수산업	계
	계	발전	석탄	광업	금속	기계	화학	건재	계	방직	식료품	일용품			
1954	81.0	9.4	4.2	9.8	6.8	9.3	6.3	5.1	19.0	4.0	0.9	14.1	5.5	6.6	100
1954~1956	81.1	14.4	5.3	8.2	7.0	7.7	7.6		18.9	5.4	2.0	11.5	3.5	7.2	100
1956	83.3	14.8	6.7	8.6	7.7	6.3	10.0	5.9	16.7	4.0	2.3	10.4	2.5	6.5	100
1957~1960	80.6	11.9	9.6	16.3	10.5	12.4	6.7		17.4	5.8	3.1		2.5	2.9	100
1961	69.7	11.1	9.9	16.3	6.2	9.1	10.9	2.8	30.3	3.7	5.2		1.9	11.3	100
1962	63.7	12.9	9.9	15.7	5.0	7.4	6.3	1.0	36.3	7.2	5.0	2.0	1.7	15.5	100
1963	68.2	14.6	12.6	17.5	5.8	10.1	3.4	1.2	31.8	8.7	5.2	2.9	2.0	13.4	100
1964	73.8	11.5	14.7	19.4	6.1	11.1	4.4	1.7	26.2	5.5	9.2	1.6	2.3	8.0	100
평균	75.2	12.6	9.1	14.0	6.9	9.2	7.0	3.0	24.6	5.5	4.1	2.2	2.7	8.9	100

資料 :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북한 발표치 : 1986), pp. 186~187

[表 IV-20] 北韓의 部門別 工業 總生産額 構成

(단위 : %)

구분 년도	중 공 업								경 공 업				기타	계
	계	발전	연료	광업	기계제작	금속가공	화학	건재	계	방직	식료품	일용품		
1956	45.5	0.7	1.8	14.7		17.3	6.2	4.8	35.2	18.4	13.7	3.1	19.3	100
1959	47.7	0.3	1.3	10.1		20.6	9.1	6.3	38.0	17.4	15.8	4.8	14.3	100
1960	48.9	0.2	1.3	10.8		21.3	9.4	5.9	37.2	16.8	14.6	5.8	15.9	100
1963	51.6	0.2	1.2	10.6		25.6	8.3	5.7	39.1	18.6	13.9	6.6	9.3	100
평균	48.4	1.4	1.4	11.6		21.2	8.25	5.7	37.4	17.8	14.5	5.1	14.7	100

資料 : [表 IV-17]과 同一

註 : 1) 化學은 化學과 醫藥品의 합에 대한 構成比임. 그리고 1963년의 數値는 醫藥品의 構成比를 제외한 것임.

2) 食料品은 食料品과 嗜好品의 합에 대한 構成比임

3) 日用品은 文房具 및 雜貨의 構成比



위의 표를 살펴보면 輕工業보다는 重工業의 總生産額 構成比가 1.29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部門別로 보면 機械製作 및 金屬加工, 紡織, 食料品, 化學, 建材, 日用품 공업 순이다. 국가기본건설 투자금액의 구성비와 비교 분석해 보면 機械製作과 金屬 加工分野를 제외하고는 투입과 산출이 서로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 부문들의 비효율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공업화 과정의 기간산업인 발전, 연료, 광업부문의 낮은 산출구성비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關聯産業의 停滯性을 意味한다. 이처럼 重工業의 投資效果가 短期的 算出増大의 成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算出期間에 대한 분석이 10년단위임을 감안할 때, 平均總生産額 구성에 대한 1963년의 실적은 기계제작 및 金屬工業, 紡織, 日用品을 제외하고는 아주 낮아서 대체로 非效率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 南 韓

生産技術과 資本蓄積이 劣惡했던 조건에서 시작된 남한의 工業化는 政府의 經濟開發計劃에 힘입어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왔으며 國民經濟의 厚生増大에 基礎的 基盤을 마련했다. 산업구조는 그 나라의 資源條件과 開發政策에 의해 변화되는 바 이런 맥락에서 賦存資源이 貧弱한 南韓의 工業은 政府의 意圖的 輸出 主導型 工業化政策에 의해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제조업의 생산액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부문산업에 비해 急速하게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공업의 급성장은 농업·어업부문의 상대적 낙후성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도시화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산업의 2중구조적 특성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산업구조에 있어서 근대적 工業國型 산업구조로의 단계적 전환<sup>90)</sup>이 이루어졌으며 規模經濟의 효율성효과를 단기적으로 달성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다.

[표 IV-21]은 南韓工業의 總生産과 총생산에 따른 요소비용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87년 공업총생산액은 1978년에 비해 5.36배가 증가한 115조 2천 36억원이며 총생산비용은 같은기간 113조 7천 564억원으로서 8.7배가 증대되었다. 이처럼 최근 10여년간 南韓의 工業은 總生産의 年平均增加率(28.04%)보다 總生産費用의 年平均增加率(33.58%)이 1.2배나 높음으로써 기업의 採算性的 악화를 드러냄으로써 構造的 改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금속, 제조업부문에 있어서는 나무 및 나무제품, 화합물, 기계장비 등 조립금속, 제1차 금속산업을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며 生産費와 總生産額이 차이가 심한 業種으로는 석탄, 음식료 및 담배, 비금속광물, 종이·종이제품 등 인쇄출판업, 섬유·의복·가죽·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工業部門의 總生産額과 總費用의 關係를 기초로 하여 생산성을 계산하면 다음의 [표 IV-22]와 같은데, 이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의한 生産費用 증대로 인한 採生産性的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업종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여기에서 평균생산성을 편의상 총생산액을 총생산비로 나눈 단위 비용당의 생산액으로 보고 한계생산성을 일정년도의 생산액 증가분과 생산비용 변화간의 비율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하여 生産要素의 投入에 따른 생산량의 증대 비율을 살펴보면, 10여년간 平均은 1.28배, 한계생산성이 1.08배로 分析되었으며 가장 效率的인 業種은 석탄, 나무제품, 음식료 및 담배, 제1차금속, 화합물, 비금속광물, 종이 제품, 섬유·의복·가죽, 조립금속을 포함하는 기계장비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78년의 生産性에 비해 1987년의 공업부문별 생산성이 석탄, 나무제품산업을 제외하고는 감소함으로써 短期的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장기적 측면의 관점에서 즉, 같은기간 限界生産性을 분석해 보면 일정한 부문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IV-21] 南韓의 工業總生産

구분 년도	총 계		광업								제			
			계		석탄		금속		기타		계		음식료 및 담배	
	A	B	A	B	A	B	A	B	A	B	A	B	A	B
1978	130,491	214,907	821	3,313	523	2,105	118	424	180	782	129,670	211,594	16,820	31,568
1980	245,842	368,173	1,619	5,382	1,026	3,490	230	712	362	1,179	244,223	362,790	30,111	49,794
1982	345,463	524,520	2,029	8,030	1,119	5,648	237	663	563	1,718	343,433	516,483	43,455	72,201
1984	713,712	722,973	2,849	9,919	1,516	6,505	244	660	1,089	2,753	466,510	713,054	53,662	89,128
1986	923,878	931,319	3,184	11,822	1,899	1,363	211	585	1,073	2,874	590,677	919,496	64,238	94,211
1987	1,137,564	1,152,036	3,517	12,984	1,949	8,799	217	605	1,350	3,579	733,357	1,139,051	71,334	118,920
평균증가율(%)	33.58	28.04	23.62	23.04	21.2	23.6	8.56	4.64	30.66	25.24	28.48	28.08	24.02	22.5

註 : 1) A는 生産費 B는 生産額

2) 石油 및 石炭製品은 除外하며 이는 化合物에 포함

資料 :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각연호

[表 IV-22] 南韓의 工業

구분 년도	총 계		광업								제					
			계		석↑탄		↓금속↑		기타		계 ↓		음식료 및 담배		섬유·의복·가죽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1978	1.64	-	4.03	-	4.03	-	3.59	-	4.34	-	1.63	-	1.87	-	1.63	-
1980	1.50	1.32	3.32	2.59	3.40	2.75	3.09	2.57	3.25	2.18	1.48	1.31	1.65	1.37	1.55	1.42
1982	1.52	1.56	3.95	6.45	5.04	23.2	2.31	-0.85	3.05	2.68	1.50	1.54	1.66	1.67	1.56	1.62
1984	1.01	0.51	3.42	2.18	4.29	2.15	2.70	0.06	2.52	1.93	1.52	1.59	1.66	1.65	1.60	1.74
1986	1.00	0.99	3.71	6.56	4.40	4.85	2.77	0.45	2.67	-7.56	1.55	1.65	1.46	0.48	1.59	1.57
1987	1.01	1.03	3.69	3.48	4.51	8.72	2.78	3.33	2.65	2.54	1.55	1.54	1.66	3.48	1.58	1.52
평균	1.28	1.08	3.68	4.25	4.27	8.33	2.87	1.11	3.08	0.35	1.53	1.52	1.66	1.73	1.58	1.57

資料 : [表 IV-20]과 同一

및 生産費 推移

(단위 : 억원)

조						업									
삼유, 의복, 가죽		나무 및 나무제품		화 합 물		비금속 광물 <sup>2)</sup>		제 1 차 금속 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업		기 타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25,949	42,357	4,529	6,807	30,074	44,434	4,105	8,180	11,045	16,481	31,349	51,199	4,182	7,485	1,612	3,080
41,842	64,954	6,779	8,838	76,409	100,683	9,189	16,016	24,632	33,872	43,731	69,608	8,750	14,016	2,777	5,007
54,150	84,990	7,072	10,362	102,513	135,533	12,473	19,936	34,492	49,327	72,372	116,167	12,520	20,082	4,381	7,886
67,866	108,900	8,733	12,682	127,427	172,154	17,242	29,194	47,000	66,893	120,352	193,742	17,662	29,059	6,562	11,297
91,604	146,387	8,902	13,375	135,371	193,001	21,750	37,288	55,967	79,786	178,975	286,817	23,071	38,053	10,792	18,701
114,567	181,188	10,888	16,368	159,407	229,438	24,907	42,431	67,924	96,804	241,312	381,758	28,873	47,431	14,443	24,710
25.34	24.98	15.24	15.82	25.24	25.86	28.5	26.8	28.76	28.48	33.22	32.72	30.96	30.2	35.2	33.76

生産性 推移

조						업							
나무·나무제품		화 합 물		비금속 광물		제 1 차 금속 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장비		종이, 종이제품, 인쇄·출판업		기 타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평균	한계
1.50	-	1.47	-	1.99	-	1.49	-	1.63	-	1.78	-	1.91	-
1.30	0.90	1.31	1.21	1.74	1.54	1.37	1.27	1.59	1.48	1.60	1.42	1.80	1.65
1.46	5.20	1.32	1.33	1.59	1.19	1.43	1.56	1.60	1.62	1.60	1.60	1.80	1.79
1.45	1.39	1.35	1.46	1.69	1.94	1.42	1.40	1.60	1.61	1.64	1.74	1.72	1.56
1.50	4.10	1.42	2.62	1.71	1.79	1.42	1.43	1.60	1.58	1.64	1.66	1.73	1.75
1.50	1.50	1.44	1.53	1.70	1.61	1.42	1.42	1.58	1.52	1.64	1.61	1.71	1.64
1.45	2.61	1.38	1.63	1.73	1.61	1.42	1.70	1.87	1.56	1.65	1.60	1.77	1.67

### 3. 安定性

經濟의 높은 成長性과 效率性을 持續的으로 達成하기 위해서 그 경제발전의 安定性은 필수불가결의 기본요소이다. 經濟의 安定性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物價의 變動率, 失業率, 國際收支, 에너지의 輸入依存度 등의 要因을 分析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남북한 경제체제의 相異性과 可用資料의 한계로 재정구조와 무역구조의 安定性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安定性 비교의 윤곽을 그려 내고자 한다.

#### (1) 財政構造

南韓은 私有財産權을 바탕으로 한 資本主義 經濟體制이므로 民間部門이 經濟活動의 主軸을 이루며 財政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인 北韓은 財政이 經濟活動의 모든 部門을 反映하고 있다.<sup>91)</sup> 이처럼 南韓의 財政은 市場失敗(market failure)에 기인하는 자원 배분상의 비능률과 소득분배상의 불공평을 시정하는데 주된 역점을 두지만 북한 경우는 經濟資源을 統制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sup>92)</sup>

社會主義 經濟體制에 있어서 豫算은 보통 統合豫算을 의미<sup>93)</sup>하며 북한의 재정 역시 中央 및 地方豫算으로 구성되어 국가예산으로 종합된다. 중앙예산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豫算收入을 調達하고 歲出을 執行하며, 地方豫算은 地方行政機關, 地方工場, 企業所 등을 대상으로 歲出入을 執行한다. 1984년의 경우 北韓의 中央豫算과 地方豫算은 각각 국가예산의 84.4%, 15.6%를 차지함으로써 중앙예산이 월등히 높은 데 이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특성을 잘 반영시켜 준다.<sup>94)</sup> 이와같은 북한의 豫算은 政務院에 속하는 財政經理部의 管掌下에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 법령으로 채택결정되는 한편 남한의

예산은 먼저 中央部署의 組織別·機能別로 區分되어 經濟企劃院의 예산편성, 국회의 예산심의, 정부의 집행 그리고 歲入·歲出의 결산심사는 監查院의 관장하에 이루어지며 국회는 엄중한 심사로 예·결산을 평가한다.<sup>95)</sup> 이와 같은 南北韓 財政의 相異한 制度的 特徵을 염두해 두면서 재정구조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 1) 歲 入

北韓의 歲入構造는 70년대 초반까지는 經理 수입금, 住民稅, 대외원조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1974년부터 “社會主義經理收入金”이 대부분의 歲入豫算을 점하고 있다. 북한의 歲入制度는 中央豫算收入과 地方豫算收入으로 대별되며, 地方豫算收入은 地方産業 및 기타 地方經濟部門으로부터의 收入 그리고 中央豫算으로부터의 分여수입 및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表 IV-23] 北韓의 國家歲入構成的 推移

(單位 : %)

구 분 \ 년 도	1946	1949	1954	1957	1960	1973	1974
社會主義 經理 收入金	45.5	75.5	52.9	82.2	97.1	98.1	100
住民으로 부터의 稅金收入	54.5	24.5	13.4	5.6	2.1	1.9	-
外國援助에 의한 收入	-	-	33.7	12.2	-	-	-

註 : 1966年 農業現物稅制 廢止, 1974年 稅金制度 완전폐지

資料 : 現代朝鮮問題 編輯委員會, 「北韓의 經濟」, 1988. p. 197, 再引用.

中央豫算收入의 主軸은 經理收入金이며 經理 수입금은 거래 수입금, 國家企業 利益金, 協同團體 所得稅, 기타 收入(國家財產販賣收入, 固定財產償還金收入, 貿易價格偏差金收入)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각 項目別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 수입금은 “生産物價格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미리 고정되어 있고 生産物이 實現됨에 따라 豫算에 바치게 되어 있는 社會純所得部門”으로<sup>96)</sup> 사

회주의 경리수입부문의 55% 이상을 점하고 있는 주된 歲入源이다. 이는 주로 소비재에 부과되어 있고 또 생산재 생산부문에서 창출된 社會純所得과 일부 서비스부문의 생산에 대해서도 부과됨으로써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南韓의 間接稅와 유사하다.<sup>97)</sup> 둘째, 국가기업의 이익금은 獨立採算制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소 및 生産工場에서 일정기간에 얻어진 이윤 중 일정비율의 자체 경비를 공제한 殘額을 예산에 납부하고 있는 세입원으로서 총 예산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모든 企業의 國·公有化로 인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中央集權的 純所得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나 企業課稅 즉 法人稅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協同團體 利益金이 生産協同組合 및 水産協同組合이 生産活動에서 얻어진 수입 중 일정비율을 중앙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協同團體 利益金은 去來收入金과 企業利益金의 납부와 함께 豫算部門에 集中되는 所得의 한 形態이지만 社會化된 企業部門에서의 收入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sup>98)</sup>

한편 남한의 歲入構造는 租稅, 稅外收入, 轉賣利益, 領收金, 기타(전년도 이월금, 국공채수입금, 차관수입)로 나누어지며 稅制의 區分과 교부금 및 보조금의 형태에 의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대별된다. 남한의 經費調達源泉은 租稅收入源이며 그중에서도 내국세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租稅收入은 內國稅 외에도, 關稅, 防衛稅, 教育稅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공채발행에 의한 공채수입이나 외국으로부터의 借款收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규모의 증대는 공업화과정의 촉진에 따라 발생하며 경제성장도를 測定할 수 있는 客觀的 尺度인 동시에 政府活動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sup>99)</sup> 남북한 세입규모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IV-24]와 같다.

[表 IV-24] 南北韓 歲入指數의 推移比較

남북 \ 년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2	1984	1986	1988
南 韓	11	24	100	365.6	1496.9	1333.3	2652.9	3296.8	4943.4
北 韓	32	57	100	185.9	307.1	331.8	426.0	460.3	514.8

資料：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各年號 서진영, 「現代中國과 北韓 40年」, 高麗大學校 아시아 問題研究所, 1989. p. 322

[표 IV-24]를 분석해보면 남한은 1988년 현재 1970년을 기준으로 볼때 歲入이 494.3배 증대된 반면 북한은 5.1배가 증대되었다. 즉 남한의 經濟成長에 따른 國民所得의 增大와 市場經濟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政府介入 필요성의 확대로 인해 세입규모의 증대가 북한에 비해 9.6배나 높음을 알 수 있다.

## 2) 歲 出

北韓의 歲出構成은 社會주의 국가들에 공통되는 분류방식에 따라 人民經濟費와 社會文化施策費 그리고 軍事費와 政府機關 管理維持費로 나누어진다. 各 項目別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歲出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人民經濟費는 社會화된 企業 및 기관에 대한 지출이며 남한의 固定資本投資에 해당되는 基本建設投資와 流動資金의 추가분공급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人民經濟費에 대한 精確한 규모나 그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精確한 분석을 導出하기는 힘들지만 社會화된 公業과 農業·輸送·通信·建設部門을 대상으로 하여 重公業의 전략산업에 重點적인 투자에 偏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00)</sup>

둘째, 社會文化施策費는 教育·保健·社會保險·社會保障·學術研究·託兒所 經營費 등이 포함<sup>101)</sup> 되지만 다른 社會국가와 달리 出版事業·幹部養成·文化宣 傳費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102)</sup> 셋째, 軍事費는 國防에 관련된 경비로서 보통 人件費와 兵營維持費 그리고 軍裝備의 供給과 修繕費, 軍事施設



및 교육시설의 건설비와 유지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 慣例<sup>103)</sup> 이지만 그 내용은 고도의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군사비의 규모는 대체로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sup>104)</sup>

즉 북한은 세출구성에 있어 人民經濟費와 社會文化施策費에 軍事費의 상당 부분을 은폐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정지출 구성비와는 크게 다르며 병력유지비, 군사부문 투자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본 결과 총세출중 실질적인 군사지출구성비는 발표구성비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sup>105)</sup>

셋째, 蘇聯이나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의 관행에 의하면 機關管理維持費에는 警察費를 포함시키지 않으나 북한은 警察費 뿐만 아니라 안전사업비까지 포함하며 또한 중앙 및 지방정권기관의 행정관리비의 총괄을 지칭 한다.<sup>106)</sup> 이처럼 타 국가에 비해 총지출중 북한의 機關管理維持費의 비중이 낮은 원인은 경제비나 사회문화시책비에 轉嫁시키는 便法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sup>107)</sup>

한편 南韓의 歲出構造는 防衛費, 教育費, 社會開發費, 經濟開發費, 一般行政費, 地方財政交付金, 債務償還 豫備費 등으로 나누어지며, 1988년 일반회계세출 구조 비중을 분석할 때 사회 및 경제개발비가 42.9%로 가장 많고 방위비가 30.7%, 일반행정비가 9.9%, 지방재정교부금이 9.5% 등 순으로 나타났다.<sup>108)</sup> 남한의 세출을 경직성경비<sup>109)</sup>와 비경직성경비로 大別하여 볼 때 75:24로서 硬直性經費의 比重이 높다. 즉 政府活動의 확대가 재정팽창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북한 세출의 내부내용을 분석한 것이 [표 IV-25, 26]이다. 북한의 세출구성비를 살펴보면 人民經濟費, 社會文化費, 國防費, 管理費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歲出構成比 가운데 人民經濟費와 社會文化施策費에 軍事費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재정지출 구성비와는 다르게 분석되어야 한다. 즉 1965년의 경우 人民經濟費가 68.0%, 國防費

가 8.0%였으나 1970년에는 人民經濟費가 47.0%, 軍事費가 31.3%로 軍事費가 急激하게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1975년 이후는 人民經濟費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軍事費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1975년 이후 人民經濟費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北韓經濟의 成長은 鈍化되고 있으며 軍事費의 격감에도 불구하고 軍事力이 지속적으로 增強되어 오는 寄現象을 보여주었다.

[表 IV-25] 北韓의 歲出構成比率

(단위 : %)

년 도 구 분	1961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1989
세 출 총 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인민경제비	73.0	68.0	47.0	57.2	60.5	62.5	67.1	67.4
사회문화비	21.4	19.7	19.9	24.3	22.2	20.7	19.0	18.9
군 사 비	2.5	8.0	31.3	16.4	14.6	14.4	12.2	12.0
관 리 비	3.1	4.3	1.8	2.1	2.7	2.4	1.7	1.7

資料 : 國土統一院, 「北韓經濟 統計集」, (북한 발표치 : 1986) pp. 156~157

國土統一院, 「年度別 豫決算報告」에 의해 작성

한편 南韓의 歲出의 構成比 推移를 分析하면 開發費, 防衛費, 一般行政費, 地方財政交付金, 債務償還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비는 교육비와 사회개발 그리고 경제개발비로 구분되며 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순으로 나타난다. 이 개발비는 또한 투자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재정투자분에 해당되기도 한다.

간략하게 南北韓의 歲出構成比의 비교를 통해서 財政의 안정성에 대한 함축을 도출해보자. 물론 여기에는 발표된 통계치가 -특히, 북한의 군사비에서 보여지듯이- 갖는 비현실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남한에 있어서는 단연 개발비와 국방비가 壓倒的인 부문으로서 대략 70%~80%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양 부문간의 차이는 약 10%~15%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례 북한의 경우는 인민 경제비가 세출총액중 약 60%~70%를 계속 차지해 왔으며 군사비는 변화의 큰 폭에도 불구하고 75년 이후 15% 안팎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위의 統計數値를 基礎로 할 때, 군사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남한이 더 높으며 經濟關聯 세출과 關聯하여 살펴보다라도 남한의 비중이 한층 높다고 분석된다. 그러므로 歲出總額과 經濟關聯歲出額 대비 군사비의 비중이 높은 남한의 財政構造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의 不安定性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社會福祉部門 構成比는 衡平性의 比較에서 다루어짐).

[表 IV-26] 南韓의 歲出構成比率

구 분 \ 년 도	1970	1974	1978	1982	1986	1988
總 支 出	100	100	100	100	100	100
一 般 行 政	11.7	10.9	10.2	10.9	10.1	9.9
防 衛 費	23.2	29.3	37.0	34.5	31.7	30.7
開 發 費	51.5	41.0	42.9	44.5	44.4	42.9
地方財政交付金	12.3	8.0	7.0	7.6	9.4	9.5
債務償還 및 其他	1.3	10.8	3.1	2.3	4.8	6.9

資料：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9. p. 170

## (2) 貿易構造

南韓의 貿易規模는 政府의 外向的 발전전략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北韓은 內包的 發展戰略으로 漸增的인 성장을 보여왔다. 남한의 급속한 무역규모의 증대는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수출의 증대는 내수시장 공급의 감소로 인한 수요부족현상을 야기시켰을뿐 아니라 타산업부문의 생산감소로 인하여 산업간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sup>110)</sup> 그리고 수출증대를 위한 수입의 증대는 대외의존도를 深化시킴으로써 자립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었다.

한편 북한의 무역정책은 정부의 내포적 성장전략의 수단으로서 수입은 주로 공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재와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원자재 및 재화로 제한되었으며, 수출은 필요 불가결한 재화수입을 위한 外貨獲得源<sup>111)</sup>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남북한의 상이한 무역구조하에서 안정성 측면의 비교분석은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특히 무역구조에 있어서 안정성에 대한 비교는 支拂能力 및 수익성에 의한 財務構造와 대외의존도 등을 분석하여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북한의 경우 무역수지와 대외의존도의 성장성을 前提로한 安定性을 분석으로 代替하고자 한다.

### 1) 貿易規模

남한은 1962년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년 3월 “수출 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輸出立國”이라는 기본시책<sup>112)</sup>을 마련하였다. 이에 남한의 수출규모는 풍부한 노동력과 低賃金, 정부지원 정책과 換率의 현실화, 해외수요의 증대,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힘입어 1962년까지만 해도 0.6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1970년에는 8.4억 달러로 증가되고 1980년에는 212.5억 달러 그리고 1988년에는 606.9억으로 신장됨으로써 연평균 29.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원자재의 수요가 증대되고, 생산재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시설재 및 資本財의 需要 또한 增大되고 국민소득 증대에 의한 消費財의 增大 및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인한 시장개방 壓力등에 의해 수입규모 역시 크게 증가했다. 즉 61년 3.1억 달러에서 70년에는 19.8억 달러로 증가되었으며 1980년과 1988년에는 각각 222.9억과 518.1억 달러도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22.4%의 成長率을 보였다.

[表 IV-27] 南北韓 貿易規模의 推移比較

(단위 : 억불, %)

구분 년도	무역규모				수출				수입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61	3.57	-5.1	3.26	2.0	0.41	24.5	1.60	3.8	3.16	-8.0	1.66	1.2
1965	6.38	22.0	4.41	6.1	1.75	47.1	2.08	7.7	4.63	14.6	2.33	4.7
1970	28.19	15.2	8.05	15.6	8.36	34.2	3.66	19.3	19.83	8.8	4.39	12.8
1975	123.55	9.5	19.06	4.7	50.81	13.9	8.14	20.2	72.74	6.2	10.93	-16.2
1980	397.95	12.5	33.34	13.9	175.04	16.3	15.28	4.8	222.91	9.6	18.06	20.9
1985	614.18	2.6	30.70	12.4	302.83	3.6	13.50	0.7	311.35	1.6	17.20	23.6
1988	1,125.06	27.4	35.40	13.1	606.96	28.4	14.64	11.0	518.10	26.3	20.75	14.5

註 : 增加率은 전년비율임. 1988년 北韓의 수치는 1987년 수치임

資料 : 1)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各年호

2) 서진영, 「現代 中國과 北韓 40年」, 고려대학교 아세이문제연구소, 1989. p. 351

南韓의 對外貿易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對外指向의 政策으로 1988년의 貿易規模는 經濟開發計劃의 시행 이전년도인 1961년에 비해 무려 315배나 신장되었으며 年平均증가율은 12.0%로 分析되었다.

한편 北韓의 對外貿易은 50년대까지는 公産권과의 거래가 主宗을 이루다가 5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프랑스, 英國, 네덜란드 등 주요 先進國家들과의 교역으로 변화되어 1946년 0.23억 달러에서 1960년에는 3.2억 달러로 그 규모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70년에는 8.05억 달러, 80년과 87년에는 각각 33.34억 달러와 35.40억 달러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自力更生の 原則”을 고수한 北韓은 60년대까지 工業化를 위해 必須不可缺한 施設財와 不足한 原源材 등의 輸入<sup>113)</sup>을 중심으로 주로 社會主義國家들과 交易關係(90%)를 이루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그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첫째, 投資財源이 부족한 가운데 自體的 技術開發과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技術導入의 限界, 둘째, 共產圈國과의 雙務的 貿易에서 오는 物資交換의 問題,<sup>114)</sup> 셋

제, 中·蘇紛爭으로 야기된 蘇聯의 外資 및 技術援助의 중단으로 인한 7개년계획의 실패, 넷째, 國際情勢의 變化와 持續的 工業化 發展의 必要性 등으로<sup>115)</sup> 70년대부터는 西方國家들과의 交易이 증대되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북한의 輸入은 1961년 1.66억 달러에서 1970년에는 4.39억 달러, 1980년에는 18억 달러, 그리고 1987년에는 1961년에 비해 무려 20배나 증대한 20.75억 달러나 되었다. 그러나 輸出의 限界 및 外換保有高의 確保<sup>116)</sup>를 고려하지 않은 채 70년대 초반부터 西方諸國과의 대규모의 플랜트 및 技術協力과 導入 등을 추진함으로써 外債를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1975년에는 意圖적으로 輸入을 16.2%나 감소시켰다.<sup>117)</sup> 한편 輸入을 위한 外換保有高 確保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輸出은 연평균 9.6%로 증가되었으며 1961년 1.6억 달러의 수준에서 1987년에는 14.64억 달러로 增大되었다. 이러한 南北韓 貿易規模의 推移를 基礎로 규모증대에 따른 安定性의 比較分析을 위해 貿易收支를 살펴보면 [표 IV-28]과 같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南韓은 資源의 부족으로 인한 原資材輸入, 中間財產業의 沈滯와 産業의 高度化에 따른 資本財의 對外依存, 經濟 成長에 따른 農業部門의 沈滯로 인한 工業用 原料의 不足, 政府의 外資導入政策과 輸出主導型 政策으로 인한 市場開放의 壓力, 輸入原資材 價格의 上昇 등으로 貿易收支는 1985년까지 赤字現象을 보였다. 특히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1979-81년 사이 크게 심화되었으며 그 한 원인은 1974년-75년의 경우와 같이 石油波動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

한편 北韓은 1962년 中蘇紛爭의 勃發로 야기된 蘇聯과의 經濟協力の 악화 및 工作機械와 輕工業 設備 그리고 完成工場設備 및 부품의 수입감소<sup>118)</sup> 때문에 1966-67년을 제외하면 매년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수지의 적자가 가장 심화된 1974년에는 대외적으로는 中·蘇로부터 예정되었던 원조의 중단 내

[表 IV-28] 南北韓 貿易收支比較

(단위 : 억불)

구분 년도	수 출		수 입		무 역 수 지		총 무 역 규 모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1961	0.41	1.60	3.16	1.66	-2.75	-0.06	3.57	3.26
1962	0.54	2.24	4.21	1.29	-3.67	0.95	4.76	3.53
1963	0.86	1.90	5.60	2.30	-4.74	-0.4	6.47	4.20
1964	1.19	1.93	4.04	2.22	-2.85	-0.29	5.23	4.15
1965	1.75	2.08	4.63	2.33	-2.88	-0.25	6.38	4.41
1966	2.50	2.44	7.16	2.19	-4.66	0.25	9.66	4.63
1967	3.20	2.60	9.96	2.39	-6.76	0.21	13.16	4.99
1968	4.55	2.76	14.68	3.06	-10.13	-0.3	19.23	5.82
1969	6.22	3.06	18.23	3.89	12.01	-0.83	24.46	6.95
1970	8.36	3.66	19.83	4.39	-11.47	-0.73	28.19	8.05
1971	10.67	3.02	23.94	5.64	-13.27	-2.62	34.61	8.66
1972	16.24	3.99	25.22	6.39	-8.98	-2.4	41.46	10.38
1973	32.25	4.98	42.40	8.43	-10.15	-3.45	74.47	13.41
1974	44.60	6.77	68.51	13.03	-23.91	-6.26	113.11	19.80
1975	50.81	8.14	72.74	10.93	-21.93	-2.79	123.55	19.07
1976	77.15	6.58	87.73	8.28	-10.58	-1.7	164.88	14.86
1977	100.46	6.80	108.11	8.20	-7.65	-1.4	208.57	15.00
1978	127.10	8.66	149.72	9.26	-22.62	-0.6	276.82	17.92
1979	150.55	14.57	203.37	14.94	-52.82	-0.37	353.92	29.51
1980	175.04	15.28	222.91	18.06	-47.87	-2.78	397.95	33.34
1981	212.54	10.68	261.31	15.29	-48.77	-4.61	473.85	25.97
1982	218.53	12.36	242.51	16.20	-23.98	-3.84	461.04	28.56
1983	244.45	13.17	261.92	15.14	-17.47	-1.97	506.37	28.31
1984	292.45	13.33	306.31	13.91	-13.86	-0.58	598.76	27.24
1985	302.83	13.50	311.35	17.20	-8.52	-3.7	614.18	30.70
1986	347.15	13.19	315.84	18.12	31.31	-4.93	662.99	31.31
1987	472.81	14.64	410.19	20.75	62.62	-6.11	883.00	35.40

資料 : [表 IV-27]과 동일

지 減少, 中國의 對美 宥和政策 등 國際情勢의 變化, 對內적으로는 6개년계획의 수행과 급속한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술의 현실화를 위해 共產圈中心의 交易方式에서 벗어난 西方 先進國과의 交易必要性的 擡頭<sup>119)</sup>로 인하여 수출상의 문제 즉 外貨獲得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처럼 自力更生에 의한 경제의 성장을 추구한 北韓이 매년 貿易收支의 적자가 누증되는 데는 經濟計劃의 強行과 非彈力的인 수출입구조<sup>120)</sup> 그리고 자본재의 해외 의존 심화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貿易收支의 赤字는 일반적으로 對外債務에 의해 보전되며 외채의 증대<sup>121)</sup>는 國際經濟의 信用惡化와 나아가 국내경제의 폐쇄화 즉 저성장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은 외채의 절감을 위한 外換保有高 증대를 꾀하고, 기존의 무역수지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한 輸入의 減少는 經濟開發의 成果 및 國內 經濟의 惡影響을 認識한 것이며 동시에 북한은 소비절약의 強行과 觀光振興事業의 확대 그리고 합영법의 제정, 아프리카 등 북한의 수출상품이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제3의 국가들에 대한 輸出多邊化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와 문제점에 逢着하고 있다.

한편 南韓의 經濟는 國際原資材價格의 變動과 國際金利의 波動 그리고 國際景氣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안게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3低現象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유리하게 추진된 이래 무역이 흑자 상태로 전환됨으로써 구조의 안정기조위의 성장이라는 정책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 2) 對外 依存度

對外依存度란 貿易規模가 國民總生産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對外依存도가 심화되어 있는 경제는 그 만큼 對外經濟與件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經濟構造가 취약해질 뿐 아니라 안정성의 문제와 귀결된다. 상반된 무역구



조를 가진 남북한의 대외의존도를 분석한 것은 [표 IV-28]을 이용한 [표 IV-29]이다. 對外指向的 輸出戰略을 추구해 온 南韓의 貿易依存度는 1960년 19.18%에서 1970년에는 33.62%, 1980년에는 66%, 1988년에는 60년에 비해 3.46배 증가한 66.49%였으며 80년대 초반 부터는 다소의 감소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3低現象에 기인한 수출의 증가와 수입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表 IV-29] 南北韓 貿易의 對外依存度 比較

(단위: 억불, %)

구분 년도	국민총생산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1960	19.5	15.2	19.18	21.05	1.63	10.13	17.56	10.92
1962	23.2	20.2	20.51	17.45	2.32	11.09	18.15	6.36
1964	28.8	23.0	18.16	18.06	4.13	8.4	14.02	9.66
1966	36.7	24.1	26.32	19.23	6.81	10.13	19.51	9.09
1968	52.3	29.8	36.76	19.56	8.69	9.28	28.07	10.27
1970	79.9	39.8	33.62	17.31	10.46	9.19	24.82	11.03
1972	105.7	46.2	39.22	22.48	15.36	8.64	23.86	13.85
1974	185.5	72.9	60.98	27.16	24.04	9.29	36.93	17.88
1976	286.8	96.8	61.34	15.36	26.90	6.79	30.58	8.56
1978	519.6	133.2	53.28	13.51	24.46	6.50	28.81	6.95
1980	603.0	135.0	66.00	24.69	29.03	11.32	36.97	13.38
1982	693.0	136.0	66.53	21.00	31.53	9.08	34.99	11.91
1984	824.0	147.2	72.66	18.55	35.49	9.10	37.17	9.45
1986	951.0	174.0	69.71	17.99	36.50	7.57	33.21	10.42
1988	1,692	193.7	66.49	18.28	35.87	7.56	30.62	10.72
년평균 증가율	39.45	21.0	11.15	2.3	27.15	0.35	6.44	5.89

註 : 1) 北韓 88年の 수치는 87年 基準

$$2) \text{ 무역의존도} = \frac{\text{무역총액}}{\text{국민총생산}}, \text{ 수출의존도} = \frac{\text{수출총액}}{\text{국민총생산}}, \text{ 수입의존도} = \frac{\text{수입총액}}{\text{국민총생산}}$$

資料 : [表 IV-27]과 동일

한편 北韓의 貿易依存度는 經濟開發戰略에 의해 南韓에 비해 68년 이후 격차의 폭이 커지는 추세이며 年平均 2.3%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처럼 낮은 무역 의존도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內包的 成長戰略에 의한 발전 즉 경제구조의 안정성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북한은 오히려 수입을 대체할 자본의 부족과 수출상품의 한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脈絡에서 南北韓 輸出入 依存度를 분석하기 이전에 언급할 것은, 남한은 수출주도형 대외적 경제구조인 반면 북한은 대내적 경제구조 즉 무역의 역할이 경제의 성장을 위한 보조적 역할 밖에 하지 않으므로써 평면적 비교의 차원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수출입 의존도를 분석하면 남한의 수출의존도는 연평균 27.15%가 증가하여 1988년 현재 35.87%인 반면 북한은 연평균 0.35%이 증가율로 기록해오다 1980년 이후 소폭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처럼 南韓은 勞動集約的 商品輸出에서 資本集約的 商品의 輸出로 전환한 반면 북한은 수입을 위한 1차산업 중심의 수출에 중점을 두며 또한 國際競爭力의 악화로 대상국의 活路開拓에 상당한 苦衷을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南韓의 輸入依存度는 최근 약간의 減少現象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1984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北韓은 1984년에 끝난 제2차 7개년계획의 실패와 “1980년대 展望目標” 그리고 제3차 7개년계획의 目標達成을 위해, 生産施設 및 技術水準의 落後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안정성을 阻害한다는 인식하에, 機械類 및 經濟協力方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4. 衡平性

지금까지 우리는 현시점에서 이용가능한 統計資料를 基礎로 하여 南北韓 經濟發展의 성과를 成長性, 效率性, 그리고 安定性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부연하거니와 위의 비교연구는 통계수치의 분석이 가지는 限界와 畧을 충분히 고

한편 北韓의 貿易依存度는 經濟開發戰略에 의해 南韓에 비해 68년 이후 격차의 폭이 커지는 추세이며 年平均 2.3%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처럼 낮은 무역 의존도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內包的 成長戰略에 의한 발전 즉 경제구조의 안정성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북한은 오히려 수입을 대체할 자본의 부족과 수출상품의 한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脈絡에서 南北韓 輸出入 依存度를 분석하기 이전에 언급할 것은, 남한은 수출주도형 대외적 경제구조인 반면 북한은 대내적 경제구조 즉 무역의 역할이 경제의 성장을 위한 보조적 역할 밖에 하지 않으므로써 평면적 비교의 차원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수출입 의존도를 분석하면 남한의 수출의존도는 연평균 27.15%가 증가하여 1988년 현재 35.87%인 반면 북한은 연평균 0.35%이 증가율로 기록해오다 1980년 이후 소폭의 감소를 나타낸다. 이처럼 南韓은 勞動集約的 商品輸出에서 資本集約的 商品의 輸出로 전환한 반면 북한은 수입을 위한 1차산업 중심의 수출에 중점을 두며 또한 國際競爭力의 악화로 대상국의 活路開拓에 상당한 苦衷을 겪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南韓의 輸入依存度는 최근 약간의 減少現象을 보이는 반면 북한은 1984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北韓은 1984년에 끝난 제2차 7개년계획의 실패와 “1980년대 展望目標” 그리고 제3차 7개년계획의 目標達成을 위해, 生産施設 및 技術水準의 落後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안정성을 阻害한다는 인식하에, 機械類 및 經濟協力方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4. 衡平性

지금까지 우리는 현시점에서 이용가능한 統計資料를 基礎로 하여 南北韓 經濟發展의 성과를 成長性, 效率性, 그리고 安定性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부연하거니와 위의 비교연구는 통계수치의 분석이 가지는 限界와 畧을 충분히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될 南北韓 經濟의 衡平性 比較研究는 그 통계자료의 자의성 뿐만 아니라 비교기준 및 해석상의 관점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의 세가지 기준보다는 더 크나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흔히 社會主義 經濟가 成長性이나 效率性의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보다 다소 뒤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배와 연관된 형평성의 기준에서는 대체로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이 지금까지 강하게 偏在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기준의 비교분석은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추진해 왔듯이 統計數値에 의존하여 實證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止揚하여 衡平性의 기준에서 北韓에 관한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그 연장선 위에서 南韓의 실태를 상관적으로 고찰해 갈 것이다.

그럼 먼저 南北韓의 賃金水準의 격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르크스主義 階級理論에서는 生産手段에의 관계가 여타의 사회적 속성들을 결정짓는 궁극적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통해 所有關係의 전환을 가져올 때, 곧 私的 所有를 撤廢하고 社會주의적 제도인 全民적 所有를 확립하게 되면 階級矛盾은 해소되고 平等的 社會關係가 수립될 수 있다고 가정해왔다.<sup>122)</sup> 그러나 역사가 입증해왔듯이 生産手段의 私有制度를 消滅시킴으로서 社會주의 국가들이 所得不平等, 특히 所得格差 사이의 偏差가 자본주의보다는 적지만 生産수단의 社會化가 곧바로 社會적 불평등의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 못했다.

북한 사회의 계층별 임금구조는 다음의 표에서 기본적인 輪廓을 이끌어 낼 수 있다.

[表 IV-30] 북한의 階層別 賃金(月給)

區 分		임금(원)	비 고
사 무 원	部 長 級	300~350	黨政治委員, 政務院 및 黨部長, 特級 企業所 支配人, 科學院院士 등 도간부 및 軍단위 책임자
	지 방 단 위	100~150	
	一 般 사 무 원	70	
기술 자	책 임 자 급	150~200	1~2級 企業所·工場등의 支配人 및 技師長
	5 등 급 기술자	75~78	
노 동 자	중 노 동 자	130	鑛夫·製鐵·製鍊工 一般機械 運轉仕 一般 經勞動者
	경 노 동 자	90	
	기 타	60~80	
교 원	大 學	200~250	
	一 般	80	
군 인 장 교	장 성 급	250~490	
	영 관 급	120~215	
	위 관 급	84~110	
기 타	의 사	120~250	※ 평양산원의 경우
	배 우	200~300	※ 인민배우, 공훈배우 등

資料 : 國土統一院, 북한개요(1986), p. 9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60원에서 130원 정도에 머무는 반면, 事務員 및 軍人(將校)의 그것은 각각 70원에서 350원, 그리고 84원에서 490원까지 분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60원)과 國家官僚의 그것에는 약 5~8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만약 이 통계치가 정확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자들의 生活 및 福祉를 최우선시 하는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이데올로기적 기준을 재조명하게끔 만든다.

勞動部の 資料에 의거할 때, 南韓의 職種別 賃金水準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表 IV-31] 南韓의 職種別 賃金水準  
Monthly Wage Levels by Occupation

(단위 : 원)

	평 균 Average	전문기술직 Professional & Technical workers	행정관리직 Administrative & Managerial Workers	사무직 Clerical & Related Workers	판매직 Sales Workers	서비스직 Service Workers	농림·수산업 및 수렵직 Agri, Forestry, Hunting, Fisheries & Related Workers	생산직 Production & Related Workers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1975	46 654	92 400	159 399	74 679	42 964	36 052	30 332	34 820	23 385	0.502
1980	173 150	321 530	517 432	211 678	116 815	131 381	144 426	130 848	84 297	0.487
1981	209 641	368 032	587 027	260 034	153 543	159 915	188 324	159 755	95 916	0.458
1982	244 819	446 499	635 631	291 215	246 002	188 254	260 530	184 183	109 696	0.448
1983	271 178	486 811	693 165	312 963	261 708	204 372	—	201 998	121 149	0.447
1984	294 980	524 227	750 645	341 398	286 194	224 666	310 996	223 011	125 994	0.427
1985	314 213	552 851	804 328	362 590	322 270	235 025	337 550	236 365	135 288	0.431
1986	345 242	595 859	832 373	392 148	339 609	251 889	349 458	261 786	142 468	0.413
1987	378 560	679 619	897 181	421 827	342 361	275 780	392 877	292 790	153 449	0.405
평균 임금=100										
1975	100.0	198.1	341.7	160.1	92.1	77.3	65.0	74.6		
1980	100.0	185.7	298.8	122.3	67.5	75.9	83.4	75.6		
1981	100.0	175.6	280.0	124.0	73.2	76.3	89.8	76.2		
1982	100.0	182.4	259.6	119.0	100.5	76.9	106.4	75.2		
1983	100.0	179.5	255.6	115.4	96.5	75.4	—	74.5		
1984	100.0	177.7	254.5	115.7	97.0	76.2	105.4	75.6		
1985	100.0	175.9	256.0	115.4	102.6	74.8	107.4	75.2		
1986	100.0	172.6	241.1	113.6	98.4	73.0	101.2	75.8		
1987	100.0	179.5	237.0	111.4	90.4	72.8	103.8	77.3		

資料 :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査」

1987년의 統計數値를 기준으로 하여 平均賃金 100을 중심으로 고찰해 볼때 가장 낮은 임금이 서비스 직종으로서 72.8이며, 이에 반해 가장 높은 임금은 行政管理職의 237.0이 된다. 따라서 이들 직종간의 격차는 약 3배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 임금수준의 격차만을 비교해 본다면 남북한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남한사회의 임금격차가 수치상으로는 작게 나타나기도 한다.

私有財産制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임금이 가지는 의미는 체제의 성격이 다른 남한 사회와의 그것과는 분명 다르다. 즉 소위 '社會的 賃金'을 감안한다면 개인적 임금소득이 消費生活類型, 곧 삶의 기회를 조건지우는 유일한 變數는 아니며<sup>123)</sup> 북한에서의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는 配給體系를 통해서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도 食糧配給이나 住居施設의 이용에는 엄연히 階級別·階層別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 남한 사회에서 所得 不均衡을 둘러싼 衡平性 問題는 經濟開發計劃이라는 베일에 다소 가려져 있었으나 70년대 중반이후부터 先成長·後分配의 高度成長政策의 副産物로서 현시화 되어 왔다. 특히 대기업의 급성장과 경제력 집중, 농가비율의 감소, 학력별·직종별 임금격차의 확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득분배가 더욱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sup>124)</sup>

더군다나 제6공화국 출범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각성이 일정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균형을 강조하는 조순 부총리의 經濟內閣이 구성되고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부동산투기의 근절 등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는 듯 했으나 이후 여러 형태의 굴절과정을 거치면서 균형 및 형평에 관한 정책은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끝으로 南北韓 각 政府의 社會保障費 支出을 검토함으로써 衡平性 비교에 관한 이 章을 끝맺으려 한다. 먼저 북한의 歲出(支出)部門의 區分은 남한의 그것보다 간단·명료하다. 앞부분의 財政構造 비교에서도 보았듯이 북한의 歲出部門은 人民經濟費, 社會文化費, 國防費, 管理費 등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두번째 항목인 社會文化費인 바, 이 항목에는 教育費, 保健費, 體育費, 社會保障費, 學術研究費, 社會保險費, 託兒所 經營

費 등이 포함된다.

한편 南韓 政府의 歲出分類는 이 보다 다소 복잡한데, 社會福祉部門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은 教育, 保健, 社會保障 및 福祉, 그리고 娛樂·文化와 放送 및 新聞 등이다.

이런 分類를 염두에 두면서 그 지출액 및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도표가 만들어진다.

[表 IV-32] 社會保障 支出費의 比較

(南韓: 10億원)  
(北韓: 萬원)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南韓 支出額	1241.7	1794.5	2122.5	3060.5	3041.4	3211.7	3580.5	4080.8	5056.3	5670.6
比 率(%)	20.7	23.4	20.1	26.3	24.9	23.9	24.1	25.6	27.8	27.0
北韓 支出額	401,005	417,434	446,654	463,180	405,413	521,819	565,746	577,060	568,608	621,557
比 率(%)	23.6	22.2	22.0	20.9	20.2	19.9	20.7	20.3	18.9	19.0

出處: 南韓은 財務部 國庫局 결산관리과, “중앙정부세출의 기능적 분류, pp. 506-507, 한국 통계연간(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

北韓은 서진영편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아세아문제연구소, 1990), pp. 326-328

위의 표에서 보듯이 歲出額의 構成比로 볼 때 南韓의 政府가 社會福祉部門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통계수치에 근거한 비교는 비교적 남한의 衡平性에 유리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바, 이는 자유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는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 한국의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여타 국가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諸國家들보다는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up>125)</sup> 하지만 이 글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국가별 비교에는 자료의 信賴性 問題, 資料의 比較可能性 問題, 概念의 差異, 期間上의 差異, 所得 測定單位의 差異, 不平等 指標의 選擇의 問題 등등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요한다.<sup>126)</sup>



## 第5章 南北韓 經濟發展, 要約 및 展望

지금까지 우리는 分斷 이후 최근에 이르는 期間 동안의 南北韓 經濟發展過程을 고찰해 보았다. 序論 部分에서도 言及하였듯이, 相異한 經濟體制속에서 각기 성격이 다른 經濟開發政策과 經濟發展戰略을 추구해온 南北韓의 經濟發展成果를 비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可及的이면 平面的인 비교를 지양하여 동태적인 시각에서 각 체계의 長短點과 그 經濟開發成果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研究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可用資料의 限界로 인해 일정한 限界에 부딪힌 점도 인정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문제점은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經濟體制와 經濟發展成果에 대한 일반적인 比較研究가 갖는 限界와도 그 脈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에서 南北韓의 經濟開發計劃의 基本方向과 그 成果를 중심으로 比較한 뒤, 우리가 설정한 네가지 基準, 즉 成長性, 效率性, 安定性, 그리고 衡平性에 따라 그 發展成果를 再照明하고자 했다.

北韓의 經濟開發計劃은 1947年 1個年計劃 이래 최근 제3차 7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9차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南韓은 1962년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최근 6차계획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쳐 추진되어 왔다. 이를 각 段階別로 分類해보면 北韓은 社會主義體制 형성 및 移行完成期(분단전후시기), 社會主義體制確立期(60년대), 社會主義體制的 停滯期(70년대), 新政策方向 摸索期(80년대)로 각각 특징을 가지며, 南韓은 50년대 外國원조 경제기를 거쳐 自立經濟基盤 造成期(60년대), 自立經濟基盤 確立期(70년대), 自立經濟確立 및 先進化期(80년대)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경제자료에 의거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 [표 V-1]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表 V-1] 南北韓 經濟規模 및

산별	구분	단위	남북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경제 총량	인구	萬名	남	2,498.9	2,612.5	2,763.1	2,912.2	3,046.9	3,224.1	3,650.5	3,469.2
			북	1,078.9	1,117.9 <sup>6)</sup>	1,156.8 <sup>7)</sup>	1,040.0 <sup>1)</sup>	1,076.0 <sup>1)</sup>	1,400.2	1,464.0 <sup>6)</sup>	1,503.2 <sup>1)</sup>
	1인당 GNP	\$	남	94.4	96.1	107.2	125	169	248	316	535
			북	137.0	179.0	194.0	192	225	286	316	461
	GNP	억불	남	19.5	23.2	28.8	36.7	52.3	79.9	105.7	185.5
			북	15.2	20.2	23.0	24.1	29.8	39.8	46.2	72.9
	경제 성장율	%	남	11.6	20.9	42.4	12.5	29.0	24.5	22.3	40.0
			북	17.7	11.9	7.3	1.8	14.6	27.7	12.8	15.9
	재정 규모	억불	남	0.64	6.79	2.94	5.20	9.18	13.34	17.38	20.86
			북	7.66	10.62	13.29	13.19	18.73	23.35	28.75	40.81
	군사비	억불	남	2.26	1.57	0.98	1.5	2.3	3.24	4.36	6.13
			북	3.07	4.28	5.64	6.23	8.13	9.88	10.86	14.6
농수 산업	경지 면적	만ha	남	197 <sup>1)</sup>	206.3	217.1	229.3	231.9	229.8	224.8	223.8
			북	198.3 <sup>1)</sup>	199	198	200	202	203	205	207
	곡물 총생산	만톤	남	300 <sup>2)</sup>	503.2	664	703.5	630.2	693.7	673.8	689.5
			북	127 <sup>2)</sup>	335	344	365	387	398	414	428
	쌀생산	만톤	남	184.8 <sup>3)</sup>	301.5	395.4	391.9	319.5	393.9	395.7	444.5
			북	72.3 <sup>3)</sup>	127	121	130	138	148	163	169
	수산물	만톤	남	34.3	47.0	60.0	70.2	85.2	93.5	134.4	202.6
			북	46.5	60.6	68.7	76	84.1	93.1	106.6	122
광업 및 에너지	석탄	만톤	남	535	744.4	962.2	1,161.3	1,024.2	1,239.4	1,240.3	1,526.3
			북	1,176	1,320	1,440	2,000	2,655	2,750	2,800	3,000
	철광석	만톤	남	39.2	47	68.5	80.7	84.1	60.0	41.4	49.3
			북	310.8	355	386	540	580	516	523	707
	정유 능력	만 B/L	남	—	1,278	1,278	4,198	7,848	14,418	15,878	15,878
			북	—	—	—	—	—	723	723	723
	발전설비 용량	만 kw	남	7.7 <sup>4)</sup>	43.4	59.7	79.7	127.4	250.8	387.2	452.3
			북	80.5 <sup>4)</sup>	179	217	288	280	339	373	409
	제강 (粗鋼기준)	만톤	남	5.01	14.1	12.92	22.4	37.2	48.1	58.5	193.5
			북	66	122	185	205	205	271	217	239

生產量 總體的 比較 推移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3,584.9	3,696.9	3,812.4	3,932.6	4,040.6	4,105.6	4,156.9	4,208	4,197	4,238.0
1,616.0 <sup>(11)</sup>	1,697.8 <sup>(10)</sup>	1,769.6	1,875.0 <sup>(11)</sup>	1,960.0 <sup>(12)</sup>	1,975.6	2,019.0	2,069	2,103	2,135.5
800	1,406	1,589.0	1,773	2,044	2,047	2,296	2,826	4,040	4,968
585	784	758	736	762	765	860	936	980	987
374.2	519.6	603.0	693.0	824.0	834.0	951.0	1,186	1,692	2,101.0
106.4	133.2	135.0	136.0	147.2	151.4	174.0	193.7	206.0	210.9
35.5	9.7	-5.2	5.4	8.4	5.4	12.5	12.0	12.2	6.7
8.6	5.6	3.8	4.8	3.9	2.7	2.1	3.3	3.0	2.4
43.95	73.11	111.83	123.71	133.86	140.8	156.5	195.3	252.3	328.4
57.33	76.04	105.23	104.77	110.83	112.5	127.3	140.6	147.3	149.7
14.54	25.5	37.0	42.4	42.4	43.0	48.9	59.8	78.4	91.8
21.35	24.9	33.9	32.4	34.2	35.0	39.3	42.2	44.2	44.9
223.8	222.2	219.6	218.0	215.2	214.4	214.3	214.3	213.8	212.7
208	210.4	210.4	213.6	213.6	214.0	214.0	214.0	214.1	214.0
817.7	821.2	532.4	680.4	731.5	699.0	677.4	668.7	729.9	716.0
443	438.2	371.3	545.9	560.0	503.0	482.5	495.2	521.0	548.2
521.5	579.7	355	517.5	568.2	562.6	560.7	549.3	605.3	589.8
178	178.3	124.5	201.7	221.4	201.0	200.1	203.4	209.9	215.9
240.7	235.4	241.0	264.4	291.0	310.3	366.0	333.2	320.9	331.9
189.7	160	170	197	233	242	237	212.3	214.6	218.9
1,642.7	1,805.4	1,862.4	2,011.6	2,137.0	2,254.3	2,475.0	2,427	2,429	2,078.5
3,520	2,738	3,027	3,345	3,600	3,750	3,750	3,900	4,070	4,330
63.9	58.7	54.5	55.3	55.4	62.5	56.3	56.5	66.6	67.7
735	835	835	835	850	980	--	--	1,030	1,030
15,878	21,170	23,360	28,835	28,835	28,835	28,835	28,835	28,835	--
723	728	2,169	2,531	2,531	2,531	2,531	2,531	2,531	--
481	691.6	939.1	1,030.4	1,419.0	1,614	1,806	1,902.1	1,994.4	2,099.7
431	501	501	546	591	596	610.7	637.7	690.2	690.2
269.8	313.8	571.2	563.6	501.4	485.1	1,584	1,830.0	2,166	2,220.6
342	382.86	398.3	403.25	429.68	430	430	481.0	504	594.0

[表 V-1 계속]

산별	구분	단위	남북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공업	화학비료	만톤	남	1.3	8.1	14.1	8.8	49.3	61.3	67.0	76.3	
			북	11.2	15.6	15	14	18	30	35.6	42.3	
	시멘트	만톤	남	43.1	79	124.2	188.4	357.2	578.3	548.5	784.3	
			북	229	238	260	250	300	400	420	485	
	선철	만톤	남	1.32	-	0.13	2.1	1.8	1.1	0.1	98.7	
			북	120	125	144.0	154.0	164.0	206.0	206.0	244.0	
	직불	억m	남	-	-	-	-	-	-	-	-	-
			북	1.89	2.56	2.69	-	-	4.0	-	-	
	자동차	만대	남	-	-	-	1.74 <sup>5)</sup>	3.57	6.31	6.31	6.31	
			북	0.31	0.36	0.45	0.63 <sup>5)</sup>	0.7	1.15	1.55	2.1	
무역규모	수출	억불	남	0.33	0.55	1.19	2.50	4.55	8.4	16.24	44.60	
			북	1.54	2.24	1.93	2.46	2.77	3.7	3.99	6.77	
	수입	억불	남	3.44	3.90	3.65	7.16	14.63	19.84	25.22	68.51	
			북	1.66	1.29	2.22	2.42	3.06	4.39	6.39	13.03	
	외채	억불	남	-	-	-	-	11.99	22.45	35.89	59.37	
			북	-	-	-	-	-	-	-	-	
수송	철도총연장	Km	남	4,584	4,696	4,780	5,049	5,319	5,500	5,507	5,590	
			북	4,233.1	4,195.6	4,270.8	4,348.6	4,348.6	4,287.4	4,522.3	4,590.7	
	도로총연장	Km	남	2.72	2.72	2.81	3.45	3.50	4.02	4.29	4.42	
			북	1.98	1.99	2.01	2.02	2.03	2.04	2.05	2.26	
	항만하역능력	만톤	남	-	-	-	-	-	-	-	-	
			북	-	-	-	-	-	-	-	-	
	자동차보유	만대	남	3.07	14.56	17.75	21.9	27.53 <sup>14)</sup>	-	-	-	
			북	1.96	-	-	-	-	-	-	-	

註 : 1) 1950년 수치, 2) 1946년, 3) 1945년, 4) 1946년, 5) 1967년 생산능력,

9) 조선중앙연감(1986, p. 180)에 의거 역산 10)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연구소 추계,

13) 조선중앙연감(85 p. 227), 14) 67년 보유대수, 국토통일원, 남북한 총력추세 비교,

資料 : 1)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1946~85), 1986

3)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9

5)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6~1987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86.0	136.8	133.4	129.8	125.6	127.3	130.0	146.0	370.0	-
50.3	61.1	70.9	77.0	77.0	80.0	70.2	70.2	70.2	70.2
1,187.3	1,513.3	1,581	1,788.7	2,041.3	2,042.4	2,986.0	2,986.0	3,046.0	3,635.0
545	777	807	857	892	904	904	904	977.5	1,177.5
193.7	274.1	557.7	844.5	876.3	883.3	883.3	1,167	1,451	-
311.3	338.8	346.6	409.4	507.6	507.6	508	513	517	517
-	-	-	-	-	-	60.0	55.0	55.0	52.6
5.2	5.8	-	-	8.4 <sup>13)</sup>	-	6.0	6.4	6.6	6.8
12	20.5	35	33.7	33.7	48.9	65.0	146.9	170.0	178.3
2.5	2.9	3.0	3	3	3	2	2	1.8	3.3
77.15	127.11	175.04	218.53	292.45	302.83	347.10	472.80	607.0	614.1
7.28	10.23	15.63	15.25	13.39	13.50	14.90	16.70	19.90	19.46
87.74	149.72	222.92	242.51	306.31	311.35	315.80	410.2	518.10	568.1
8.00	10.61	18.62	16.98	13.91	17.20	21.10	23.9	31.60	28.45
105.33	148.71	271.7	370.8	430.5	467.6	445.1	356.0	312.0	294.0
-	-	-	30.0	-	-	40.6	52.1	52.0	67.8
5,653	5,788	6,007	6,113	6,168	6,299	6,324	6,340	6,456	6,437
4,590.7	4,602.7	4,650.2	4,660.2	4,712.2	4,712.2	4,549.0	4,703	4,927	5,024
4.55	4.59	4.69	5.39	5.10	5.23	5.36	5.47	5.68	5.64
2.07	2.09	2.10	2.10	2.17	2.17	2.20	2.20	2.30	2.30
-	-	-	-	-	-	15,068	-	17,077	18,992
-	-	-	-	-	-	3,390	-	3,490	3,490
-	38.45	-	-	-	-	130.9	-	203.5	266.0
-	13.77	17.2	19.3	21.0	-	22.9	-	24.8	26.0

6) 1960년과 1963년 平均數值, 7) 1963년, 8) 朝鮮中央年鑑(1986, p. 180)에 의거 역산

11)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Dec, 1984, 12) Military balance, 1986,

1979, p. 285

2)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各年號

4) 經濟企劃院, 朝鮮中央年鑑, 各年號

6) 國土統一院, 北韓 經濟綜合評價, 1990. 9

첫째, 국민총생산은 60년대 초반 남북한이 비슷한 樣相을 띠었지만 南韓은 政府主導的인 輸出指向의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제3세계국가 중에서도 그 성과가刮目할 만하며 북한의 경우 重工業優先政策과 外延的 成長政策 追求로 비록 남한에 비해서도 相對的으로 떨어지지만 최소한 70년대 초반까지는 소기의 目標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의 격차는 1970년에는 2배, 1980년대에는 4.5배, 1989년에는 10배의 차이로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農業部門의 耕作面積은 地形的인 특성으로, 남한은 논면적, 북한은 밭면적이 각각 우위를 가지고 동시에 비슷한 경작규모를 나타내고 있었다. 1950년대 社會的 混亂期를 겪은 남한은 60년대 農業構造改善政策과 70년대 새마을운동 등 논면적의 區劃整理 및 干拓事業 등으로 耕作面積이 북한에 비해 80년대 초반까지는 우세했으나 高度成長에 따른 都農間의 경제적·사회적 격차심화 및 政府정책(농어촌 소득원개발)으로 경작면적의 工場敷地化 내지는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감소현상에 있는 반면, 北韓은 重工業優先政策과 농업부문의 동시발전 즉 중공업정책의 성과실현을 위한 持續的 耕作규모 확대의 농업정책으로 소폭의 증가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곡물총생산은 북한의 水利化, 化學化, 機械化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비록 60년대 초반까지는 농업구조의 小作化와 豫속화의 개선 등으로 북한의 농업성장률이 훨씬 높았지만 이후 농업의 협동화 및 유인제도 등의 문제점으로 다소의 沈滯期를 겪었던데 기인한다.

셋째, 지하자원의 매장량과 생산시설의 우위로 광업 및 에너지 그리고 공업의 생산능력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60년대 초반까지는 절대적 우위였다. 그러나 설비의 老朽化, 대체설비자원의 부족, 기술수준의 停滯, 노동투입에만 의존된 외연적 성장책, 그리고 자력갱생에 의한 공업화의 한계를 표출시킴으로써 생산능

력 및 생산량의 증가율은 정체 내지 微微한 성장을 나타낸 반면 남한은 부존자원의 결핍, 내수시장의 한계 등으로 外資導入에 의한 공업화와 輸出主導成長政策에 힘입어 상당한 경제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自力更生에 의한 外延的 成長戰略 즉 貿易이 役割을 내부경제의 성장을 위한 補助的 기능으로 採擇한 북한과 수출주도형 경제기반 및 구조를 가진 남한과의 비교는 그 경제의 규모와 성장을 등에서는 큰 격차를 보여왔지만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성 측면의 분석에서 볼 때, 특히 무역의존도에서는 오히려 남한이 북한에 비해 다소 불안정하다고 평가 되었다. 그러나 남한은 비록 80년대 초반까지는 외채의 累增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경제구조 전반의 문제에 逢着하였지만 수출지향적 경제가 가지는 利點(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3低現象)과 그 간 이룩한 技術集約度 그리고 經營戰略의 노하우 등으로 외채의 漸增的 감소 추세와 함께 新興工業國의 기반을 다져온 반면 북한은 외채의 누증, 무역구조의 跛行性, 그리고 나아가서 自力更生에 의한 工業化 成長의 한계점을 노정시킴으로써 경제전략의 전반적인 노선을 재검검할 필요성에 직면해 왔다.

成長性和 效率性의 側面에서는 북한에 비해 남한이 상대적인 優位性을 確保해왔다. 이 현상은 蘇聯經濟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서 중공업 및 생산재 부문, 그리고 資源의 合理的 配分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需要·供給間의 不均衡, 특히 勞動이나 費用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관심의 결여, 所得과 供給間의 不均衡現象 및 사회주의적 유인제도의 한계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sup>127)</sup> 북한경제 역시 이러한 사회주의경제의 정체성과 기본적인 패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自力更生 및 主體思想에 입각한 경제적 自主路線이 초래한 경제적 폐쇄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장애에 직면해 있는 듯하다.

成長性和 效率性의 비교가 資本主義 경제체제에게 다소 유리해질 수 있는 內

在的인 기준을 포함했다면 안정성 및 형평성의 측면은 그 反對給付的인 논리에서 社會主義經濟에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수출주도 성장정책이 경제의 규모와 성장율을 높이는 데는 아주 유효한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全産業부문간의 均衡이나 安定性, 그리고 전계층간의 衡平性 측면에는 마이너스가 될 소지가 있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개발계획의 성격으로 인한 당연한 歸結로서 남한의 대외의존도가 한층 높게 나타났으며 재정부문에 있어서도 (일단 통계자료에 의존한다면)南韓의 國防費 支出比重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國民總生産額 對比 국방비 지출비용은 남한이 훨씬 낮게 나타나겠지만 높은 歲出構成比도 일단은 재정불안정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남한의 刮目할 만한 경제성장과 엇갈리는 부문이 바로 형평성의 분야이다. 所得不均衡, 不動產投機, 住宅問題, 金融實名制 등 絶對貧困層의 增加趨勢 등과 연관되어 남한사회의 형평성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逆說的이게도 통계수치상의 비교를 통해 볼 때, 賃金水準이나, 社會保障費 지출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더욱 유리하다는 관찰이 나왔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지는 앞으로의 北韓社會研究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비교의 시각을 좀 더 확대시켜 논의를 해보자. 즉, 南韓이 經濟發展모델과 그 발전성과는 물론 입장에 따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야기시켰지만 대체로는 제3세계 경제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인정받아왔다. 예를 들어, 과거 라티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輸入代替産業化戰略의 실패와 대비되어서 남한이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輸出主導成長政策은 그 당시의 劣惡한 産業的 기반 및 부존자원의 극심한 缺乏 등을 고려할 때 아주 효율적인 발전전략으로서 평가받을 근거를 제시했음은 물론 NICs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한 構成因子가 되게 했다.

한편 북한 역시 전쟁으로 인한 産業的 토대의 거의 全的인 廢墟化, 그리고 이후 전쟁의 위협과 그 준비로 인한 경제자원의 동원이라는 조건 이하에서 自力更生모델에 입각하여 독특한 重工業優先政策을 수행한 결과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산업적 토대를 건설해내는 刮目할 만한 성과를 이룩해 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남한의 경제발전은 지나친 대외의존도, 그리고 산업간, 都農間, 계층간의 불균형문제 등을 낳았으며, 북한 역시 경공업의 상대적 낙후, 기술혁신 및 투자유치의 문제, 경제적 유인제도의 한계와 연관된 경제전반의 動態的 효율성의 결여 등의 문제를 수반해왔다.

특히 북한의 경우 1974년 合營法의 도입 등으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띠어왔으며, 특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수교, 그리고 남북한 경제교류 등을 통하여 경제문제의 活路를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內包하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갈등, 인센티브제도의 한계 등으로 질적인 전환이 용이하지 않는 형편이다.

이상과 같이 解放以後 남북한의 경제발전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獨立을 爭取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先例 내지 모델로서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構造的 모순점들도 동시에 노정해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 자체가 바로 남·북한이 그 상대방의 장점을 얼마나 발전적으로 수용·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런 延長線속에서 남북한 경제교류도 相互補完的인 각도에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 【註】

- 1) 김수근, “남북한 경제의 비교,” 『통일논총』, 제5집(숙명여대), p.78.
- 2) 강문구, “고르바초프 사회주의의 문제제기,” 『광장』 (1990년 여름), p.82.
- 3) Phillip Hanson, “East-West Comparisons and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Soviet Studies*(January, 1971), pp. 327-343 : 정상훈,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5.
- 4) 정상훈, 上揭論文, p.7.
- 5) 이태욱 · 이상우, “남북한경제의 상극성과 상보성 연구,” 『동아연구』, 제16집(1988. 12), pp.2-3
- 6)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p.14.
- 7) 정상훈, 上揭論文, pp.5-6.
- 8) 경제체제의 구분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와 자원의 분배방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존하는 경제체제를 유형화시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명령경제(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대별된다.  
김영봉, 『경제체제론』 (박영사, 1987), pp.59-60.
- 9) 모든 사회주의 경제개발전략에서 1960년대까지 중시한 성장전략이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정치적 합목적성을 경제적 합리성보다 우선하여 당성과 혁명성을 강조하면서 의욕적인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을 시키는 성장방법이다. 이태욱, “북한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북한경제』 (을유문화사, 1990), pp.21-24.
- 10) 피구(A.C. Pigou)에 의하면 국민후생이란 국민소득의 증대, 소득분배의 형평 및 안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11) 박대근,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박영사, 1987), p.62 참조.
- 12) 계획과 집행간에 차질이 발생하면 첫째, 순위변경으로 자원투입을 조정한다. 둘째, 보다 우선 순위가 낮은 부분에서는 노력경쟁운동과 같은 수단을 이용한다.
- 13) 오관치, “경제계획의 전개과정과 성과,”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1990), pp.124-125.
- 14) 국토통일원, 『남북한 총력 추세 비교』 (1979), p.216.
- 15) 김대근,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창작사, 1987), p.170-171.
- 16) 신승철, “개혁, 개방, 그리고 합영법”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1990), pp.214-219.
- 17) 김이태, 『현대 한국경제론』 (법문사, 1988), pp.88-102.
- 18) 1946년 3월 북한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 시행으로 전토지의 54%를 몰수하였으며, 동년 8월 주요산업의 국유화 법령 발표로 전체산업의 90%가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평화통일 연구소, 『북한개요』 (1986), p.149.
- 19) 『로동신문』, 1973, 9. 10일자.
- 20) 해방과 더불어 자행된 일본인의 파괴행위의 현황은 다음 책을 참조바람.  
Anna Louise Strong, “Industrial Workers in North Korea,” *Soviet Russia Today*, 1948.
- 21) 서남원,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소, 1971), p.60
- 22)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집(1988), p.76.
- 23) 국토통일원 『북한주요경제일지』 (1983), p.42.
- 24)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집(1988), pp.138-140.

- 25) 上掲書, pp.152-154.
- 26)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8), p.48.
- 27) 북한의 전쟁피해 상황은 다음 책을 참조하기 바람.  
김한길, 『현대조선사』 (의문출판사), p.364
- 28)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1집(1988), pp.662-684.
- 29) 서남원,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p.87.
- 30) 불가리아 : 15.9%, 체코 : 10.5%, 동독 : 8.7%, 중국 : 18.0%, 소련 : 11.3% 등 자세한 것은 다음 책을 참조바람.  
竹濃祥一良, “사회주의 경제론,” 제2판 『경제학 전집』, 제31권.
- 31) 김동원,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의 성격과 경제개혁 전망,” 『아시아 연구』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89), pp.113-114.
- 32) 上掲書, pp.114-115.
- 33) 이남현 역, 『북한경제입문』 (청년사, 1988), pp.250-255.
- 34) 1960년대 중·소대립의 격차, 쿠바사태, 베트남전쟁, 중국의 문화대혁명 등 북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35) 김이태, 『현대 한국경제론』 (법문사, 1988), pp.126-127.
- 36) Tai Sang An, “North Korea, a Political Hand Book,” 1987, Joseph S. Chung,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Capacities,” *Asian Perspective*. Vol. 11., No. 1(1987).
- 37) 당시 값싼 원유와 원자재 및 세계경제의 높은 성장, 그리고 세계적인 자유 무역사조 등을 들 수 있다.
- 38) 경상가격, 국민총생산은 억불, 1인당 국민총생산은 달러.
- 39) 6개년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김일의 보고, 『로동신문』, 1970년 11월 14일자.

- 40) 김수근, “남북한 경제력 비교,” 『통일논집』, 제5집(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88), pp.83-90.
- 41) 구천서 역, 『한반도문제의 새로운 인식』 (온누리, 1987), p.206 : 關實治, 『北朝鮮 第二次七年か計劃の構想と問題點』 (世界經濟評論, 1978. 3), p. 113.
- 42) 국토통일원, 『남북한비교총서』 (1988), pp.62-66.
- 43)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80. 10).
- 44) 북한은 80년 10월 80년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발표한 바 이는 제2차 7개년 계획의 수정계획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84년 발표한 “합영법”이 이와같은 의미에 보완된다.
- 45) 이남현 역, 「북한 경제 입문」 (1988), p. 252
- 46) 현대조선문제강화편집위원회, 『북한의 경제』 (1988), pp.144-145.
- 47) 鎌倉孝夫, “약진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제,” 『사회주의』 (1980. 2), p.110.
- 48)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89), p.30.
- 49)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pp.62-60.
- 50) 金光洙, 『比較經濟體制論』 (研究社, 1990), pp.201-230.  
 朴光淳, 『比較經濟體制論』 (裕農出版社, 1989), pp.249-262.
- 51) 경제적 효율성이란 기술적 효율성을 포함하는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 52) 이태욱, “경제 : 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90), p.212
- 53) 북한은 제1차 7개년 계획(1961-67[70])을 마치면서도 농업부문의 실적을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목표에 미달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북한이 발

표한 동기간의 농민의 실질수입의 1.8배 증가 역시 농산물가격인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54) 『남북한 경제력 비교』 (1974), p.127.
- 55)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1986), p.734.
- 56) 변형윤, “한국경제의 성장과 변천,”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1987), p.44.
- 5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의 사회지표』, 각년호,
- 58) 김종호, “남북한 경제비교,” 『남북한 비교론』 (문우사, 1986), p.157.
- 59)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교류추진방안에 관한 제2차 연구”(1982), p.10.
- 60) 국토통일원, 『남북한 총력추세비교』 (1979), p.256.
- 61)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6), p.42.
- 62) 서진영,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p. 340.
- 63)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8), pp.55-56.
- 64) 川田信一郎, “諸作物の栽培よりみた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農業,” 『農業構造問題研究』, 第2號(1983).
- 65) 구천서 역, 『한반도문제의 새로운 인식 : 분단체제의 형성과 전개』 (온누리, 1987), p.204.
- 66)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71, 1985), p.125.
- 67) 장상환, “북한농업의 전개과정,”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1990), p.120.
- 68) 김운근, “북한의 농업생산량 추정,” 『북한학보』, 제8집(1984), p.137.
- 69) 국토통일원, 『남북한 총력추세비교』 (1979), p.267.
- 70)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Quarterly Economic Review of North*

- Korea · China* (Annual Supplement, 1985), p.55.
- 71)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9), pp.67-68.
- 72) 이태욱, “경제 : 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90), p.179.
- 73) 남북한 부존량의 차이는 다음 책을 참조하기 바람. 대한광업회, 『광업연감』 (1960), p.31.
- 74) 연하청, “경제분야,” 『남북한비교총서』 (1988), p.78.
- 75) 국토통일원 『남북한 총력추세비교』 (1979), p.268.
- 76) 박문정, “북한공업의 전개과정,”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162.
- 77)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9), p.68.
- 78) 전용렬, “『북한경제』 (1983), pp. 123-124.
- 79)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89), pp.206-207.
- 80) 연하청, 前掲書, p. 79.
- 8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 *Country Profile, China · North Korea* (1987), p.156.
- 82)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9), pp.78-79.
- 83) 연하청, “경제분야,” 『남북한 비교총서』 (국토통일원, 1988), p.83.
- 84)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 pp.167-168.
- 85) 小村武樹, “北朝鮮の第三次七か年計劃目が指すまの,” 『ユリア評論』, No, 301(民族問題研究所, 1987).
- 86) 장상환, “북한농업의 전개과정,”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115-116.
- 8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85), p.217.

- 88) 이태욱, “경제 : 자력갱생정책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90), pp.161-162.
- 89) 김수근 외 2명, 『한국경제론』 (경세원, 1987), pp.158-162.
- 90) 이태욱, “북한경제의 부문별 현황,” 『북한의 경제』 (을유문화사, 1990), p.158.
- 91) 북한연구소, 『북한경제론』 (1977), p.327.
- 92) Alec Nove, *The Soviet Economy*, 3rd revised ed.(1968). pp.111-112.
- 93)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1989), pp.25-27.
- 94) 이필우, 『재정학개론』 (법문사, 1985), pp.179-183.
- 95) 『남북한 경제력비교』, 제1권(1974), p.282.
- 96)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9), p.50.
- 97) 북한연구소. 『북한경제론』 (1977), p.366-374.
- 98) 경비팽창의 원인의 학설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Wagner의 학설을 따른다. 이필우, 『재정학개론』 (법문사, 1985), pp.219-233.
- 99) 이같은 경향은 공통적 현상인 것이다. 북한연구소, 『북한경제론』 (1977), pp.363.
- 100) 上揭書, p.364.
- 101) 유완식, “북한의 재정구조,” 『동서경제』 (해외경제연구소, 1973), p.39.
- 102) Martin Schnitzer, *East and West Germany : A Comparative Economic Analysis*. 2nd ed.(1974), p.268.
- 103) Alec Nove, *The Soviet Economy*, 3rd revised ed.(1968), pp. 121-122.
- 104)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6, 1989), p.37, p.47.
- 105) 북한연구소, 『북한경제론』 (1977), p.365.
- 106) 上揭書, p. 366.



- 107)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9), p.170.
- 108) 上揭書, pp.171~172.
- 109) 경직성 경비란 국가의 세출예산 중 법률이나 확정된 정책방침에 따라 지출규모나 방법 등이 미리 정해짐으로써 감축의 여지가 없는 경비를 말하며, 방위비, 지방교부금, 교육비, 행정비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는 신규사업 없이 종래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다. 김이태, 『현대한국경제론』 (법문사, 1988), p.278.
- 110) 정일용, “한국무역의 성장과 과제,”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1987), pp.382-419.
- 110)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 pp.177-184.
- 111) 『남북한 경제력비교』 (한국개발연구원, 1986), pp.177-184.
- 112) 『남북한 경제력비교』 (1973), p.358.
- 113) 前揭書, p.360.
- 114) 前揭書 p.361.
- 115) 북한의 60년대 무역은 대공산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는 쌍무적이었으며 불균형이 물자교환으로 시정되었다. 그리고 비공산권 국가와의 무역을 강화로 결제되었다.
- 116)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1986), p.74.
- 117) 북한은 1970년대초 석유파동으로 인해 수입장비 및 원재료의 가격은 등귀한 반면 서구경제의 불황으로 주요수출품목 즉 외화보유의 원천이었던 비철금속의 국제가격하락으로 외화획득에 실패하였다.
- 118) 이은주, “북한의 대외관계와 경제개발의 종속적 성격,” 『논문집』, 제11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pp.62-63

- 119) 북한연구소, 『북한경제론』 (1977), p.419
- 120) 북한은 1975년부터 외채상황이 지연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외채불능상태에 빠졌다. 최근 북한의 국제신용도는 남한이 15위인 반면 세계 최하위인 120에 위치하며 1989년 외채의 규모는 67.8억불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일철, “북한 40년 개관,”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p. 247.
- 121) 上揭書, pp. 248-249.
- 122)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엄홍철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1987), pp.190~191.
- 123) 김용기, 上揭論文, p. 209.
- 124) 上揭書, pp.210-212
- 125) 이정우, “국민생활의 명암,” 『한국경제의 이해』 (서울: 비봉출판사, 1987), p.493.
- 126) 上揭書, p.494.
- 127) 갈브레이드·멘쉬코프,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공존』 (서울: 서당, 1986), p. 59.

**分斷45年**  
**南北韓 經濟의 綜合的 比較研究**

---

1990년 12월 13일 인쇄

1990년 12월 28일 발행

발행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720-2426, 2143

인쇄 : 웃 고 문 화 사

---